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 재미서울대동창회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3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 981-1464, Fax. (847) 981-1465  
e-mail : snuausa@snuaa.org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월간 105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2년 11월 28일

## 在美同窓會 母校 鄭총장과 年頭회견 계획

우수 신입생 선발방안과 母校의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 보내 주세요

母校는 뉴욕의 원로동문들이 제기 하였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선발에 있어 지역 할당제는 우수 신입생 선발방안 중의 하나로 도입하고자 연구중이라고 재미 동창회보에 알려왔고 재미 동창회와 이 문제에 관한 총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주선했음을 밝혀 왔다.

본보는 지난 호(104호 1면)에 母校의 정운찬 총장이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보도된 모교 신입생 地域割當制에 대하여 뉴욕의 원로 동문들이 제기하였던 강력한 반대 여론을 보도하기 전에 10월 17일자로 총장실로 이 여론을 직접 전달하여 11월 12일까지 앞으로 시행할 입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기고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자로 대학본부 기획실장 柳根培 교수(사회대 77년졸)는 "총장님을 대신해서 기고문을 올립니

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에 보내왔다(全文 6면 참조). 柳 교수는 재미 동문들의 반대여론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지역할당제'란 말은[이] 잘못 전달된 데에서 나왔으며 이는 현재 母校에서 연구중인 "다양한 입시방안의 하나"라고 하였다. 柳 교수는 지역할당제의 도입 필요성의 논거로서 母校의 명칭인 국립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라는 말에는 國立이라는 의미와 "全國의 수재들"을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대학이라는 의미였는데, "최근 들어 어느 도시의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종 자제들이 입학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인데 서울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국의 수재들이, 특히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수재들을 보다 큰 모집단[母集團]에서 선발하여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이제도가 필요하

고 하였다. 柳 기획실장은 기고문의 말미에 追啓하여 母校에 대한 미주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에 부응하여 "원하시면 총장님과과의 전화 인터뷰를 주선했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재미동창회보는 母校의 발전을 위하여 재미 동문들의 교육경험과 전문분야에서의 식견을 모교의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의 일환으로서 鄭총장과의 신입생선발방안 및 모교의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재미동문들의 관심사와 의견을 모아 뜻있는 기자회견을 마련하고자 한다. 母校를 한국의 最高대학으로부터 世界的인 수준의 선진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동량(棟樑)을 기르고 창의적인 學者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동문 모두의 관심사이다. 동문들께서는 모교발전을 위하여 마련되는 정총장과 재미서울대동창회보와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설문과제(設問課題)를 제안하여 주시고 또 太平洋을 넘어서 진행될 記者會見을 유호하게 진행할 민원기자(敏腕記者)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초빙합니다. 동문들께서는 母校에 제기하고 싶은 문제를 재미 동창회보로 12월 25일까지 제

출하여 참여하여 母校를 高揚하는 牽引車로서의 一翼을 담당하는 재미 서울대 동창회가 되게 합시다.

### 思母曲

創作詩

金澤洙(의대 63년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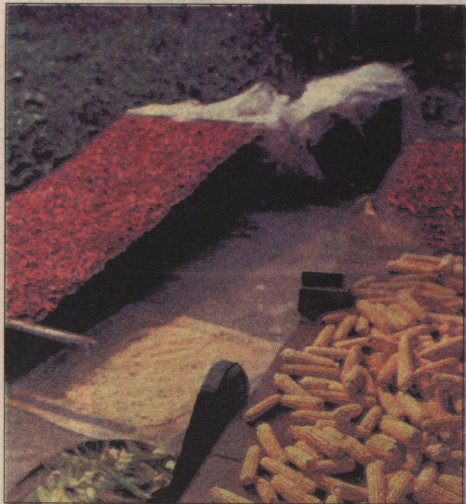
비로 쓸어도 다시 오고  
먼지채로 털어도 다시 오고  
겉레로 짝씩 훑쳐 내도 다시 오는 먼지  
나와 무슨 인연이 있나보다  
화장할 때 재기되신 우리어머니  
아들이 못내 그리워  
먼지 되어 오시나 보다  
생전에도 그리 그리워하시더니  
영원히 눈감으신 후에도  
아들을 영영 못 잊어  
먼지 되어 오시고 또 오시나 보다



사진> 事必歸正.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좌측사진) 이번 타계한 손기정 선수의 최근 발견된 베를린 올림픽 시상대의 통헌의 사진(가운데) 최근 긴밀해져 가는 남북한의 교류를 반영하여 이번에 남쪽에 전시 차 온 북한의 국보급 유물들.

###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3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7면



# 자조자립하고자 하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 전체 同門들의 誠心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활한 미주전역에 산재하는 재미동문가족들과 지역동창회의 활동소식을 기록하고 지성인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재미동창회보의 기초 발간재원이 되는 금회계년도의 "동창회보 구독료" 청구서가 발송된 지 2개월만에 전년도 납부자(1391명)의 절반을 웃도는 숫자(723명)의 동문들이 구독료를 보내왔다. 이에 대하여 재미동창회보 편집진용은 동문들의 성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동문독지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발간을 계속하여 지난 6월에는 지령 100호라는 한 이정표(里程碑)를 기록하였으나 지금까

지 동창회보는 많은 동문들의 無關心 속에 있었음도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여 뉴욕의 한 동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보구독료 납부서에 동봉하여 왔다. "동문활동이 이민생활의 거족적 연대성 형성에 저해요소라고 보아왔는데 [...재미동창회보의 새로운 편집방향에 관한] 소식에 처음 구독료를 보냅니다. 희망에서" (회보편집진용은 위 동문의 격려와 준엄한 기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납부자의 명단을 일별할 때 거의가 지난 회계년도에 납부하신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금년도도 납부된 회보구독료로서 동창회보 발간에 필요한 경사재원

을 자급자족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의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전년도 회보구독료 총액이 \$71,548.86에 달하였으나 이는 회보발행 예산의 절반(折半)에 불과하였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보편집실에서는 편집과정에 이면지(裏面紙)를 사용하여 절약하고 그 이전 회보발행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으로 회보를 발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편집국의 인력비용을 동문들의 자원봉사와 노력으로 보전하여 긴축예산을 집행한 결과, 또한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 지원의 덕분에 간신히 중단없는 회보발행을 해온 실정이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전체동문들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誠心어린 "회보구독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내용있고 격조있는 재미동창회보의 간행을 위하여 회보편집진용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재미동창회 제 9차 상임 임원회의 10월 31일(목) 6시 30분/총동창회 본부

<참석자> 이용락 회장, 송순영 관악부회장, 구경회 사무총장, 김정주 총무국장, 전현일 재무국장, 장기남 섭외국장, 박영규 감사, 강영국 광고위원장, 김정수 회보편집인(배석)

재미총동창회 제6대 집행부의 9차 상임임원회의가 지난달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에 총동창회 본부에서 열려 제6대 집행부 2차년도의 총동창회의 회무전반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는 송 재무국장이 현재의 재정현황을 검토하였는데 금년에는 회보구독료 청구서가 발송된 지 한달만에 604명의 동문들이 회보구독료를 납부한 반면 관악후원회비는 17명(종신이사 1명 포함)의 \$15,000이 출연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 면세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미총동창회의 IRS보고서가 아직도 일부 지역동창회에서 재무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기금보고서의 전 회계년도 자료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또 사무총장은 각 지역동창회에 다시한번 연락하여 재무자료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IRS 보고서를 법정 기일내에 완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외에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발간에 사용되는 총동창회 운영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의 출연이 금년도에 아직까지 시카고 지역동창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결여된 사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하여 참석자들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제기된 문제점의 하나는 금년의 회보구독료 납부사항이 빠름에 따라 동문들간에 "이제는 관악후원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낙관적인 무관심론을 어떻게 극복하여 금년도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의 재정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과제였다. 이어 이 날 처음으로 참석하신 광고위원장 강영국 동문(수의대 67년입)이 지난 9월 4일 첫모임을 가진 광고위원회의 토론내용(회보 104호 2면 참조)과 회보에 게재한 재미동창회보 광고원칙(회보 103호 30면 참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아직까지 광고계재신청이 없는 실정이지만 계속하여 광고확보에 임원들과 여타지역 동문들의 노력을 모으기로 하였다. 金 회보편집인은 이번 회보(104호 1면과 2면)에 보도된 "母校 신입생 地域割當制案에 대한 同門들 강력 반대-뉴욕의 원로 동문들 필요 시 정총장 퇴진운동도 불사" 라는 기사의 배경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金편집인은 모교 입시제도가 내포하는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이 문제는 보도기사로보다는 母校총장실에 요청한 기고문이 도착하고 뉴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제기한 동문들과 기타 투고되는 동문들의 의견들이 모아지면 모교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재미동창회보를 편집하여 내용있는 문필과 논고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회의는 간소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2시간여 동안 토론 후 散會하였다.



"Love from Washington"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계속  
동창회보 발행財源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 Washington, DC Concert(2001년 8월 25일)에서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편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악후원회와 母校와 後進을 위한 財源으로 사용된다.  
가격 : CD 1개당 \$15(송리는 첫 한 개에 \$3 복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1인당) : 제한 있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 이내로 선착순 주문 판매하오니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 재미 서울대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SNUJ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unaajaa@snujaaa.org  
\* 수표는 Payable to SNUJAAUSA로 작성 바람.

## 在美서울대 同窓會報 발간을 가능하게 뒷바치는 금년도 美洲冠岳後援會 理事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금년 6월로 지령 100호를 기록한 재미동창회보의 중단없는 발간을 전체동문여러분들과 함께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주소가 확인된 미주전역과 캐나다 및 서울 총동창회의 동문들에게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간과 배포를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美洲冠岳後援會 理事로 금년도도 참여하신 아래의 同門들과 시카고 지역동창회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알차고 격조있는 동창회보 발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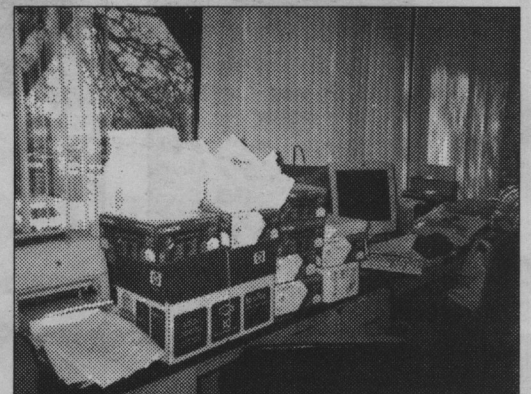
美洲冠岳後援會 理事명단(2002년 7월 1일-2002년 11월 28일까지 참여자)

### ◆일반이사◆

- 서동영(사범대 60입), 제영혜(가정대 71입), 정원훈(상대 38입), 정유석(의대 58입), 김용학(법대 70입), 소진문(치대 58입), 장기남(문리대 62입), 최호승(사범대 58입), 전현일(농대 62입), 강영국(수의대 67입), 송순영(문리대 52입), 구경회(의대 59입), 시카고지역동창회, 한재은(의대 59입), 이용락(공대 53졸), 엄무광(문리대 61입), 허유행(사범대 57입), 권승림(공대 52입), 김용건(문리대 48입), 김상순(상대 67입), 현재원(공대 60입), 정정수(의대 56입), 윤상래(수의대 62입), 강경식(문리대 55입)

### ◆종신이사◆

- 노명호(공대 61입), 이용락(공대 53졸), 오인석(법대 58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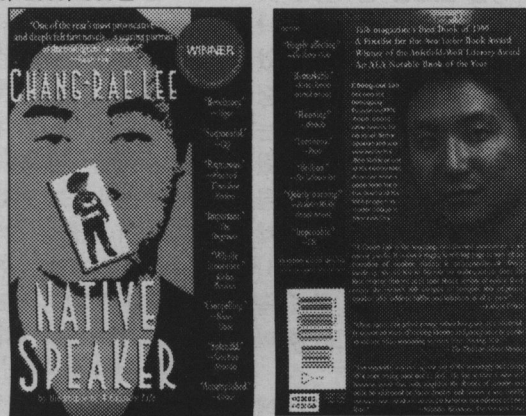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행재원을 마련하고 동문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보내는 '구독료 청구서'. 5000여명의 동문들의 주소를 정비하여 동문들의 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청구서'를 전부 발송하기 위해서는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문들께서 주소 변경시에는 동창회 사무실로 새주소를 알려주시면 명명명되는 동창회보로부터 생기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창회보가 배달중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니 받지 못하는 경우 동창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한인청소년재단 창립 10주년기념 이민문학 독후감 현상모집

◇올해의 독후감 대상 작품◇

◆Chang-Rae Lee,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Books, 1995, 349면

◆Chang-Rae Lee, A Gesture Life, New York Riverhead Books, 2000, 356면



미주 한인사회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면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미주 한인청소년 재단이 2003년이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본 재단에서 창립 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을 확대하여 이민 문학 독후감을 현상공모 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 주류 문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미래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그들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서를 접하게 함으로써 세대차와 생각의 차이를 극복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해당작가와 대화모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대상: 미주지역 거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응모방법: 프린스턴대 이창래 교수의 '네이티브 스피커'나 '제스처 라이프'를 정독한 후 독후감을 작성, 본 재단으로 우송 또는 이메일 바람.

The Korean-American Youth Foundation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E-mail: koreanamericanyouthfoundation@yahoo.com

▶독후감 작성언어: 영어(한글은 제외)

▶응모기간: 2002년 11월 1일-2003년 2월 28일 사이

▶심사방법: 사계의 권위자들에게 위촉 심사한 후 결과발표

▶시상내역: 고등부 당선자 1편-\$1000, 대학부 당선자 1편-\$1000, 대학원 당선자 1편-\$1000

▶당선자 발표: 2003년 4월 세계일보 지상

▶시상식: 2003년 5월 재단 창립기념식에서 거행 예정

▶전화: 718-768-1264 팩스: 718-768-0254

주최 미주한인청소년 재단 / 후원 세계일보 / 협찬 고려서적

## <인생마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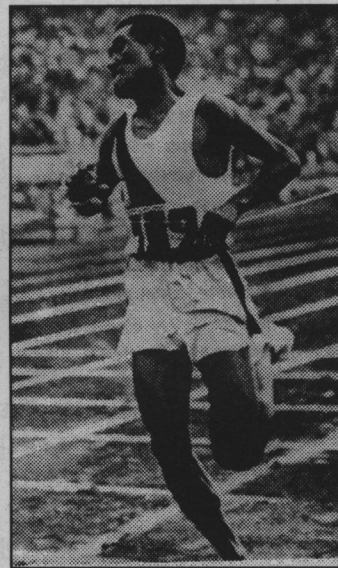
李泰相(문리대 59년졸)

지난 11월 15일(한국시간) 孫基禎옹이 별세하여 17일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회葬으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는 이 땅에서 90년의 인생마라톤 코스를 훌륭하게 끝내고 다른 별나라 저 하늘로 달려갔다. 지금도 우리민족의 너리에 생생한 채 남아 있는 1935년 제 11회 베를린 올림픽에 植民諸國 일본대표로 출전하여 2시간 26분 14초의 신기록으로 세계를 제패하였으나 그는 월계관을 쓴 채 시상대에서 월계수로 가슴의 日章旗를 가려 韓民族의 痛恨을 대변하였다.

지난 10월 부산 아시안게임에선 북한의 함봉실과 남한의 이봉주 '봉봉남매'가 남녀 마라톤 동반우승의 쾌거를 이룩했다. 세계정상에 올랐던 서윤복, 함기용 두 원로들의 뒤를 계승 제 105회 보스턴 마라톤을 정복한 이봉주는 1998년 방콕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아시안게임의 대미(大尾)를 장식했다. 그 뿐더러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마라톤에서 56년만에 황영조가 금메달을 따내는 순간을 지켜보던 우리 모두 하나 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그 당시 80세이던 손기정옹과 더불어. 그 때 孫翁은 한민족을 대변해 말하였다. "56년전 베를린에서 무작정 뛰며 금메달을 땀을 때내 나라 없는 설움에 울 수 밖에 없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황영조 후배가 꿈에 그리던 태극

기 금메달을 따내니 기뻐서 눈물이 난다."

아니 어쩌면 그는 온 인류를 대변해서 말한 것이다.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드거리 매스터스의 묘비명체(墓碑銘體)로 쓴 그의 대표작 자유시<술가락 모양의 미끼쇠江 詩選集>에 나오는 말이다. "지구는 진동(振動)을 계속해 나간다. 네 가슴 속에. 이렇게 가



슴뿔이 바로 너다 (The earth keeps some vibrations going. There in your heart, and that is you) 이는 스펀 리버란 작은 마을에 살던 전(前) 주민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그들이 살아 생전 이루어보지 못한 그들의 삶에 대해 하는 말 가운데 나온다. 프랑스 俗談에 이르기를, "인생은

하나의 양파이다. 울면서 까는' (Life is an onion which one peels crying) 그리고 1961년 노벨 평화상을 땀 유엔사무총장이었던 스웨덴의 정치가 닥알마 함 마셀드는 말하였다. "인생이 그토록 비참하다고? 네 두손이 너무 작고 네 시야와 안목이 어둔 것이 아니고? 네가 성장해야 한다" (Is life so wretched? Isn't it rather your hands which are too small, your vision which is muddled? You are the one who must grow up) 또 P. R. Regamey가 하였다는 말처럼, "인생은 내가 오직 삶으로써만 찾아낼 수 있는 숨은 힘을 갖고 있다" (Life has its hidden forces which you can only discover by living) 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말하리라.

너 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사람이면 누구나 다  
힘껏 열심히 달리고 뛰어보아지  
너와 나의 우리 가슴뿔은 대로  
손기정옹 같이 또 황영조 선수같이  
서윤복, 함기용 모든 선수들같이  
평평이리 아니 하늘을 달리듯이  
살을 산다는 산을 뛰어 오르는  
인생코스 곧 마라톤코스 아니라?  
마라톤 가운데 마라톤이겠지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  
인생마라톤, 인생무궁화꽃 피우리  
우리 모두 뛰고 달리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금메달 선수지!  
장하다 우리 자식 '봉봉남매'  
용타 남남북북 이봉주, 함봉실야!  
우리 모두 다 너희처럼 되리라.

### 미주한인 청소년재단

(The Korean-American Youth Foundation, 회장 방준재, 의대 63년입)은 미주 한인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면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작년에는 911사태를 기념하기 위하여 미주한인 청소년(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Where were you on September 11?" 란 주제로 영어 수필을 현상모집하여 41편을 선정하여 지난 5월 21일에 155편의 文集

을 발간하여 미래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문필력을 장려하고 911테러사태의 문제의식을 드높이는데 크게 공헌한 바 있다. 이번 재단창립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아래와 같이 이민문학 독후감을 현상모집한다.

###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                                |    |
|--------------------------------|----|
| 思母曲/ 김택수                       | 1  |
| 인생마라톤/이태상                      | 3  |
| 단풍나무 계곡의 한 오솔길/고희선             | 4  |
| 신입생 지역할당제에 대하여/유근배, 한장섭        | 6  |
| 우리가 남이가!/정태                    | 5  |
| 이상한 나라/장동만                     | 4  |
| 대통령선거有感/김재순                    | 7  |
| 보건복지 중요시하는 한국의 대통령을 원한다/김일훈    | 7  |
| 자유주의에 충실하였던 상원의원을 추모하며/미국시론    | 9  |
| 북한의 동정/ 미국시론                   | 9  |
| 의장특허(意匠特許)와 복사권(複寫權)/옥유진       | 13 |
| 나의 미술세계/한규남                    | 30 |
| 늬움의 아름다움/권이혁                   | 10 |
| 帝國의 점령정책 비교/미국시론               | 11 |
| 오사마의 地下로부터의 목소리/미국시론           | 8  |
| 나의 銀行 Odyssey/ 정원훈             | 13 |
| 세종대왕의 유교와 농업 개혁명/ 이태진          | 14 |
| Viagra 문화/ 니수섭                 | 13 |
| 미국에서 살다보니<2>/ 허유행              | 15 |
| 치과대학 16기 졸업4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와서/소진문 | 16 |

### 사필귀정(事必歸正)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척자의 삶은 長征이며 大河의 흐름이다. 우리 동문들의 개인의 인생살이도, 한국의 最高 大學으로부터 世界的인 고등교육기관으로 母校를 高揚하는 일도,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여정도, 거의 한 세기에 걸친 中東紛爭의 여파인 9.11 테러사태로부터 세계적인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은 淸濁의 激流가 병탄(併呑)하여 굽이치는 大河의 흐름같이 事必歸正이다. 天高馬肥의 계절을 맞아 美洲땅에서 望郷의 그리움을 안고 가는 개척자의 삶에서 우리나라 동문들의 隨想이 이번 호의 主流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제와 흥미한 세계 정세를 반영하여 한국과 미국은 政治的地形에 변화를 가져오는 선거철이다.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한 미국정치에 있어 집권당은 중간선거시 세력을 잃는다는 통상적인 추세와는 달리 지난 선거를 통하여 오사마風의 탓인지 牧童의 帝王黨은 兩院을 지배하게 되었다. 모국에서는 다음달에 어떠한 경륜을 가진 인물을 지도자로 선출하여 정착해 가는 민주체제를 내실화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대두되어 있다. 文筆과 論考者는 식민통치기의 암울한 시절에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을 2시간 26분 14초의 신기록으로 제패하였으나 시상대에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월계수로 가려 민족의 痛恨을 웅변하여 우리의 투혼(鬪魂)과 기개(氣概)를 표상한 손기정 선수의 90년의 삶에 동문들과 함께 삼가 敬意를 표한다.

시인들의 風光

단풍나무 계곡의 한 오솔길

고희선 (법대 64년입, 워싱턴지역 동창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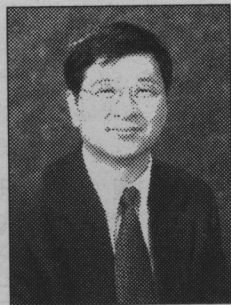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어지고 갔습니다."

누구나 기억할 시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한 구절이다. 절정기의 환상적인 가을 단풍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단풍나무숲 오솔길을 향해 떠나간 님을 쫓는 시인이자 진배없다. 그래서 막상 가을이 다가오고 저물어가는 10월의 하루하루를 손꼽기 시작하면 비로소 매일 매일이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단풍의 절정기는 언제인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단풍의 빛깔은 심한 경우는 아침과 오후에 시간차와 햇빛의 밝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절정기 또한 그해 그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10월의 세째 주일 아니면 네째 주일이 절정이겠지만 우물우물하다 11월로 넘어가면 그만 가을단풍 나들이를 놓치기 십상이다.

미 동부의 대스모키산맥(Great Smokey Mountains)의 유명한 단풍이나 미네소타의 불타는 단풍의 숲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시인들의 단풍하면, "글쎄..". 하고 고개를 가우뚱 거릴 수도 있다. 물론 가을의 고국 하면 매혹적이고 화려한 단풍나무의 새빨간 색을 연상하는 사람에게도 시인들의 단풍은 애매할 지도 모른다. 예년처럼

시인들의 나의 이웃들은 그로서리에서 캐쉬어를 하다가 또는 세탁소에서 손님을 맞으며 창문 밖을 문득 바라보던 중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고 후다닥 두리번거렸을 것이다. 또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눈이 밝아져 열심히 치던 골프채를 놓고 쌓인 낙엽과 물들은 나무들의 현란한 色調의 饗宴에 놀라 주위를 새롭게 바라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을이 오면 골프장의 나무사이로 그저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너는 좋지 않느냐?" 하던가, "낙엽을 태우면 구수한 개암냄새가 난다"던가 하는 옛날 시인의 글이나 떠올리는 것이 고작이어서 낙엽과 단풍이 딴 세상이 이야기처럼 곁도는 나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시사철 산수가 아름다운 초록색의 워싱턴 주에서도 올해의 가을은 특이했다. 올해의 가을과 단풍은 단연코 아름다웠다. 지난 주 올림픽산맥의 단풍나무 오솔길을 다녀온 이후로 나의 확신은 더했다. 그곳 단풍나무로 덮인 계곡을 지금도 꿈속에서인가 갔다온 기분이다. 사실이지 수년 전 한번 가을 단풍의 황홀함을 경험한 적이 있기에 틈틈이 올해도 가을을 찾아 워싱턴 주를 헤매기는 하였다. 두어 주 전에는 필척산으로 둘러싸인 헤더湖水를 찾았었다. 호수의 가을은 빨갛고 노란 단



풍이 절벽과 호숫가를 물들이고 있었고 살얼음이 이미 깔린 水面은 짧은 햇볕을 아쉬워하며 하늘과 산과 가을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다. 매일 매일 또한 쇼팽센터를 지날 때마다 지나치는 단풍나무의 색깔에 놀라며 어디론가 지나 갈 시인들의 가을을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우리 이웃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고단함에 시간을 쪼개, 서둘러 11월의 첫 주에 단풍나무숲을 찾아 떠난 길은 그리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단지 단풍나무 계곡의 오솔길(Maple Valley Trail)이라는 地名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있으리라 여길 정도였다. 그러나 올림픽 반도의 후드커널을 끼고 도는 호숫가의 길에서 빼끔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단풍나무숲의 노오란 색깔을 대하며 무작정 길을 달릴 때 이미 나는 신들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도스월립스(Dosewallips) 공원의 野營장을 들어서서, 발 디딜 틈 없이 덮고 있는 산처럼 쌓인 낙엽을 휘저거리며 걸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바로 이 곳이 나의 가을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으며, 님이 방금 지나간 길이었음을.

낙엽은 바삭 바삭 채 색깔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이 곳 단풍나무의 溪谷은 온통 단풍나무로 노란 색깔뿐이었다. 개울가의 외나무다리에는 온통 落葉으로 쌓여 있었다. 오솔길의 벤치와 개울가의 공터는 낙엽 보료를 깔아놓은 듯 하였다. 지천으로 쌓인 황금의 낙엽 속에 나는 할 말을 잃게 되었다. 바삭바삭 낙엽 밟는 소리는 텅 빈 산에 메아리쳐 흩어지고 나는 얼마를 어떻게 걸었는지 잊어버렸다. 수많은 노란색중 神이 선택한 황금색으로 단풍나무는 치장된 채 산은 땅거미를 드리우고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황금색의 향연 속에 이렇게도 전혀 다른 노란색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을의 단풍은 여름의 기후에 달려있다. 여름이 건조하여 충분한 햇빛을 쏘인 일은 충분한 영양을 저장하여 단단한 잎줄기가 되어 형형색색의 色調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젖어 내리듯 비오는 시인들의 날씨를 잊게 했던 유난히도 건조했던 올 여름을 보며 올해는 단풍이 유난히 좋을 것이라고 여름 내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건네었다. 여름은 가을의 화려한 단풍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올 가을 시인들의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은 뜻밖에 찾아왔다. 우리가 단풍나무계곡을 찾은 것이 偶然이었지만 必然이었다고 믿는다. 우연이 필연이라는 선문답의

경지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풍나무 계곡은 가을을 선물했다. 바로 그곳에서 만난 동네 사람의 말 그대로였다. "당신들은 정말로 운이 좋네 그려, 이곳의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기도 드물지만 이렇게 단풍잎이 젖지 않아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해도 없었네. 나도 여기서 십수년을 살았지만 이 오솔길을 짐척거리지 않으며 걸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네."

우리가 시에들에 온 것도 어쩌면 우연일지 모른다. 하지만 동물적 후각으로 아니면 철새가 가진 누구도 모를 신비의 나침반으로 찾아 왔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당연히 가을을 찾아 부랴부랴 떠난 길이 이 곳에 이른 섭리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리 人生은 아무도 모르는 손에 이끌려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 마음 속 깊은 소리에 귀기울일 때 갈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안다. 올해의 시인들의 가을은 가장 훌륭했으며 우리는 단풍나무 계곡이 부르는 소리에 끌려 이곳을 찾았다.

한용운의 시는 계속 마음속에 맴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을은 간다. 그리고 단풍잎은 하염없이 떨어진다. 도스월립스 공원의 오솔길은 꿈속의 가을로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11/4/2002)

참으로 이상한 나라

장동만 (문리대 61년졸)

"한국에서 김 대통령에게 賞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역로비가 많이 있었다. '한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요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DJ의 노벨 평화상 수상 로비설'에 대해 노벨 위원회 베르케 위원장이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美國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애틀랜타 올림픽 때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 잘 어울린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참 이상한 일이다. 운동선수들은 그러는데 나는 지난 3년동안 남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둘 다 한국의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및 당시 한반도 대치 상황에 대한 현상 인식이 결여된 데서 나온 피상적인 발언들이라는 생각인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한 취지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어디 비단 그것 뿐 일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일들'을 여기에 몇 가지 모아 본다.

첫째, 경선(競選)으로 뽑힌 대통령 후보 불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담시고 유권자가 참여하는 당내 경선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아우성이다. 여기서 한 번 상상해 보자. 미국에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대통령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한 후, 선거일에 임박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사퇴하라"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둘째, 적자 투성이 국영 공영 기업들. 한국의 전기, 수도, 철도, 지하철 등 공공요금은 너무나 싸다. 미국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이 국공영 기업 모두가 한결같이 엄청난 赤字에 허덕인다. 한 예로 대구 지하철의 경우, 하루에 1억여원씩 적자를 낸다. 그러해서 엄청난 '公的資金'이 여기에 투입되고, 이에 따라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불어난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뿐이고, 근본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있고 내일은 '나 몰라라' 하는 나라,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세번째, 주택 보급을 95% 속의 '주택난'을 들 수 있다. 통계상으로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95%에 가깝다. 공급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수도권권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 때면 몇 10대 1의 경쟁율을 보인다. 그러해서 당첨만 되면 분양권 한 장만 갖고도 수천만 원, 수억원을 앞서서 번다. 아파트 분양권이 곧 복권이 되는 나라,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네번째, 영문을 알 수 없는 중산층의 썸슴이. 1인당 GNP가 미국의 3분의 1도 안되는 나라 중산층의 의식주가 미국보다 나으면 내외지 결코 못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미국 중산층 보다 훨씬 풍성하고 호화롭다. 그렇다고 봉급 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도 아니고, 국민 저축율 또한 선진국에 비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공식 수입 외에 음성 수입, 부정 수입, 골 조세에 안 잡히는 '지하경제' 규모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나라, '참으로 이상

한 나라'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거짓말 안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를 반영하는 세대.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는 어떤 유학 희망 대학생을 꾸짖으니 그가 하는 말, "우리는 거짓말 문화 속에서 삽니다. 선생님(재미 동포)도 거짓말을 안 하면 한국에선 아무 일도 못합니다"라는 대꾸였다고 한다. "거짓 증언하지 말찌어니..." 하는 聖經 가르침을 받는 기독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짓말 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일'인가?

이밖에도, 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 입산부들이 해외로 원정출산을 가는 나라, 영어 R字 발음을 잘하기 위해 어린이 햇바닥 수업을 받는 나라, 2세에게 좋은 시주팔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점괘에 따라 때맞추어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나라, 고급 위스키 소비량이 세계 최고인 나라, 여자들이 얼굴을 디듬을 때 쓰는 화장품 가지 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이 모두가 '너무나 이상한 나라'의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李英默 동문 (공대 63년졸)

출판기념회

2003년 1월 3일(일) 오후 6시

워싱턴지역 동창회 회장이며 文筆家인 李英默 동문이 그간 집필해온 단편 소설들을 모아 「우리들의 초상화」를 간행하여 워싱턴지역 韓人 移民백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출판기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동문의 단편 소설집은 이민자들의 力動的인 생활과 哀歌를 그린 작품들을 모은 것이다. 이 출판기념회의 수익금은 移民 백주년기념사업에 사용될 것이다. 많은 동문들과 문화애호가들을 초대합니다.

아 래  
일시: 2003년 1월 3일(일) 오후 6시  
장소: 한성옥 (6341 Columbia pike, Falls church, VA 22041)  
전화: 703-642-0808  
회비: \$50이상 (책과 식사가 제공되며 수익금은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에 쓰여짐)  
출간작품: 「우리들의 초상화」  
지은이: 이영묵  
펴낸이: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회(워싱턴)

# 우리가 남이가!

## 友情과 望郷의 수상

鄭太(의대 57년입)

### I

의과대학 졸업 40주년 기념 모임은 나에게 더없는 즐거움과 반가움을 안겨 주었고 좁아져 가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어 감사했다. 夕陽에 드는 나이에 또 다시 만날 기약이 없었기에 - 실은 "매년 만남시다!" 외쳐도 보았지만 - 졸업한 후 처음 뵈게 된 분들 더욱이나 소위 노장되시는 분들이 희곡희곡한 머리카락임에도 정정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 더욱 반가웠다. 더 더욱이나 그런 반가움과 즐거움 속에 아우성치며 외쳤던 "우리가 남이가!"의 축배의 외침은 더없이 내 마음을 흔들여 놓았다.

나는 1957년 몹시도 천진하고 젊은 나이에 큰 포부와 기대 또 정부의 그럴듯한 약속을 믿고 서울에 귀환하였다. 어려움 끝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前方을 관할하는 一軍에서만 3년을 근무하고 제대증을 1965년 7월 31일자로 받아 쥐고 8월 5일 미국으로 떠났다. 걱정어린 장모님, 한 살 된 아들과 아내를 뒤에 두고 한스럽고 서러움에 "내 이놈의 땅엔 다신 안 디덜테야!" 헛소리 치고 뒤도 다시 돌아보지 않고 여의도 공항을 떠났다. 아마도 그 때 내 서러움에 외친 헛소리에 내 한 살 또리를 가진 아내에게 "정녕 저 사람이 우리를 버리거나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끼쳐가며... 부모 형제들, 친척, 친구들 다 버리고 "도망"쳐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걱정되고 의심했을 것이 당연하였으리라.

미국에서 산지 십 여년 후에 오재경 장관님(우리 아이들은 이분을 "grandpa"로 부르고 존경하고 있다)의 각별한 충고와 격려로 해서 1980년에 처음 헛소리했던 것을 억지로 잊어가며 한국에 들리게 되었고, 그로 해서 내 서러움이 덜해져감에서인지 아니면 좁은 철이 들어 노함과 서러움을 다룰 줄 알아서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노함과 서러움으로 해서 다시 "땅"을 밟지 않겠다 헛소리 했던 마음은 아랑곳 없이 한국에 들렀을 때마다 반가이 맞아 주었던 친구들과 옛정을 나누며, 술잔들을 비울 때마다 "위하여!"를 외치던 생각들 따라 이번

모임에서 "우리가 남이가!" 소리 높여 외쳤던 축배의 음향이 무엇엔가 내 마음을 당겨감을 어찌 할 수 없었다.

### II

지난날 술잔들을 비워가며 희희낙낙 부르짖던 "위하여!"는 그때대로의 멋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 친구들, 하는 일, 또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한 어린 염원의 통일을 위하여 함의(含意) 가늘픈 진의가 있었을 테지만 이번 모임에서 목청 높여 가며 부르짖었던 "우리가 남이가!"란 축배의 음향이야말로 내 달려가는 또 석양에 드는 마음을 흔들어 열어 놓아주었음을 심히 감사하게 느끼며 그 느낌을 남(?)들과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우리가 남이가!" 몹시도 토속적이고 소박하고 정서적이고 억센 부르짖음과 같은 항거적이고 충동적인 祝杯의 외침의 노래라 생각되었다. 거센 물질문명에 번개같이 빠른 정보만능의 시대에, 내가 먼저 서야하고 먼저 뛰고 먼저 배가 불러야만 직성이 풀리는 때에, 내 믿음과 같지 않으면 남이 되는, 그래서 제 목숨 던져가며 남의 삶을 맛아가는 무자비한 참사(慘事)들이 난무하는, 또 못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다 하루의 즐거움 가짐마저 못마땅히 여겨 폭파해야 하는 나만 있고, 너만 있고 또 그 사람만 있는 이 시절에 그런 "우리"의 진의(眞義)를 잃은 사조(思潮)의 흐름에 "우리가 남이가!"란 통쾌한 또 항의적 이면서도 충동적인 축배의 외침의 음향은 정말로 내 이전에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聖歌의 음향 그대로였다.

"우리가 남이가!" 나, 너, 그 사람이 서로가 우리가 아니겠는가! 나만 있는 것도, 너만 있는 것도,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 우리 전체 말이다. 언젠가 오재경 장관님이 미국에 들렀을 때 그 분이 즐겨 읊는다는 詩가 생각나 이 글에 옮겨 본다. 누구의 詩인지는 지금의 생각에 까마득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빚지며 산다는 것 그 빛을 갚으며 산다는 것 그누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며 살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 잡은 손의 따사로움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

만나서 사랑하다 이 땅 떠날 때 후회함이 없는 내가 되도록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자!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다

이 詩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 잡은 손의 따사로움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걸어 갈 수 없다"란 구절에 나는 무척이나 마음 쏟아 붓곤 했다.

나와 너, 그 사람이 서로 손을 내어 밀어 손에 손을 잡고 그 잡은 손의 따사로움을 잊지 않고 살며 같이 걸어 갈 수 있는(살을 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기에 그치기보다는 더 실천(行)해야 할 일이 아닐까 역설해 본다.

나만 있고, 너만 있고, 그 사람만 있다면 필연코 "우리"가 될 수 없을 테고 그러하다면 서로 손 내밀어 잡을 손도 없을 테지! 나와 같이 걸어갈 너, 또 그 사람 없이, 제 손이 따스한지 차디찬지도 모른 채 홀로 외톨이가 되어 갈테니까.

"우리가 남이가!" 같은 믿음(신앙, 사상)을 가진 나와 너 또 그 사람만이 우리인가?!

중국 사람들은 믿음을 사람(人)의 말(言)을 맞춰 표현하고 있다. 몹시도 현명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사람이 손짓 발짓으로 제 생각을 나타내던 때를 넘어 이전 말로 생각하고 말로 해서 느끼고 행하게끔 되어 왔다. 전제한다면 나와 너, 그 사람의 믿음의 정정함의 정도에 따라 나 먼저 배불리 먹고, 먼저 뛰고, 앞서야 하고, 내 말만 옳다고 억지 노름하는 색깔이 달라져 버릴 것이 확실할테니! 나와 너,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정하다면 우리(!)가 오늘의 살벌한 사조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생각된다. 허기야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賢

인들이 眞實에 대하여 한두마디 했을 지언정 정녕코 진리를 참히 보았을까 의문해 보면 나, 너 그리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에 불과했을 테니 그 보통 사람됨의 눈으로 과히 얼마만한 진리를 알고 보아 나, 너, 그리고 그 사람 말만 옳다고만 억지 노름할 수 있을까 의문해 본다. 또 그 많은 賢人들도 그들의 慧眼으로 다 보지 못했을 眞理를 나, 너,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보았으며 제만큼 거만스럽게(자랑스럽게) 보았다 하더라도 제가 본 것만이 옳다 어이 억지 노름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본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억지 노름 말고 네 말도,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들어볼 줄 아는 또 내 말도 남(?)으로 해서 들어볼 수 있게 하며 사는 것이 바른 삶을 함이 아닐까 음미해 본다. 그렇게 되면 옛말에 "둘이 모이면 싸우고, 셋이면 전쟁 난다"라는 표현에 얽힌 뜻만은 깨닫이 써줄 수 있지 않을까?

### III

우리 모두가 바르게 말로 생각하고 바르게 행한다면, 내 믿음만 옳고 네 것은 그르고 그 사람은 남(?)이오 라고 하며 다투고 싸우고 전쟁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태평성세를 누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고 싶다.

"우리가 남인가!"

오늘의 나, 너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유명하게 불려진 白衣同胞의 후손들임에 틀림없다. 하이얀 옷을 좋아하고 즐겨 입고 사는 민족! 얼마나 티없이 깨끗하고 聖스럽게 마저 느껴지는 표상인가! 때가 하나 묻지 않은 하이얀 옷을 즐겨 또 좋아 입고 사는 또 그렇게 표상되어 온 우리 (나, 너, 그 사람)가 오늘날 못 족속들의 험탄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몹시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정말로 날카로운 칼로 생살을 갈기갈기 여미는 것 같은 아픔을 일게함을 어찌 할 수 없었다. 이 아픔을 나는 "우리가 남이가!" 하며 목청을 돋구어 졸업 40주년 기념 축배로 외쳐 봄으로 해서 더욱더 아프게 느꼈다.

雪岳에서의 모임이 38선에 가까운 곳에서 가졌기에 또 나와 수많은 離散家族들의 한어린 염원이 그 생살 여미는 듯한 아픔을 내 마음에 더해감을 어찌 할 수 없었다. 더욱이나 전망대에 올라 수평선 안으로 보이는 땅덩어리가 내 가

슴에 안겨왔을 때는 쏟아 내리는 눈물이 내 눈알을 꼭 가려 버렸다. 게다가 繩纜의 백사장, 松林 또 신비스럽기만 한 파도에 철썩 철썩 씻겨온 귀요한 바위들 안으로 눈에 가시 같은 철조망을 보았을 때는 내 마음이 그 가시 돌힌 철망에 갈기갈기 찢어져만 갔다. 내가 너를 무서워하고 그 사람을 경계해 가며 살아야 할 필요가 어디 있던 말인가?!

더더욱이나 때 하나 묻지 않은 하이얀 옷을 즐겨 입는 우리가 말이다. 理念이 뭔데!? 그 빌어먹을 믿음 때문에 우리(!)의 名士들을 철망으로 갈라놓아야 하고 평화스럽기만 한 물새들의 지저귐과 더불어 찰랑이는 파도의 밀고 당김에 희희낙낙 즐기며 뒹굴어야 했을 벼사장이 철조망에 가려 무용지물이 되어 나, 너, 그 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던 말인가!! 원망스럽기 한이 없도다. 왜 하필 때하나 묻지 않은 하이얀 옷을 즐겨 입는 우리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직까지.....

"우리가 남인가!!!"

크게 목청 놓아 몸부림치며 외치고 싶었어도 그리 못하고 조용히 선전들의 냇과 더불어 이 세상 떠난 부모님과 형제들, 물장구 치던 못 옛 친구들, 친척들의 혼백에 때묻지 않은 하이얀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의 자식된 도리로 정히 평안을 빌었을 뿐이었다. 보통 사람으로 생각도 못했을 戰爭으로 유명을 달린한 여러 혼들 또 믿음이 같지 않아서 제 생을 다 하지 못한 이들의 혼 모두 평안해주길 빌며 바랬을 뿐이었다. 가까스로 원통함과 가슴 터지게 하는 울분을 달래가며...

"우리가 남인가!"

때묻지 않은 하이얀 옷을 즐겨 입는 우리(!)인데 어이하여 지금까지 그 보람된 가치를 잃고 냇마 저 잃어가며 사는지 원망스럽기만 하다. 아직 배불리 먹고 살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이만저만 아닐진데, 어찌 미련하게도 무심하게도 아직까지 총뿌리를 겨누며 싸워야만 하는가?!

"우리가 남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목청을 놓아 홀로 외쳐본다.

너, 나, 그 사람 모두 한번 목청 돋구어 외쳐 봐야겠지 않겠는가! 아니, 매일같이!

살벌한 철조망 이쪽에서도 또 저쪽에서도... 다함께!

우리가 남인가!!!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는 동문(필자=독자)들의 자발적인 투고로서 이루어지는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場입니다. 同門여러분의 玉稿를 모아 풍요로운 동창회보를 만듭시다.

[투고요청]

# 母校 신입생은 어떻게 선발해야 할 것인가?

재미서울대 동창회보는 104호 1면에 보도된 모교 정운찬 총장의 지난 8월 13일자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입생 지역할당제 선발방안에 대한 정총장의 복안(腹案)을 듣기 위하여母校에서 제안한 기자회견을 계획하며 이에 대한 동문들의 설문을 모으고자 한다. 우선 여기에 정총장을 대신하여 보내온母校 기획실장 유근배 교수(사회대 77년졸)의 기고문과 뉴욕의 한창섭 동문(문리대 62년졸)의 논평을 여기에 투고 전문 그대로 게재한다.

현재母校는 한국의 최고대학으로부터 세계적인 선진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다. 즉 수도권과 대도시에 과밀화된 인口와 사회, 경제

및 문화 자원의 집중에 따른 도시와 지방간의 현격한 격차, 중고교 입시 平準化 제도의 실패와 일부사회계층에 편만한 무분별하고 그릇된 '세계화' 풍조에 따라 유행하는 조기 유학 및 신생아 출산을 위한 해외여행풍조 등으로 한국은 公敎育제도의 전반적인 空洞化를 초래하는 '이상한 나라'(장동만 동문)가 되어 가고 있다. 남에게 뒤지지 않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여야 한다는 학부모의 강박 관념에서 나온 天文學的인 私敎育 비용은 사회전반에 잠재적인 부정부패 요인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말병 많은 중고등학교 명문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의 신입생 선발정책마저

관여하는 교육인적 자원부의 통제로 모교는 우수 학생을 선발할 자율적 입시제도를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이번 '신입생 지역할당제' 논란에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사태를 감안하면母校의 신입생을 어떻게 모집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수한 人才를 선발하는 방법인가? 모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교육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焦眉)의 과제에 우리 동문들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재미 동창회보는 재미 동문들의 의견을 집약하여母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柳 기획실장이 제안한 鄭雲燦 총장과의 기자회견을 해해 연두에 갖 고자 한다. 이 기회를 통하여 鄭 총장

의 '입시지역할당제' 구상뿐 만 아니라 현재 좁은 관악산 아래 전체 단과대학이 거의 집중되어 量的인 젊은이의 상상력을 기르기 어려운 포화상태가 된 교정, 소위 '대학원 중심교육'이란 한국의 교육인적정책에 큰 짐을 필요 한 시설과 제도적인 여건을 갖춘바 없이 가로막아 내몰리는 대학원 교육을 시행하기보다는 한국의 최고대학이란 성가(聲價)에 따라 관악산에 물러드는 보통인재들, 모교출신들이 기피하는 희망 없는 대학원교육의 場으로 되어 가는母校를 세계적인 선진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동량(棟樑)과 창의적인 學者를 배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회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재미동창회보는 모교의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鄭 총장의 복안(腹案)을 듣고 토론하여 재미동문들의 관심사와 경험을 모교발전에만 반영할 기회로서 이 기자회견을 활용코자 한다. 여러 동문들께서는 모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총장에게 질문할 설문과제(設問課題)를 12월 25일까지 보내주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동문들께서는 太平洋을 넘어 진행할 이 회견에 기자로 초빙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교를 고양하는 경인차로서의 임의를 담당하고자 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의 목적을 구현하는 길이며 이번 신입생 지역할당제 논란이 제기한 意義가 될 것이다.

## 신입생선발 地域割當制 논란에 대하여

柳根培 기획실장 (사회대 77년졸, 母校지리학과 교수)

김정수 선배님, 총장님을 대신해서 기고문을 올립니다. 서울대학교 기획실장 유근배 올림.

미주에 거주하시는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께서 배풀어주시는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부언론이 보도한 "지역할당제"라는 말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서울대는 부동의 수위를 견지해왔고, 서울대의 수월성(秀越性)은 여러가지 이유가운데에도 특히 우수한 학생들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대학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여 어떻게 교육하여 이 사회의 동량(棟樑)을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의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서울대에는 전국의 수재들이 입학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창의성이 개발되고,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오늘날의 위치를 차지하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굳이 생애학적인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다양성은 그 사회의 잠재력이 고 안전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Seoul National

niversity는 국립대학이라는 의미의 National 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망라하는 지역의 수재들이 모여들어 명실공히 National University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서 어느 도시의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수위 전문직종의 자제들이 입학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다가는 서울대생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재들의 집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역할당제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입시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해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는 우수한 학생, 특히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수재들을 보다 큰 모집단(母集團)에서 선발하여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미주 동문들의 극진한 모교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기획실장 유근배 追啓: 원하시면 총장님과의 전화 인터뷰를 주선해드리겠습니다. (82-2-880-5012) (11/13/02 발신)

## 정운찬총장의 신입생 지역할당제에 대한 기획실장의 해명을 듣고

韓昌燮(문리대 62년졸, 뉴욕지구동창회 제 23대 회장역임)

### 공정한 자유경쟁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인 입시제도의 부활

지난 8월 13일에 서울대 정운찬 신입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의 임기내 (2007년도 이전)에 대입전형에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뉴욕일원에 거주하는 원로 동문들이 소위 지역할당제 전형방법에 크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미주총동창회보 11월호에 보도된 바 있으며 재미동창회보 편집인은 동문 독자들을 대표하여 정총장의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腹案)을 듣고자 재미동문들의 여론에 대한 논평이나 기고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정총장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내용이 부실한 기고문을 보내게 하였다.

나는 정운찬 총장이 그의 서울대 신입생전형 지역할당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해명하지 않고 그의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해명케 한 것은 뉴욕에 거주하는 원로 동문들을 은연 중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모교의 발전을 열망하는 동문들에 대한 모교의 최고교육 행정가로서 책임있는 대응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지역 할당제안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정총장을 대신하여 쓴 유근배 기획실장의 이번 해명기고문은 유실장 개인의 의견으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정총장을 대신하여 보내온 유근배 기획실장의 기고문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 언론'이 정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오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첫째로 '일부' 언론이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모든 주요일간지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등)이 정총장의 8월 13일의 기자회견을 8월 14일자 신문에 1면 머릿기사로 취급하

였는데, "잘못 전달"되었다니 이 기사를 작성한 한국의 주요신문들의 모든 기자들이 허위보도를 하였단 말인가?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허위보도를 하였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이다.

유실장은 미국에 거주하는 서울대 동문들이 마치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National 이라는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처럼 설명하였는데 이 역시 지역할당입학제도를 반대하는 우리들을 무시하는 말이다. National 이라는 단어가 전국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서울대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자유경쟁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유실장의 기고문에 의하면 최근에는 어느 도시의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종의 자제들이 입학생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즉 서울의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이 서울대에 많이 입학하고 있음으로 서울대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재들의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서울대학 현황에 대한 평가이다. 나는 1957년에 서울대에 입학하였는데 그때도 서울대 신입생의 50퍼센트 이상이 정운찬 총장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약 10개의 명문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나의 기억으로는 당시 경기고등학교를 제치고 서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안다. 그 때는 고등학교가 평준화되기 전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는 결국 지역적으로 학생들의 질 우열이 갈라지는 것이 자연적이고 당연한 현상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즉 A라는 동네의 고등학교에서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MIT 등 소위 명문대학에 10명 이상이 한해에 입학하는데, 바로 다른 주의 B라는 동네 고등학교에서는 단 한 명도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 못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우수한 학생을 가장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로 1954년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에비고사를 치른 뒤 합격자에 한하여 대학을 지망하게 하였다가 실행하기 전에 폐지한 바 있고 그 이후 모든 신입생 전형을 각 대학의 자율적인 방법에 맡겨서 수십년간 실행하였다가 (명문대의 하나인 연세대학은 1956년부터 고등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하는 무시험 신입생 전형을 하였음) 바꾸어서 학력고사 점수에 의하여 전형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소위 수능시험성과 내신성적으로 전형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전형방법을 수시로 계속 바꾸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데 있다. 마치 게임의 룰을 수시로 바꾸어서 선수들을 혼란에 빠뜨려온 것과 같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여 좋은 교수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진출하여 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그 명성을 유지하며 훌륭한 전통을 쌓았다고 본다. "다양한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수하며 높은 잠재력(潛能力)을 갖고 있는 수재(秀才)들을 공정한 자유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전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본다. 지역할당제는 결국 "National Competition"(전국적인 경쟁)이 아니고 "Reginal Competition"으로 경쟁범위를 축소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하며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地域主義)를 공식으로 제도화하고 결국에는 서울대를 低質化 시키는 방안이다. 서울대가 교육부의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완전 공개 자유경쟁에 의한 철저한 입학시험을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던 50년-70년대에 서울대의 자체 판단에 의하여 자율입시제도(自律入試制度)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본다.

# 대통령 선거有感

金在淳(상대졸 서울대 총동창회 명예회장)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이도 여러 명 나서고 있다. 한때 '진복기'라는 사람이 있었다. "대통령이 그럴게도 되고 싶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대통령! 이 얼마나 멋진 자리인가. 얼마나 재미있겠어 가는 곳마다 화려한 儀式. 의장대의 사열, 나팔소리, 축포소리, 전용 비행기, 자동차의 행렬. 비록 당선 안 되더라도 대통령 된 기분이라도 내보아야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들 개개인의 심정

이 궁금하다. 그들은 그동안 어떤 인생 길을 걸어 왔을까? 인생의 쓴맛, 단맛을 알고 있을까? 대통령직이 어떤 것인지 진정 알고 있을까? 대통령 될 공부를 해온 사람일까? 민주정치에는 學說이 많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처참하고 치열한 선거전을 실제로 치러보아야 한다. 선거만큼 정치가에게 합당한 교육은 없다고 했다. 때맞추어 여론조사가 빈번하다. 오르내리는 인기 발표에 후보 진영들의 가슴도 설레이리라. 지지율에 맹종하는 정치가는 어쩌다

당선될지는 몰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 변하기 쉬운 인기 휘발러 진로 방향이 흔들려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게다. 유능한 지도자는 여론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을 따르게 한다. 지도자는 선두에서야 하지만, 지지자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앞서가서도 안 된다. 반 발작

앞서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하지만 카드를 미리 앞질러 내보여서도 안 된다는 말도 있다.

사람들은 庶民에게 친근감을 갖지만, 반드시 서민이래야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소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 사람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에 진정 존경스런 친구가 있는가? 그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면 그이의 인격을 짐작할 수가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럴 때는 맹상군의 계명구도(鷄鳴狗盜)도 참고할 만하다. 아무 데도 쓸모 없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지도자는 그런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찾는다. 지도자는

위기에 처했을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한다. 자기의 정신을 유연하게 하며 視野의 지평선을 넓혀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 '대~한민국'은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양심적인 유능한 지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서울대인은 조국 앞에 무한 책임이 있다',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 이는 20만 동문들이 스스로 다짐해온 글자이며 모토(moto)이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 서울대인들이 나라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自問自答하면서 투표소로 向하리.

## 保健福祉 중요시하는 한국의 大統領을 원한다

金日勳(의대 57년졸)

I  
다가오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될 한국의 대통령과 새 정부의 정책 노선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지는 내외 동포들의 지대한 관심사라 할 것이다. 冷戰종식에 따라 종래의 국가안보라는 첫 과제가 희석된 현시점에서 뭐니뭐니 해도 선진국이 당면한 우선 문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 즉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국민건강백년대계와 복지정책이라고 하겠다. 이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가운데 의료비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예산의 절반을 다루는 미국의 보건복지부처럼 한국도 머지않아 복지부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처로 승격되어 국민보건복지향상에 국책의 중점을 두는 대통령의 出現을 바란다.

국에서 경제부총리는 당연한 자리라 여기에 異議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 教育部총리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라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教育立國이라는 말은 쇠국에서 벗어난 개화기나, 문맹율을 높이고 개발도상국가로 발돋움하는 미개 국가에서나 부르짖는 구호이고, 한국처럼 국민교육정도와 교육열이 세계최고인 나라에서 "교육부총리"라는 얼굴마담을 구태여 내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면에서 여러모로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모순된 현실문제들이 있겠지만, 여기엔 부처의 격상보다 우선적으로 학계와 전문기관설치에 의한 연구 그리고 국민의 의식개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반세기 전 건국직후 문교부장관자리에 A박사 B박사 같은 거물급 지도자가 앉아서 국민의 존경을 받았지만, 부총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5.16후 대학총장회담에 해병대장교인 문교부장관이 허리에 권총을 차고 나와서 백발노인석학들 앞에서 교육혁신을 외치며 일대 혼시하던 장면이나, 청와대경호실장이 문교부장관에 등용되던 일이 기억에 새로우며,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도 교육부자리가 격상되어야 한다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고 교육계의 국제조류도 변화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이외엔, 사학과 지방공립학교가 주류인 한국에서 지금 교육부가 부총리자리로 격상됐다면 名實이상부하지 않은 처사다.

미국연방교육부는 돈만 퍼붓고 실패 없는 부처이다. 미국에는 원래 교육부가 없었고 HEW

(Health, Education & Welfare. 보건 교육 복지)의 일부였으나, 카터 대통령 때 연방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방대한 HEW를 쪼개어 독립부처로 만들었다. 국가대사를 기도에서 시작하고 항상 도덕률을 강조하던 카터가 교육부를 독립시킨 데는 교육을 통한 도덕성회복이라는 정신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음직도 하다. 그리고 당시 군사대국 소련국가보다 더 큰 예산을 집행하던 HEW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완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10월 카터 정부에 의해서 탄생한 교육부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7개 항목을 열거했으며, 그 내용은 교육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 장려와 활용, 질적 향상, 상호협조 등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도력과 감독을 최대 발휘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 출범당시 반대파에게 규모가 작은 부처를 약속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직원수 100명에서 5,100명으로, 부처예산 \$14.5 billion에서 \$32 billion으로 크게 팽창되었다. 연방정부 예산내(on-budget)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1980년의 \$36.8 billion이 1998년에 \$75.1 billion으로 117.7%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off-budget) 교육프로그램예산이 연방정부 전체 교육비의 30%나 되며, 1998년도 지출한 총 교육비용은 \$107.2 billion이나 되었다. 여기서 off-budget 자원도 세금부담임은 물론이다. 예산이 실효성 없는 곳에 주로 낭비된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760개나 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필요한 수학, 독서, 과학에 관한 프로그램은 6% 밖에 안된다고 한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부의 막대한 자금과, 학생

들 성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가령 1인당 연간 \$6,245가 드는 미네소타주의 공립학교학생의 평균 성적은 전국 제1이나, \$8,670나 소요하는 워싱턴(수도) 학생의 성적은 전국 최하위이다. 그래서 교육에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교육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학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SAT 점수는 하락세며, 1992년이래 17세 학생의 과학점수는 11점이나 낮아지고 66%는 독서력이 수준미달이다. 미국학생의 數學실력은 세계 열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3년이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1980-1999년 사이에 \$450 billion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했던 연방정부의 노력이 허사로 끝난 것이다. 미국의 공공교육비의 財源은 부동산세와 지방세인데, 지방교육청에서는 연방정부보조금이 그들 교육비의 7-8%에 불과한데도 보고서류분량은 55%를 차지한다고 불평이다. 지나친 서류요구 때문에 달갑지 않은 도움으로 여기고 있다. 전적으로 사학과 주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교육을, 연방정부의 실효성

없는 감독으로 간섭이 증대되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해서 의회보수파에서 연방교육부폐지론이 대두되고있다.

1979년 창설 때부터 교육부의 존재는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침범이고, 헌법 추가 제10조("헌법에 의하여 聯邦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州에 개별적으로 또는 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인데 이는 主權在民의 원칙과 州정부의 포괄적인 권한을 명시한 것임) 위반이라고 반대가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 교육부 위원론과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을 알린다. 따라서 미국의 조류는 한국의 교육부 격상(格上)과 상반된다고 할 것이다.

### 統一部

최근 없어진 통일부총리의 존재는 더욱 비합리적이며,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적 소-효과가 있었을 정도였다. 1976년 통일부처가 생겨날 당시, 남한은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북한은 무력통일을 원하였다.

<8면에 계속>

세계각국의 의료비와 그 내역 (UN 보고서\*)

|     | 개인소득<br>\$ | GDP중<br>의료비% | 1인의료비와<br>(정부부담액)\$ |
|-----|------------|--------------|---------------------|
| 미국  | 34,637     | 12.9         | 4,055 (1,817)       |
| 프랑스 | 21,848     | 9.3          | 2,297 (1,747)       |
| 스웨덴 | 25,903     | 7.9          | 2,144 (1,797)       |
| 일본  | 37,494     | 7.5          | 2,244 (1,752)       |
| 한국  | 9,782      | 5.1          | 354 (164)           |
| 북한  | 549        | 3.0          | 14 (11)             |
| 중국  | 866        | 4.5          | 34 (13)             |

\* 1998년도 통계 (2002년 출간).  
금액\$는 미국달러로 통일했음.

그러나 강력한 국가의 지원으로 세계 경제서열 12위를 차지한 한

<7면 보건복지 정책에서 계속>  
이 상반된 기본입장으로 통일문제는 접합점이 없는데도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남북대화창구로서 그 이름을 '통일부'라 한 것으로 안다. 統一問題는 국제정세에 좌우되며,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北韓에 대한 인도적 문제와 경제원조 또는 교역교섭정도고, 햇볕정책으로 전환한 지금시점에서 실상은 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때 통일부의 명칭논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통일부의 하는 일이 통일과 무관한 남북협력문제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이다.

1990년 통일 이전의 서독정부에는 Ministry of two Germany (양독부)라는 이름의 동서독간의 협력교류부처가 있었다. 상호간 체제양보는 불가능하고 흡수통일은 상대방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라는 명칭을 피했을 줄 안다. '통일부'가 없던 서독에 흡수통일이 저절로 굴러들어 오고, 통일부가 염촌한 한국에 통일의 증후가 보이지 않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기가 오늘의 소련붕괴와 중국의 자유시장경제를 예언한 학자가 없었다고 들었다.

북한이 명목상 평화통일로 전환한 것도 '통일부' 노력과는 무관하며, 소련붕괴후의 국제정세변동에 따랐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남북한체제 일부의 상호양보로 통일을 유도한다면, 이것은 절대불가능한 일이다. 南韓이 겨우 되찾은 民主主義와 自由經濟체제를 일보라도 양보할 수 없고, 北韓도 현 王朝體制에서 한치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렇다고 북한이 소련처럼 하루아침에 자폭하는 날에 대비해서 흡수통일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눈치 빠른 북한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한가지 통일부에서 했음직한 일이 있다면,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의 굶주린 몇천만 명 동포를 부양할 계획을 작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남한자체의 의료부담 국민부담도 감당치 못해 "醫療大亂"이 일고 있는 관국에 통일부가 그러한 탁상공론부처가 될 수는 없다.

"햇볕정책"은 원시적(遠視的)인 통일정책으로, 이북에 대한 원조를 통해 개방을 촉진시켜 동유럽 모양으로 자유화를 기대하는 것이라 하겠고, 지금 남한여론도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북한이 제일먼저 경계하고있을 것이며, 탈북자증가 등으로 그런 증조가 보이고 있다.

문제가 이렇고 보면, 지금 통일부가 하고있고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통일부'라는 이름은 국민을 속이는 호칭이고, 실제로는 '남북협력부' 또는 '북한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마땅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탁상공론의 大義名分을 팔아 한때 부총리자리로 격상됐던 '통일부'는 간판을 앞세운 증이호랑이 명칭에 불과하다. 정부부처의 극히 미미한 예산을 집행하며 통일과 무관한 일을 주도하는 자리이니 말이다. 부총리 관할 부처로부터 일반 부처로의 格下는 당연하며, 그 명칭변경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상은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주관적인 글이니 독자의 양해를 바란다. 그러나 상식과 논리위주로 쓴 글임을 알린다).

### III 국가예산의 折半을 다루게될 福祉부총리

이와 같은 현재의 교육부나 통일부 성격의 문제점에 비추어, 나는 더욱 실질적이고 방대한 예산을 장차 관장하며 국민건강과 복지문제를 주도하게될 福祉部가 늦게나마 차기정부에서는 부총리 관장 부처로 格上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교의 관점에서 세계각국의 조세부담율을 일별하고 미국 연방정부예산의 절반을 집행하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많은 스웨덴의 국민부담은 54.2% 이고, 미국은 29.6%이다.

韓國은 국민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26.1%고 최신보도에 의하면 2001년도엔 27.5%가 되었으며, 개인소득이 1만 달러로 유럽선진국의 절반(위의 도표 참조)으로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각자가 받는 "한 사람당 의료비" 혜택은 세계선진국과 열악한 사회주의후진국가(중국과 북한)의 중간지점에 있음을 이 도표가 말해주고 있다. 여러가지 의료모순과 낮은 보험료, 그리고 의료수가가 엄청나게 적기 때문이다.

한국이 경제선진국으로부터 醫療선진국대열로 나아가는 첩경은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모순을 제거하고, 합당한 의료복지예산으로 의료정책을 세워나가는 일일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복지예산  
미연방정부 세입은 대략 \$2 trillion (정확히 \$2,019 billion)

이고, 세출은 \$1,835 billion이다. 그 차액인 \$184 billion은 주로 사회보장기금(SS)의 1년간의 잉여흑자며, 이것이 적립되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용될 것이 기대되며 테러전쟁에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

연방정부의 2001년 세입과 세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歲入(100%)은 개인소득세(48%), 사회보장세(34%), 법인소득세(10%), 소비세(4%), 기타(4%)이고, 歲出(100%)은 사회보장연금(23%), 메디케어(노인의료 12%), 메디케이드(빈민의료 7%), 저소득자 보조(의료 및 복지 6%), 이자지불(11%), 국방부(16%), 각 부처예산(국방부 이외 19%), 기타(6%)이다. 여기서 세출의 주요부분은 사회보장연금지출 23%와 공적의료비 25%(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12%, 메디케이드=빈민의료보험 7%와 저소득자 의료보조비 6%)로 도합 48%이니, 연방정부지출의 절반이 보건복지비용이다.

그리고 이 방대한 자금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국에서 관장한다.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라는 미국식복지사회출현이래, 1개 부처인 보건 교육 복지부(Department of HEW.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예산이 당시 군사대국 소련의 국가예산보다도 컸었던 일은 기억에 새롭다. 그런데 교육부가 독립한 후에도 보건복지부가 나라살림의 절반을 관할해야하니, 이 사실은 앞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역할이 보건과 복지문제해결, 즉 인간의 행복추구를 도와주는데 있음을 시사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세계경찰을 담당하고 있다 할 國防費는 아직도 미연방예산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연방정부의 부처예산 7%를 차지하는 미국의 HHS(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총예산의 절반을 관리하는 부처이며, 그만큼 HHS장관은 미국각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일 조깅으로 '건강의 제1요건 운동'을 국민에게 몸소 시범하고 있는 톰슨 장관의 모습은 국민에게 낮익어있다. HHS는 그 산하에 8개의 보건기구를 거느리며, 그중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국립보건원)는 27개 연구소를 총괄하는 세계에 으뜸가는 의학연구기관이다. HHS장관이 행정실무책임자라면 미국보건원장(Surgeon General)은 국민보건의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는 각료급 지도자다. 과거 언론을 통해 항상 국민건강홍보에 앞장섰던 미국국립보건원장 Dr. Cooper는 대통령 못지 않게 국민에게 친숙했던 정부요인이었다 (여담이지만 그후 "젊은 학생들에게 콘돔대신 마스터베이션을 권장한다"는 발언과문으로 파면된 흑인여자 보건원장의 저속한 이미지 때문에 보건원장의 위상이 한때 떨어진 일도 있다).

21세기에 즈음한 세계각국의 정책지표는 대외적으로 안보와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행복 즉 보건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앞으로 진정된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福祉部의 位相을 높여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하며, 이런 방향으로 國政을 끌어들여 대통령은 그 누구일까?

### 美國時論

## 오사마의 地下로부터의 음성

[편집자주: 이는 뉴욕타임즈가 초록한 최근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의 음성으로 불확실하게 추정하는 녹음 테이프의 내용인데 이는 다시 미국내에 재연되는 오사마 빈의 성격을 이해하고자하는 것임]

Voice on the Tape: 'You Will Be Bombed'

NYT, November 15, 2002

Following are excerpts from an audiotape broadcast in Arabic this week by Al Jazeera and attributed to Osama bin Laden, as recorded and translated by Reuters.

From the worshiper of God, Osama bin Laden, to the people of the countries that are allied with the unjust American government:

the road to safety starts with stopping aggression, and it is only fair to establish equal treatment.

The events since the New York and Washington raids until today - such as the killing of Germans in Tunisia and the French in Karachi, the blowing up of the French supertanker in Yemen, the killing of the Marines in the island of Failaka, the killing of the British and Australians in Bali, the recent operation in Moscow, and other operations here and there - were only reactions based on equal treatment.

They were carried out by pious Muslims defending

their religion and heeding God's orders and those of his Prophet. . . .

What Bush, the pharaoh of the time, is doing by killing Iraqis, and what America's ally Israel is doing by bombing houses over the heads of elderly people, women and children using American planes, should have been enough for the wise among your leaders to abandon this gang of criminals.

Our brethren in Palestine have been subjected to killings and torture for about a century. But when we defend them, the world was shocked and formed a coalition against Muslims under the false banner of fighting terrorism. . . .

Why should your govern-

ments ally themselves with America? Rumsfeld, the butcher of Vietnam, killed two million people, not to mention those wounded.

What caused your governments to join America in attacking us in Afghanistan? I mention in particular Britain, France, Italy, Germany, Canada and Australia.

We had warned Australia about its participation in Afghanistan. . . . It ignored the warning until it woke up to the sound of explosions in Bali.

If it upsets you to look at your casualties and those of your allies in Tunisia, Karachi, Moscow, Bali and Amman, then remember the children killed in Palestine and Iraq every day and re-

ember our casualties in Khost and those killed purposely in Afghan weddings. If it upsets you to look at those killed in Moscow, remember those killed in Chechnya.

Until when would killing and destruction . . . be our share, while security, stability and happiness are yours? This is unfair, and it is high time that we stand on equal ground. As you kill, you will be killed, and as you bomb, you will be bombed.

Here is the Muslim nation throwing its sons at you. Those who vowed to God to continue the holy struggle with words and weapons so that right prevails and wrong is destroyed as long as their hearts beat. . . .



美國時論

北韓 南韓에게 美國과의 不可侵條約 체결 주선요망

North Korea Asks South to Help Press U.S. on Nonaggression Pact

NYT, November 24, 2002  
By HOWARD W. FRENCH  
TOKYO, Nov. 23 - North Korea today asked its estranged neighbor, South Korea, to join it in pressing the United States to sign a nonaggression treaty, in an unusual appeal apparently aimed at reducing its isolation. The call by North Korea to its southern neighbor comes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have initiated penalties against North Korea for its violation of nuclear arms control agreements. The North and South are linked by language, history and ethnicity, though they have been divided since the 1950-53 civil war. A peace treaty has never been signed.

American intelligence reports have indicated that North Korea violated the 1994 nuclear nonproliferation accord known as the Agreed Framework by secretly conducting a nuclear weapons production program based on uranium enrichment. North Korean officials reported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a uranium program during a meeting with visiting American diplomats in early October, saying it was justified by threats from the United States. Last week's decision to suspend deliveries of fuel oil to North Korea under the 1994 agreement was meant to force it to abandon its illegal weapons program. North Korea's response has been two-pronged. On the one hand it has angrily accused the United States of destroying the framework.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has stepped up longstanding calls to the United States for recognition and guarantees of the country's security, hinting that it would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in exchange.

"At a time when the destiny of the nation is at stake,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lodge a legitimate protest with the U.S. against its infringement upon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nation," North Korea's official Korea Central News Agency said today in its new appeal for South Korean support. Let the whole

ation come out to firmly uphold the patriotic army-based policy, the agency said. The wording of the message, which repeatedly spoke of the North and South as a single nation, was apparently intended to appeal to the strong and growing public sympathy toward North Korea among ordinary South Koreans, based on the two peoples' common origins as well as mounting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tests are continuing in South Korea against a United States military court's acquittal this week of two American soldiers charged with negligent homicide for driving over two schoolgirls with a military vehicle during a training exercise in June near the North Korean border. About 500 protesters, including families of the victims and high school students, held a rally outside a United States Army base in central Seoul late today, shouting slogans against the verdict.

The direct appeal to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lso comes in the thick of a presidential campaign in the South, which will choose a new leader next month to succeed President Kim Dae Jung, who has made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the hallmark of his presidency. For North Korea, the significance of the election could hardly be greater. A conservative candidate, Lee Hoi Chang, who has staked out a stern position toward the North, is the front-runner according to all the major opinion surveys. North Korea had agreed to shut down plutonium-based nuclear reactors from the Soviet era and to place the fuel - which could easily be used to make a nuclear weapon - unde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 inspectors. In exchange, a consortium,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was created to build replacement reactors for North Korea based on technology that was more proliferation-resistant. Until the reactors could be completed, the United States had agreed to furnish North Korea 500,000 tons of fuel oil each year.

自由主義 원칙에 충실하였던 미네소타 상원의원을 追悼하며

[편집자주: 이 글의 원제목은 'A Liberal With a Wrestler's Stance'이며 필자는 詩人 Bill Holm이며 뉴욕타임즈 2002년 10월 26일자에서 전제, Bill Holm, a poet and essayist, teaches at Southwest State University. His most recent book is 'Eccentric Islands: Travels Real and Imaginary.' 이 글은 이번 미국 중간 선거유세중에 불의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하였던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폴 웰스톤을 추도하여 쓴 한 지역의 선거구민인 한 詩인이 쓴 것인데 독자들께서 조용히 읽으시면 兩黨政治의 원칙 속에 움직이는 미국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임. 그런데 Paul Wellstone의 후임자로 부통령을 지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은퇴한 Walter Mondale를 내세웠으나 석패하였다.]

MINNEOTA, Minn. - Paul Wellstone was an unlikely politician

in a place like Minnesota - land of walleyes, cornfields and phlegmatic Scandinavians. He was an urban Jew, son of immigrants, a college professor at the fanciest of Minnesota's private colleges. And, probably worst of all for his non-talkative constituents, he was a passionate orator, a skilled rouser of rabble over issues he loved and an unapologetic populist liberal.

How did this man, who was killed yesterday in a plane crash in northern Minnesota, ever manage a triumphantly successful political career in which even many Republicans and conservative Christians quietly scribbled the Wellstone X on their ballots, hoping their neighbors wouldn't catch them behaving like lefties?

When I gave readings of poetry and essays, I often shared a podium with Senator Wellstone at various rural conventions and political gatherings. It was a remarkable experience, and I learned very well to precede rather than follow him.

He worked a house as well as Hubert Humphrey ever did.

I remember a Farmers Union convention in St. Paul: Paul Wellstone, a pug-nacious 5-foot-5, stood at the dais between the Farmers Union chairman and me, both 6-foot-5 Scandinavians.

"It's nice to join my Norwegian cousins here in St. Paul," he said. He then proceeded in 20 minutes to bring the audience cheering to its feet. If this had been a monarchy, the farmers would have crowned him.

I was next, with a few small and sensitive rural poems. I had a sinking feeling that a master had bested me.

Whatever Paul's height, he was one of the largest men I ever met. He filled rooms when he entered them. Size in a public man is an interior, not an exterior quality. Paul charmed - and sometimes persuaded - even those hostile to his unashamed liberal ideas by listening with great courtesy and attention to unfriendly questions. He answered without dissembling, without backing down from his own principles, but with a civil regard for the dignity of the questioner.

And he had the politician's great gift: an amazing memory for names. I saw him once pluck a vote with this gift. He answered questions for 45 minutes in a room full of ordinary citizens whom he'd never seen before. He began his last answer this way: "Your question reminds me of Mary's concern." Mary, in the back row, was 45 minutes ago. Mary, likely a rock-ribbed Republican, blushed a little and smiled. One more vote.

Even those who continued to disagree with Paul did not question the sincerity of his idealism. He was sometimes attacked for naivete(as in his brave vote against authorizing the president to go to war with Iraq), but never for dishonesty. He voted, as he spoke, from the heart.

It's often forgotten that Paul, nearing 60 with a bad back and a respectable batch of grandchildren whom he treasured, began his rise in the world with a college wrestling scholarship. His working-class parents had no money for school, so wrestling earned him a doctorate.

He preserved a wrestler's sensibility in both his academic and political life. In 1998 I met Paul at a reception at the Governor's Mansion just before Jesse Ventura, a

professional wrestler by trade, first occupied that house. How curious, I told Paul, that the two most interesting politicians in Minnesota at the moment should both be

wrestlers. He replied with a wry smile: "But I'm a real one." He thought himself an athlete, not an entertainer, and I suspect he saw his whole political life in that metaphor. He wrestled with the power of big money, military

adventurism and penny-pinching against the poor. He meant to fight fair, but he meant to win.

Not only Minnesota, but the whole country will feel the absence of his voice and his bravely combative spirit. We say with Walt Whitman: Salud, Camerado. We look for you again under our boot-soles.

(미국 중간선거결과자료)  
◆U.S. SENATE  
2 Races Undecided (as of 7:09 a. m. ET, Nov. 6, 2002)  
New/ Prior  
Democrat 46/ 49  
Republican 51/ 49  
Ind./Other 1/ 2  
Complete U.S. Senate Results  
◆U.S. HOUSE  
4 Races Undecided (as of 9:37 p. m. ET, Nov. 6, 2002)  
New/ Prior  
Democrat 203/ 210  
Republican 227/ 223  
Ind./Other 1/ 2  
Complete U.S. House Results  
◆GOVERNOR  
3 Races Undecided (as of 9:13 p. m. ET, Nov. 6, 2002)  
New/ Prior  
Democrat 23/ 21  
Republican 24 /27  
Ind./Other 0/ 2  
Complete Governor Results

# 늙음의 아름다움

權彛赫 (전 서울대학교 총장)

人生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은 어느 경우에도 우리들의 希望이다. 그러나 우리들 주위에서는 젊음이나 젊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關心이 쏠리는 것이 분명하다. 늙음과 늙은 사람의 아름다움에 관하여서는 별로 강조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많지 않다. 昨今에 와서 나는 늙음이나 늙은 사람의 아름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機會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人生은 人生의 전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 靑少年이고, 靑壯年이고 老人이고 간에 누구에게나 아름다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관심밖에 있는 늙음과 늙은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人生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論理이다. 나의 主張과 關聯이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 老人人口의 比率

65세 이상 老人 人口의 比率이 급속도로 增加하고 있는 現象은 여러 나라에서 잘 觀察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2000년에 65歲 以上 老人 人口가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하여 高齡化 社會(aging society)로 進入된다. 推計에 따르면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高齡社會(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高齡化 社會에서 고령사회로 되는 기간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여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7% 된 해(다음의 A), 14%가 되는 해(다음의 B), 그리고 7%서 14% 되는 기간(다음의 C)은 다음 표와 같다.

| 국명   | A    | B    | C    |
|------|------|------|------|
| 프랑스  | 1864 | 1979 | 115년 |
| 이탈리아 | 1927 | 1988 | 61년  |
| 일본   | 1970 | 1994 | 24년  |
| 미국   | 1942 | 2013 | 71년* |
| 한국   | 2000 | 2022 | 22년* |

\*예상치 임

이 표에 따르면 高齡化 社會에서 高齡社會로 되는 期間이 日本에서 24년으로 가장 짧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욱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 健康壽命

요사이는 健康壽命이라는 單語가 심심치 않게 사용된다. 종래의 平均壽命(life expectancy)에 대하여 健康壽命(healthy expectancy)은 次元이 다른 意味를 갖는다. 이 單語는 2000년 6월 WHO에서 처음으로 導入한 概念인데 Dale박사의 理論이 中心이 되었다. 그는 平均壽命에서

疾病과 身體障礙期間을 제외한 수명을 건강수명이라고 했다. 건강수명은 수명의 질을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HO Report 2000에 의하면 건강수명이 日本 1위, 호주 2위, 프랑스 3위, 스웨덴 4위, 스페인 5위, 美國

24위, 韓國 51위, 中國 81위, 北韓 137위이다. 각국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국명 平均수명(남-여) 건강수명(남-여)

|    |             |             |
|----|-------------|-------------|
| 일본 | 77.6 - 84.3 | 71.9 - 77.2 |
| 미국 | 73.8 - 79.6 | 67.5 - 72.6 |
| 한국 | 68.7 - 76.0 | 62.3 - 67.7 |
| 중국 | 68.1 - 71.3 | 61.2 - 63.3 |
| 북한 | 58.0 - 60.7 | 51.4 - 53.1 |

### PPK運動

훨씬 전의 일이지만 어떤 모임에서 연세대 명예교수이던 方 淑生先生으로부터 PPK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까지 만해도 나는 PPK라는 단어를 들어 본 일이 없었다. 日本人들은 재미있는 作名을 하기 좋아하는데 PPK도 그 하나이다. '펜펜(pin pin)코로리'에서 따온 것이다. 펜펜은 팔딱팔딱 뛰는 뜻이며 코로리는 갑작스럽게 죽는다는 뜻이다. PPK는 팔딱팔딱 뛰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병들지 않고 어느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다. PPK가 무슨 학문적인 단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는 方 선생의 說明이 상당히 印象的이었다. 1999년 1월 18일 일본 岡山대학 醫學部 아오야마 히데야스(青山英康)教授로부터 정중한 便紙와 함께 PPK의 'すずめ' 라는 冊이 우송되어 왔다. 方박사를 통해 내가 PPK運動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들었기에 자기 著書를 보낸다는 것이 便紙의 內容이었다. 方 선생에게도 靑山교수에게도 고마울 뿐이다. 모든 사람이 健康長壽를 바라는데 일본에서는 나가노(長野)縣이 PPK운동을 통해 이 課題를 達成했다는 것이다. 나가노현은 以前부터 健康長壽縣으로 注目 되어왔다. 일본의 縣民別 平均壽命을 보면 나가노현이 남자 1위 여자 4위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노인 의료비가 일본에서 제일 적고 가장 높은 북해도의 50%이다. 건강하게 살며 장기 질병 없이 사망하는 PPK운동이 일본에서 제일 잘 진행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 국민건강보험 중앙회가 나가노현의 비밀을 규명하기 위하여 북해도 고찌(高知)·도야마(富山)현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책이 마련된 것이다. PPK의 조건, PPK의 전국화 과제, 개인의 생활습성과 더불어 保健·醫療·福祉活動 등도 다루고 있다. 나가노현의 特徵을 살펴보면 高齡者의 就業率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 평균수명이 길지만 100세 이상 노인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 保健活動의 充實, 在宅의 료의 充實, 食生活 개선운동(나가노현에는 바다가 없고 산간지대가 많아 식생활에서 특이한 면이 있다.), 福祉서비스의 충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나가노현에는 산과 언덕이 많은 까닭에



일상생활 자체가 좋은 훈련방법을 제공하며 공기과 물 등 좋은 자연조건도 한몫 보고 있다는 보고다. 저 세상에서 사자가 오면 60-70대는 "현재 일하고 있는 중", 80대는 "아직 빠르다", 90대는 "서둘지 말라" 백세가 넘으면 "생각해 보겠다. 마음이 쏠리면 가겠다." 고 답하라는 말이 우리들 사이에서 流行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것이 PPK 實現의 길이며 그저 壽命을 연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큰 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PK의 한가지 예로 골프를 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나의 주변에는 골프장에서 他界하는 분들이 심심치않게 있다. 지난 8월 25일 (日) 보건행정 권위자인 李錫雨박사가 모 컨트리클럽 최종 홀에서 別世했다. 68세의 李박사는 남달리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이였다. 삼성 서울병원에 마련된 殯所로 問喪했다. 슬픔에 잠긴 未亡人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아침 10시쯤 승용차로 자기를 聖堂에 내려다 주면서 일단 歸家하였다가 오후에 골프장으로 간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聖堂 앞에서의 作別이 마지막이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느냐면서 눈물을 흘린다. 李박사가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멋있게 세상을 떠난 것이니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위로했다.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겠느냐만은 그래도 미망인은 끄덕였다. 苦痛 없이 저 세상으로 가는 當事者는 幸福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만 가족들의 슬픔과 아쉬움은 어쩔겠느냐. PPK를 바라는 우리들의 慾望은 크지만 遺族들을 慰勞할 수 있는 方法이 쉽지는 않다.

### 文人들의 글

많은 文人들이나 詩인들이 늙음의 아름다움을 위해 좋은 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 내가 좋아하는 Dorothy Parker의 '老年을 준비하는 기도'와 작자미상의 '오래오래 사시구려'를 소개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글이지만 다시 한번 적어본다.

과커(1893~1967)는 가장 성공하고 영향 있는 여류 작가요 시인으로 崇拜받고 있다. 나는 특정한 종교인이 아니지만 그의 기도문에 상당한 매력을 느껴왔다.

### <老年을 준비하는 기도>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제 제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저를 견제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참견하고 싶어하는  
저의 호기심과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제하게 해

주소서  
영원한 인도자이신 주님이시여!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주소서  
주여! 저에게 참고 견디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주소서  
그리고 남의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저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먼저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갖게 주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저의 두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인간과 世上의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을 골고루 다 보게 하시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주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인생의 면면을 응시하고  
베짚고 듣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소서! 가족·친인척·이웃·친구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필요한 존재가 되게 주소서 >>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작자는 미망이지만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짐작된다) '오래오래  
사시구려' 라는 글을 옮겨 본다.

오래오래 사시구려  
나이가 들어 늙으면  
잡난 채하지 말고  
미움받는 소리, 아쉬운소리  
헐뜯는 말, 군소리말고  
남의 하는일은 칭찬만 하시구려  
물거든 가르쳐는 주되  
이른 것도 모른 척하고  
언제나 바보같이 사시구려  
이기려고 기를 쓰지 말고  
그저 저 주시구려  
어차고 신세질 몸이기에  
젊은이들에게 자랑을 안겨주고  
한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원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랴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그저 지당하다고 하시구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여도  
죽으면 한 푼도 못가져 간다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살아 있는 동안에 고루 베풀어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그렇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하는 말  
사실은 돈을 놓치지 말고  
죽는 날까지 꼭 잡고 계시구려  
남들이 구두쇠라 흉을 보아도  
돈이 있으니까 소중히 하고  
모두가 아랑뻔며 비위를 마춘다  
우리끼리 말이지만 사실이랴  
지나간 일들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제 자랑은 하지도 마소  
우리들의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  
아무리 버티고 몸부림쳐도  
이 몸 뜻대로 되지를 않소  
당신은 훌륭하나 나는 틀렸어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나의 자녀와 세상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공경을 받는  
좋은 노인이 되시구려  
망령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두뇌도 세탁하여 멋지게 살며  
무엇이든 한 가지 취미를 가지고  
부디 오래오래 사시구려!

<늙음을 아름답게 보여준 사람들>  
昨今 늙음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지난 8월 며칠등

안 네 분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기에 소개한다. 2002년 8월 16일 康泰元(83)이라는 분이 평생 모은 270억원을 이웃들에게 써달라고 KBS에 기부했다. 康氏는 2001년 7월에도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충북 청원군 꽃동네 사회복지대학에 기증했다. 평양대생의 失鄉民인 康氏는 1남 4녀의 자녀에게 대학교육과 아파트 한 개씩을 마련해 주었으니 자녀들에게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털어놓았다.

8월 19일 黃滄相(56)씨가 200억원 재산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했다. (주)수원교차로 창업자인 黃氏는 개인이 가지기에는 과분한 재산이라며 모교에 기부했다. "씨앗은 1년농사, 나무는 10년 농사지만 사람은 평생 농사이니 사람을 기르는 일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그의 말이 감동적이다. 그는 프랑스 정부 장학금으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KAIST 교수를 역임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8월 21일 孔允錫氏(72)가 노점상으로 마련한 1억 2천만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성균관 대학교에 기증하여 감동을 자아냈다. 馬山에서 철물상을 하다가 火魔를 맞고 서울에 와 남대문 지하상가에서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孔氏는 儒學에 관심이 많아 성균관대에 재산을 기증한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다.

8월 25일 全州의 李錫雨氏는 또 다시 장학금을 기증하여 화제에 올랐다. 8월의 李氏는 환갑을 맞던 82년부터 매년 수 천 만원의 장학금을 10-20명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20년간 受惠학생수가 419명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네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늙음을 아름답게 비치고 있다. 네 분 중 黃氏는 老人이라고 하기는 이르지만 사고 방식은 어느 老人 못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도상으로나 관행상으로나 기부문화가 빈약하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연이어 보도되었던 네 분의 아름다움은 우리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분들 외에도 기부문화 정착에 노력하는 분은 많다. 많은 분들의 美談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나는 기부문화와 정신적 건강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믿고 있다. 나는 정신적 건강이 모든 건강에 우선한다고 항상 주장해 왔는데 근래의 미담들에 접하고서는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 帝國의 占領政策에 대한 역사의 교훈

## 미국의 일본과 이라크 정책 비교

[편집자주. 이 글은 필자가 미국이 강행하고자하는 이라크의 점령정책이 야기할 문제점을 2차대전 후 일본의 점령정책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를 논하고 있다. 원제는 Lessons From Japan About War's Aftermath이며 필자는 풀리처상을 수상한 John Dower 이고 그는 일본문제의 전문서적을 즐긴 바 있다. 뉴욕타임즈 10월 27일자에서 전재함]

In their immediate response to the shock of Sept. 11, journalists and pundits across America evoked, almost as one, Japan's attack on Pearl Harbor 60 years earlier. Headlines proclaimed a new "day of infamy." Feature stories dwelled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holy-war fanaticism of the Islamic terrorists and that of the Japanese - and, of course, on the dismal failure of American intelligence to anticipate either attack.

Now,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itself promoting the virtue of pre-emptive strikes, Japan has emerged as possibly offering a very different sort of historical precedent. Does America's successful occupation of Japan after World War II provide a model for a constructive American role in a post-Saddam Hussein Iraq? The short answer is no.

By almost all standards, the occupation of defeated Japan was a remarkable success. A repressive and militaristic society emerged from defeat and occupation to become a viable democracy that has posed no threat to its neighbors for half a century. Naysayers who declared the Japanese people to be culturally incapable of self-government - and their numbers were great in 1945 - were proved impressively wrong.

Contrary to what self-anointed "realists" seem to be suggesting today, however,

most of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nation-building in occupied Japan would be absent in an Iraq militarily defeated by the United States.

When war ended in 1945, the United States-dominated occupation of Japan had enormous moral as well as legal legitimacy in the eyes of the rest of the world. This was certainly true throughout Asia, so recently savaged by the Japanese war machine. It was true among America's European allies as well. There was a level of unequivocal regional and global support that a projected United States war against Saddam Hussein does not enjoy.

The occupation also had legitimacy in the eyes of almost all Japanese. The Japanese government formally accepted this when it surrendered. Emperor Hirohito, great weather-vane that he was, gave his significant personal endorsement to the conquerors. And Japanese at all levels of society quickly blamed their own militaristic leaders for having initiated a miserable, unwinnable war. Saddam Hussein will never morph into a Hirohito figure, and a pre-emptive war will surely alienate great numbers of Iraqis, even many who might otherwise welcome Mr. Hussein's removal.

In defeat, the Japanese proved to be anything but homogeneous. Political allegiances ran the spectrum from conservatives to Communists. Nonetheless, Japan was spared the religious, ethnic, regional and tribal animosities that are likely to erupt in a post-war Iraq. By the same token, the suicidal fanaticism that characterized Japanese

behavior on the battlefield did not survive the war. In an occupation that lasted from 1945 to 1952, there was

not one instance of Japanese terror against the occupation forces. Does anyone really imagine this would be the case in an occupied Iraq?

Much of the success of the Japanese occupation derived from the fact that Japan surrendered "unconditionally," thereby ceding absolute and nonnegotiable authority to the victors. The exercise of this authority, moreover, was vested in an unusually charismatic supreme commander, Gen. Douglas MacArthur, who, in effect, was authorized to rule by fiat. It is not conceivable to think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or any single American commander wielding comparable civil authority in a foreign land today.

Planning for the occupation of Japan actually began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Pearl Harbor, and the general objectives of demilit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the

vanquished foe were spelled out in the Potsdam Proclamation of July 1945, weeks b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finally capitulated. MacArthur's staff had considerable leeway for creative interpretation of their orders, but those orders reflected long interdepartmental deliberation in Washington, in contrast to today's hasty policymaking.

The great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hat continue to define Japanese democracy today reflected liberal New Deal policies that now seem testimony to a bygone age: land reform that eliminated widespread rural tenancy at a stroke; serious encouragement of organized labor; the drafting of a new constitution that not only outlawed belligerence by the state, but also guaranteed an extremely progressive range of civil rights to all citizens; restructuring of schools and rewriting of textbooks; revision of both the civil and penal codes, and so on. It is hard to imagine today's "realists" making this sort of lasting, progressive agenda their primary concern.

Ideology aside, the simple logistics of such serious nation-building would seem prohibitive. The key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who carried out civil-affairs policy under MacArthur numbered around 5,000 to 6,000 individuals at any given time, stationed mostly in Tokyo but also in grassroots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Many tens of thousands of bilingual Japanese support staff were hired. And for most of the occupation, American military forces - whose mission quickly turned to cold war objectives rather than the prevention of domestic unrest - numbered more than 100,000 men.

What ultimately enabled the Americans to institutionalize democracy in defeated Japan was not only the existence of strong prewar democratic traditions, but also the survival and cooperation of the existing bureaucracy.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remained essentially intact from the central ministries and agencies down to the level of

town and village governments, and administrators at all levels often proved genuinely receptive to the vision of a new and better society. Again,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post-war Iraq in which structures of the old regime will provide so ready a vehicle for carrying out far-reaching reforms.

One could easily go on with examples of the unique nature of Japan's occupation. As an island, Japan was physically isolated from neighbors (like China) that soon became hostile to its incorporation in America's cold war strategy. By contrast, Iraq shares borders with apprehensive and potentially intrusive neighb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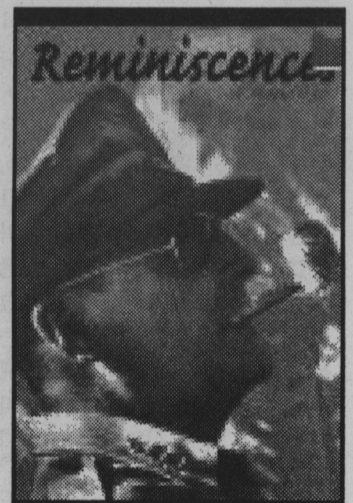
Of even greater importance, MacArthur and his staff had the period of relative quiet from 1945 to 1947 to concentrate on promoting democratization, while policymakers in Washington were preoccupied with developments in Europe. In

the cauldron of Middle East politics, there will be no such period of calm after a war with Iraq.

Defeated Japan also had the blessing of being poor in natural resources and of virtually no economic interest to outsiders. It was spared the presence of carpetbaggers who might have tried to manipulate occupation policy to serve their private interests. In oil-rich Iraq, foreign capital is poised to play a major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role.

While occupied Japan provides no model for a post-war Iraq, it does provide a clear warning: Even under circumstances that turned out to be favorable, demilit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re awesome challenges. To rush to war without seriously imagining all its consequences, including its aftermath, is not realism but a terrible hubris.

(John W. Dower is the author of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which won the Pulitzer Prize and National Book Award.)



2차대전후 일본의 미군정 장관 맥아더 장군 (사진 위). 이라크에 도착하는 유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사찰단 (사진 아래)



# 나의 銀行 Odyssey

鄭元勳 (상대 38년졸)

## I 만주에서 남가주까지

나는 平安北道 鐵山이란 곳에서 태어났다. 한반도의 북녘 黃海바다가 보이는 마을이다. 그런 시골 때가 오늘 미국 加州 羅城에 와서 人生의 幕을 내리고저 하고 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구한 노릇이다. 그러나 그것도 단순한 직행로가 아니었다.

서울서 학교를 나오고 1941년 滿洲의 中央銀行에 취직하여, 4년 근무기간 중 후반 2년은 北安이란 黑龍江에 가까운 북방도시에서 근무했다. 나는 "北安이라, 敗北의 不安이로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日本의 패망이 눈앞에 보이는 때였다. 드디어 終戰이 오고 나는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은행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는다고 혼자 맹세하듯 했다. 은행에서 주판알이나 튀기면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그런 속셈으로 서울에 와서 時日을 보내다 보니 결국 배가 고파왔다. 1947년 하는 수 없이 은행에 다시 들어갔고 1951년에는 한국은행에 離籍했다. 먼저 있던 한市中 은행에서의 顧客들과 밀접한 어울림에 비해 中央銀行의 國家政策的이고 學究的인 면이 훨씬 나의 취향에 맞았다.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나에게 調查, 外換業務 등을 담당케 하여 나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 주었다. 그에 더하여 이 은행은 다른 곳과 달리 開放的이고 진취적인 氣運이 조성되어 있었다. 당시의 한국은행원 가운데 나는 말하자면 몇 안 되는 外人部隊에 속하는 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나를 받아들였다. 나의 담당업무는 항상 過重해서 과외의 근무를 요구하였다. 그런 격무를 겪는 동안에 나는 韓銀 家族 일원이 되었다. 은행에서는 나를 總裁室 비서관까지 맡기더니 미국 시찰의 기회까지 주었다.

1953년이다. 이 미국 시찰은 나에게 미국의 거대 은행의 韓國 담당 幹部들과 면식의 幅을 넓혀주었고 귀환 후의 외환거래 취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반년간의 미국 주요 은행 방문은 韓國이 결국 世界 經濟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前提를 내 마음에 굳게 박아 줬다. 세계 경제의 한 고리를 擔當할 한국, 그리고 유연히도 그런 國際교역의 決濟面을 담당하게 된 나에게는, "이런 重大한 역할 遂行의 能力을 나는 갖고 있었는가?" 라는 自問을 그것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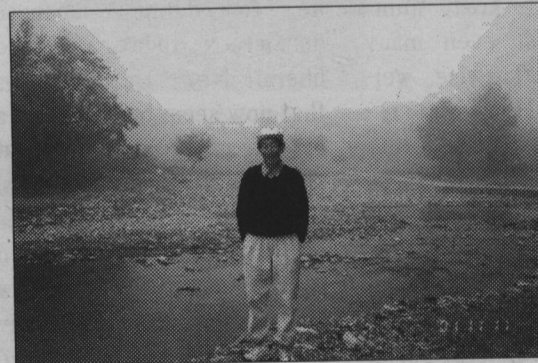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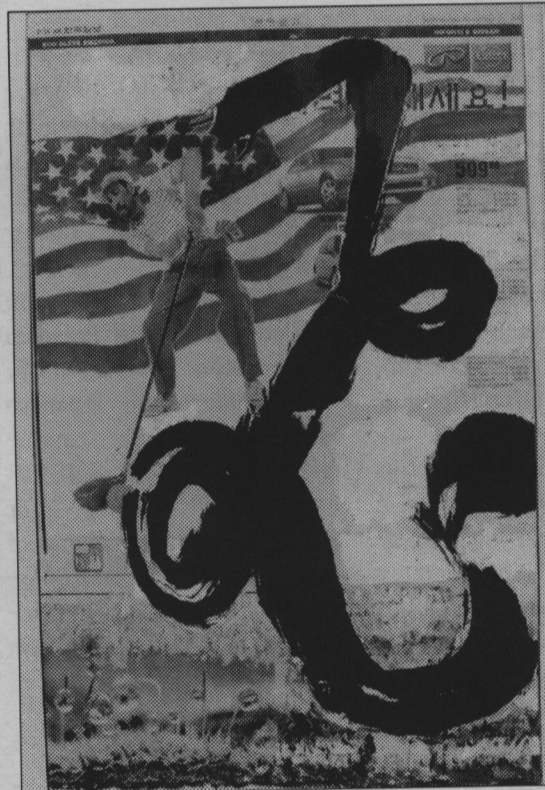
국 시찰 전부터 내가 품고 있었던 터라 도미유학의 결정을 하였다. 당시의 김유택 총재(상대 대선배)는 "留學은 무슨 유학? 海外 근무라도 시켜 줄 테니 그러지 마" 하였음에도 나는 유학을 떠났다. 1955년, 내가 집을 비울 수 있을 준비란 아무 것도 안되어 있었지만 아내는 1-2년 동안의 苦生은 어떻게든 감당하겠다고 오히러 나의 出行을 격려해 줬다. 학교는 Massachusetts 州 Worcester의 Clark University였는데 이 학교에서는 나에게 매월 \$150의 생계 補助金(Stipend)까지 줬다. 나의 경제학 석사 과정은 담당부장 Maxwell 老교수의 배려로 一年으로 끝냈다.

1956년 귀국 후 外資部 일을 맡아 寧日없이 지나다 1958년엔 New York의 한국은행 사무소장으로 전보됐다. 이 때 몇년 전에 시작된 韓國系 은행들의 미국 진출을 위한 前哨基地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非營業 前進基地였다. 서울에서의 軍事革命까지의 3년 가까이 동안 나는 분주히 돌아다니며, 특히 미국 금융계에 한국의 存在 특히 成長 可能性을 전파함에 영일없이 지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國際的으로 이렇다할 近代 商品을 내놓을 것이 없었다. 訪門處마다 日本系 은행간부들이 기계 및 화공제품과 자국의 國際收支의 개선을 코에 걸고 뽑내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의 後進性을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憤함을 이길 수 없었다.

1961년 군사혁명으로 본부 귀환령을 받아 調查部 일을 맡게 되었다. 軍事革命委員會가 將校를 은행에 파견하였던 터라 한동안 그들의 압력에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한 동료 부장은 拳銃을 책상 위에 놓고 號令을 치는 장교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은행원들은 忍耐로 그들을 감싸 동화시켰다.

얼마 후에 나는 理事가 됐고 1966년에는 한국외환은행 설립 委員으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신설 은행에 專務로 내정된 나는 그 은행 설립 準備의 總括者였다. 이 은행은 설립 당초부터 全國적으로 5천명의 행원을 가진 大 銀行이었는데, 이 은행에 전출할 한국은행 外換系 직원들의 밤낮 가리지 않은 노력의 결실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은행은 다음해 發足, 한국의 유일한 외환은행으로 그 발전이 日進 月步의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好事多魔랄까 삼년도



못되어 생각도 않았던 陣痛이 다쳐왔다. LA 지점에서 시작된 Coast Trading 이란 거래선이 관계된 사건이 그것이다. LA 지점이 내준 이 회사에의 L/C 發行에 있어서 뒷거래가 있었다 해서 지점장 외에 本部의 담당 理事 및 行長이 起訴당한 것이다. 한 일년 동안 나는 은행을 대표하여 檢察과 승경을 벌였다. 결국 그들은 有罪 判決을 받고 短期지만 징역

을 살았다. 나는 이 사건이 판결이 나자 곧 財務長官에게 辭意를 표하고 은행을 떠났다. 지금도 그때 당시 남덕우씨 장관과의 대화를 아직도 기억한다. "당신 自身이 判決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만 돌 것 없지 않소?" "우연히 나만 빠진 것이지 제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인 그들이 囹圄의 몸이 됐는데 내가 어찌 의연히 은행에 버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실은 大統領室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 Mr. Chung께 서 그리 處身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사후 처리가 되겠습니까." 하여 1972년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나는 한나절을 城北洞 뒷산을 자주 산책하는 몸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은행에서 기별이 왔다. LA에 現地 은행을 세울텐데 맡아 볼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一言之下에 승낙, 새해인 1973년에 LA로 왔

다. 이렇게 해서 연 것이 현재의 Pacific Union Bank의 전신이다. 1974년 9월 개점한 이 은행은 한국이 海外에서 개설한 최초의 現地 은행이다. 자본금은 전액 한국외환은행이 出資했다. 은행장 계약근무 5년을 마치고 나는 그 은행을 떠났다. 1981년에는 같은 LA에서 최초의 現地 資金에 의한 은행을 發足시켰다. Hanmi 은행이 그것이다. 이 은행도 5년의 任

을 살았다. 나는 이 사건이 판결이 나자 곧 財務長官에게 辭意를 표하고 은행을 떠났다. 지금도 그때 당시 남덕우씨 장관과의 대화를 아직도 기억한다. "당신 自身이 判決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만 돌 것 없지 않소?" "우연히 나만 빠진 것이지 제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인 그들이 囹圄의 몸이 됐는데 내가 어찌 의연히 은행에 버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실은 大統領室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 Mr. Chung께 서 그리 處身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사후 처리가 되겠습니까." 하여 1972년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나는 한나절을 城北洞 뒷산을 자주 산책하는 몸이었다.

을 해 2002년 여름에는 한국에서는 의례적인 水害가 겹쳤다. 텔레비전에 비치는 폭우 뒤의 범람하는 강물의 물길과 보고 있으면 人生行路도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쪽에서는 지붕, 가재도구, 쓰레기 등이 밀려 내리고 있다. 그러나 넘치는 물바다의 한 가운데는 물이 그런대로 물줄기를 이루는 것 같다. 人生도정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가진 雜物이 소용돌이 속에 밀려 내리는 물결에 끼어 허우적거리며 끝끝내 그 逆境의 곤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평탄한 물줄기를 타고 비교적 쉬운 行路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運이라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위에서 본대로 주위의 보살핌까지 받는 생애를 살아왔으니 좋은 운의 혜택을 누렸던 것이다. 이 운은 실은 나만이 享有한 것이 아니고 같은 시기에 같은 직장에 있던 이들 모두는 제법 운이 좋았던 것 같다.

<13면에 계속>

# Viagra 문화

羅秀燮(의대 50년졸)

미국 일반 시민들의 소비생활이 윤택해 진 것은 대략 1946년 이후라고 한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선조들은 검소한 생활 가운데 富強한 나라를 이룩하느라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였을 것이다. 현대 인류 사회를 들여다보면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의 실정은 너무나도 물질만능주의 풍조에 잠겨 있으며 쾌락주의, 속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진 세상에서 과도한 소유욕에 사로잡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긴장(Stress) 속에 쌓여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고 있다. 멀리 앞날의 희망을 바라보며 자연의 섭리를 따라 유유자적하며 산다면 평화 안에서 자연을 구가하며 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란만.

이러한 사회적 풍조 아래 등장한 것이 Viagra이다. 만년청춘을 누리며 치솟는 性慾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실컷 즐기려 하는 野望에 보조를 갖춘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성한 행위로서의 성욕이 차지하는 자리는 이미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으로 변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Viagra 선전과 광고에 물려서 살고 있는 듯하다. 신문, 잡지나 T.V. 도처에서 Viagra를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 내가 보며 놀라는 사실의 하나는 선전의 대상을 주로 中年의 남자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人體 생리학적으로 정

력이 가장 왕성하여야 할 그 나이에 그들은 성욕이 억압된 속에 살고 있다는 사회적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격심한 생존경쟁과 탐욕 안에서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심한 긴장에 말려든 결과일 것이다. 創造主의 뜻을 따라 겸손히 검소한 삶 안에서 모두를 자연의 섭리에 따라가 順理대로 생활하는 길만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선조 아담과 이브가 저질러 놓은 원죄의 현대판 재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 안에서 인간들은 상흔의 지배 아래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빨리 안출해 낸 것이 Viagra인데, 이것이 출현했을 당시는 시장의 주가가 비정상적인 상승기에 있을 때였고 그 때 Pfizer회사의 株價는 견잡을 수 없이 비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이처럼 귀한 약품으로 군림한 Viagra 인지라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가짜 Viagra가 범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性的 부도덕과 폭력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사회는 이른바 "3 S Culture" (Sex, Screen, Sports)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으며 Sex의 과잉 충족에 눈이 어두워 인간 생명을 완전히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Culture of death)로 치닫고 있다. Viagra 선전을 둘러싸고 있는 두번째의 사실 중 내게 놀라운 것은 이 선전에 기꺼이 편승했는지 돈에 팔려 동원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이름난 노 정치가인 Bob Dole이 흔쾌한



모습으로 선전에 단단히 한 목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덕적으로 황폐의 일조를 달리고 있는 사회의 기풍을 환원하도록 노력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처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Clinton은 망측한 Sex scandal로 유명해졌고 Viagra 문화를 꽃피우게 한 역사적 인물인 된 것으로 짐작된다. 늙었으면 그런대로 노년의 생리에 맞추어 나름대로 후진을 위하여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할 선배가 100년토록 재미를 안보면 손해라는 듯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 꼴이 됐단 말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들인가! 학창 시절에 들은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일본말 교훈의 하나로 "SUKOSHIWA HAJIWO SHIRE(조금은 수치를 느낄 줄 알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인간에게선 수치심이 나 명예 존중은 이미 오래 전에 현실팩처럼 내던진 상태이니 이런 사태는 당연한 현상인가? 라고 심각하게 자문해본다. 너 사람이! 自然으로 돌아 오라. 한번쯤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산다면 평화 안에서 주시는 많은 좋은 선물을 즐길 수 있으리라라고 나는 믿는다. NATURA SANAT, MEDICUS CURAT"(治癒는 자연의 힘으로, 醫術은 다만 작은

도움일 뿐)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신봉해 온 신조이다.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주어지는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자. 평화가 따르리라. 평화 없이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다시 한번 나는 외쳐 본다. "NATURA SANAT, MEDICUS CURAT" (2002년 10월, Maryland, Baltimore 교외에서)

## 의장특허(意匠特許)와 복사권(複寫權)

玉唯鎮 (공대 64년 입, 이민특허 변호사)

신상품이 히트하고 자고 일어나면 유사 상품이 시장에 나온다. 우리 한인들이 주름 잡아야 복사권(copyright) 위반 모조품제조 능력(?)이 중국인들에게 전수(?)됐다. 방지책은 의장 특허나 copyright 등록이다. 의장 특허(design patent)가 더 낫다. 의장 특허는 상품의 기능성(utility)과 관계없이 미적인 의장(意匠)에 대한 특허이다. 그 예로 평면 모니터와 본체를 결합한 애플사의 새로운 iMac을 들 수 있다. 디자인에 새로운 기능상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미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衣裳의 경우라면 특정 의상의 디자인이나 무늬 등으로 의장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상품의 고유한 미적 가치들은 의장 특허 대상이다. 특허청(USPTO)에서 의장 특허를 받으면 14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모조품이 세관에 있으면 수입 금지령도 얻을 수 있고, 변호사비는 \$1,000정도. 그러나 디자인이 매우 많은 경우(예: 옷감이나 의상들), 복사권(copyright) 등록을 하면 모두 합해서 \$500정도에 안 든다. 복사권(複寫權)은 개인의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개인의 창작물인 경우

저작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창작이 시작된 순간부터 저작권이 인정된다. 후일 만일 누가 그 저작물을 무단복제해서 사용했다면, 무단 복제로 고소할 수 있다. 옷의 도안이나 무늬 등은 물론, 각 음반 회사에서 나온 노래, 출판된 소설, 영상물(映像物)들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컴퓨터를 켜고 끌 때 나는 간단한 소리에도 저작권 신청이 가능하다.

도용(盜用)의 의도가 없이 무심코 복사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나 상품을 무단 복사를 하다 발각되면 형법으로 다스린다.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의장 특허(design patent)는 특허청(USPTO: Honorable Commissioner for Patents, 2900 Crystal Drive, Arlington, Virginia 22202-3513)에 신청한다. 복사권(copyright)은 Library of Congress (Register of copyrights, Copyright Offic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20559)에 신청한다. 필자연락처 213-365-2229

### <12면에서 계속>

한데, 그들 중 나와 엇비슷한 이들 약 10여명 중에서 하필 나만이 미국에 와서 은행을 냈이나(합계 10개 은행 중) 여는 행운을 가졌을까? 나는 이런 나의 銀行開設 실적을 유별난 功績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나를 洪吉童같이 여기며 내심 나를 현대의 魔法師처럼 보는 이도 있을 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특히 미국에서 한 은행 설립을 成功이라고 가정하기로 하자. 이런 나의 성공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우선 먼저 본대로 내가 運脈을 탄 데서 그 기틀이 마련됐음은 틀림없다. 그 당시 1960년대에는 미국에 이민 정책의 완화, 특히 동양계에 대한 한국의 미국진출기회가 열리던 때이고 이민 및 교역에서 여건이 마련됨으로서 그 환경조성이 이루어졌던 때다. 그런 속에서 은행들을 열게 되는데 그 일이 우연히도 나에게만 할당이 주어졌 것이다. "그럼 우연 만이 너의 성공의 지름길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뭐랄까 나는自己都 모르게 어떤 生物의 자기보호책 같은 준비를 해오던 것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첫째는 나의 미국 유학이다. 돌아보면 無理한 억지준항같은 시도였다. 그러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世界化의 물결 앞에서 필수적인 기술의 습득은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제학 지식이요, 실은 그보다도 더 다급한 것이 英語 驅使力이었다. 유학 1년간은 나의 영어 실력 研磨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제 은행계에서는 외국의 어떤 친구가 와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는 일종의 自負를 갖게 된다.

이런 武器를 갖게 되었지만 그것이 전부란 생각을 할 수는 없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했던 것은 나라는 사람의 氣質이고, 그에 보탠 얼마간의 나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할 일을 다 했을까? 라고 나는 가끔 반성해본다. 지나가다 인사를 하게 된 이에

게 혹시 실례나 하지 않았을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虛勢나 부리지 않았을까? 라는 反省을 하기도 하지만, 나는 매사에 誠實과 謙讓 쪽으로 기울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내가 한 일이 성공이라든가 위업이라든가 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래도 어떤 이들이 찬사를 줄 만한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根本적으로는 우리 先祖들이 내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준 良識感覺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 없었더라면 社會가 나에게 은행계 업무를 도맡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었기에 한국의 금융계가 나에게 어떤 신뢰를 보여주었고 미국 加州 銀行局이 그토록 이해해 주었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美연방 FDIC도 내편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 한반도 서북단 바닷가에서부터 北滿洲의 오지, 그리고 서울 다음은 미국을 들락이다가 이제 이곳 羅城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짧지 않은 旅路였다. 우리 선조들로서는 꿈도 못꾸던 長征

이다. 그 장정의 현주소는 먼저 본대로 大河의 입구에 넘실대는 물 흐름의 중간 한 줄기라고나 할까? 강물의 양쪽은 무수한 잡물로 더럽혀져 있다. 그러나 내가 타고 온 물줄기는 제법 맑고 거침이 없는 흐름이었다. 그 흐름을 타고 흘러내리다 보니 벌써 80이란 생애가 지났다. 사람들은 80이란 나이는 인생의 終點을 얼마간 지난 시점이라 한다. 나는 "중점입니다. 다 내려주세요"하는 車掌의 말을 그만 알아듣지 못했던 모양이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은퇴자가 되고 나서 보니 종착역을 놓친 기분을 실감한다. 나의 4년간의 출타 중에 얼마 남지 않은 동갑내기들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제 짝을 잃고 홀로 빈방에 앉아 있으니 무얼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다. 은퇴하면 종일 그림이나 그리지 하던 의욕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아마 지난 몇 개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어깨와 목뒤의 신경통 탓인지 모르겠다. 처음엔 목 뒤 아래가 지끈지끈 수서서, "腦가 망가진 거로구나 얼마안가 헛소리

나 하다 가버리겠구나" 하며 黃泉行을 반쯤을 각오하기도 했다. 의사와 한의사를 찾아 몇군데 진료를 받았지만, 별반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대로 그들과의 접촉에서 시사를 받아 持久戰을 펴고 있다. 수면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녁에는 Advil 한 알을 삼키고 오후에는 수영을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제 나는 활동의 生産性이 곤두박질한 상태다. 이런 꼴로 오래 살아봤자 별다른 뜻 없는 세상이다. 생각하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긴 旅程이었다. 넓은 삶의 물위에 떠서 이리 밀리고 저리 부딪기우며 요행히 생명을 이어왔다. 흑자는 행운이라 할 만한 생애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나는 종말이 멀지 않을 것을 느낀다. 사람은 태어나 삶의 급류에서 허우적거리다 몰락의 급류에 휩쓸려 살아졌다. 한낱 거품처럼. (2002/10)

SNUA OPINION LEADER

# 세종대왕의 유교와 농업 대혁명

모교 국사학과 李泰鎮교수는 최근 그의 신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 기술」 부제 「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산업화의 장애물이란 혐의를 뒤집어쓴 유교의 복권을 시도한다. 실제 유교 사상이 조선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유교가 이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조선 사회경제사 연구에 토대를 두고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李교수로부터 어떤 토대에 근거를 두고 유교가 조선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1993년 대전 엑스포 때 그 많은 행사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회가 주관한 세계 여러 문명권의 전통과학 역사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도 있었다. 서울의 한 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조촐한 행사였지만,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이 여러 명이 초청됐다. 그때 나는 토론자로 말석을 차지했다.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이 행사를 지원해준 당시 과학기술처의 어느 높은 분의 축사다. 『우리는 과거 조선시대에 유교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종대왕 같은 분이 있어서 천문 과학이 발달한 역사가 있었으니 그 정신을 받들어 과학발전에 매진하자』라는 것이 즐거웠다.

## 유교에 대한 그릇된 편견

축사를 들으면서 나는 민망스러웠다. 각국 석학들이 이슬람, 이집트, 아즈텍, 중세유럽의 과학을 얘기하려는 자리에 우리는 과거 5백년간 유교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조하면서, 오직 한 사람의 성군 덕분으로 체면치레가 된다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자리가 됐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결코 어울리지 않는 주최국의 자기 소개였다. 우리는 이런 저런 연유로 유교에 대해 심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의 한국사 연구는 이 편견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번에 낸 책도 그 중의 하나다.

이미 과거가 돼버린 유교 「그까짓 것 내던져 버려도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해서 창의를 인 우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망각치 말아야 한다. 역사 속의 사상가, 발명가들이 도서관에서 「과거」를 뒤져 인류를 이끄는 창의적 사상과 이론을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 발명품인 측우기를 세종의 세자인 문종이 창안한 것이 명확한데, 누군가가 노비 출신 장영실의 것으로 「변조」한 이후, 그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풍토다. 유교가, 왕실이, 양반이 했다고 하면 외면하는 편견의 땅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족 문화 창달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시대에는 상위 신분층이 민족과 민족문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색함에서 어떻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가 나올 수 있겠는가.

유교는 중국 송나라 때 민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체계를 일신했다. 그래서 신유학이란 이름이 붙었다. 종교성보다 이

념성을 더 강조한 것이 변화의 요체였다. 현실문제를 직시하여 해결하려는 의식, 요즘 말로 참여의식이 강화된 것이다. 불교가 내세를 강조하여 현실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극락세계로 안내한다면서 민의 현세에서

## 세계적 발명품인

## 측우기는 노비출신

## 장영실이 아닌

## 문종이 고안했다

받는 고통을 방지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다. 눈앞의 삼라만상을 假幻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만물을 생육하는 그 큰 뜻을 본받아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치자의 도리라고 부르짖었다.

하늘이 내린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왕과 사대부들은 「천하의 근심은 내가 먼저 하고, 천하의 낙은 내가 제일 나중에 누리다」는 이른바 사대부 정신이 고양됐다. 조선왕조를 세운 왕과 지식인들은,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일은 의식주를 제대로 누리게 하는 것이란 신념아래 의식주 대혁명을 실현하는데 매진했다. 내 책은 이 프로세스를 논증한 것이다.

유럽사에서 역사인구학자들은 15세기 인구 대폭발(explosion)을 입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0.1% 미만이면 인구동향이 15세기에 들어와 0.3~0.4%로 올라가는 변화가 각지에서 생겼다는 것이다. 전자는 한 쌍의 부부가 평균 5명 안팎의 아이를 낳지만 높은 소아사망률로 그 중에 성인이 되는 숫자가 2~3명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질병치료의 한계, 영양상태의 악조건이 높은 소아사망률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거의 평행선에 가까운 고대·중세형의 인구 증가선이 15세기에 들어와 가파르게 상승하여 「폭발」이란 표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이 나의 중요한 논점의 하나다.

고려시대의 인구에 관한 자료는 남겨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인구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전하는 2백 60여 건의 고려시대 묘지명에서 인구동향을 읽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조선시대의 묘지명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불효라고 해 부모의 묘지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출산 순서대로 다 올리고 일찍 죽었으면 그렇다고 기록했다. 불교의 내세관의 영향일까. 어쨌든 이런 기록상태는 역사인구학적으로 더 없이 좋은 조건이다. 그 분석 결과, 고려 전기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0.1% 미만의 상태였고, 후기에는 0.3~0.4%로 향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조선초기의 족보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 그리하여 3백

만명 이하의 고려시대 인구는 조선 건국(1392년) 초기에 5백만명, 1550년경에는 근 1천만명에 육박하는 선에 도달했다.

나의 다음 의문은 「무엇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는가」였다. 인구는 영양상태와 질병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양자의 조건이 개선되면 인구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둘 중 영양상태는 농업기술 발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지만 질병은 어떻게 하나. 의학사는 내 영역 바깥이라 당황스러웠다. 일본의 미키 사카에(三木榮)·한국의 김두종 등 석학들의 업적들이 이를 해결해 주었다. 타 분야에 비해 앞선 느낌을 주는 이 분야의 업적에서 고려후기에 토산약재를 활용하는 의술이 발달한 사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토착 의술이란 뜻의 鄉藥의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韓方의술이 송대 이후 발달한 중국 의술에 맞먹는 체계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시기란 것이 누누이 강조됐다.

## 한방의술 발달과 인구증가

의술이 인구증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가 많다. 특히 외과에 치중한 서양 근대 의학사에 그런 견해가 많다. 그러나 원기보양론 위주의 동양의술을 같은 잣대로 잴 이유는 없다. 의술 그 자체만으로 인구증가를 논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발달이 병행하면 가능하다. 즉 식량공급의 여건이 좋아진 상태에서 소아 질병 치료가 높아지면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향약의서들이 소아과와 부인과를 독립과목으로 설정하고

## 세종이 農時의

## 중요성 강조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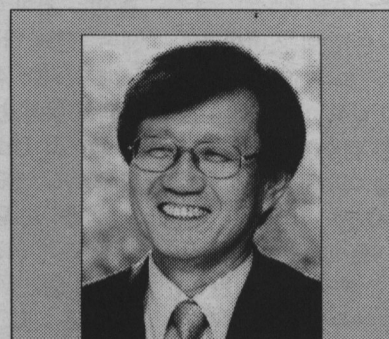
## 「七政算」이란

## 본국력을 만들었다

있는 것은 뜻밖이었다. 세종대의 「향약집성방」은 곧 이 시대 신의술의 총정리였다.

신유학적 이념이 정책에 직접 실천되는 시점은 대개 고려 공민왕 때였다. 신유학적 관료제도는 왕명을 받은 지방관들의 업무지침으로 농사를 성하게 할 것·호구를 늘일 것·학교를 일으킬 것·군역을 고르게 할 것·소송을 간명히 할 것 등 5개 사항을 세웠다. 고과사항들이었다. 농업기술 개선과 인구증가를 얼마나 중시했던 지를 그대로 알 수 있다. 인구와 농업기술상의 대발전은 중국 송나라가 앞서 경험한 것으로 신유학은 이 경험에 대한 확신 사상체계였다.

고려 말의 신유학자들은 수전 농업 중심의 중국 강남농법 도입, 중국 의술체계에 맞먹는 향약의술체계 수립에 매진하고, 조정은 이를 정책화했다. 그리하여 늘어난 농업노동력으로 저평지 개간



李泰鎮

- 1965년 모교 문리대 사학과 졸업
- 1973~1977 경북대 문과대학 전임 강사
- 1977년 모교 인문대학 교수 임용
- 1983~1984 모교 인문대학 학장보
- 현재 모교 국사학과 교수·진단학회 회장

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고려시대에는 배수관리에 역점을 둔 구릉지 밭농사가 많았는데, 수전 농업을 목표로 한 신농법은 농경지가 저지로 이동하는 대변혁을 가져왔다. 저평지가 많은 연안 군·현들이 뉴 프론티어로 새 촌락들이 「벌처럼」 탄생했다. 저평지에 뛰놀던 노루와 시슴이 사라져 공물품목에서 이것들의 가죽을 빼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 생태계 변화를 수반할 정도의 대변혁이었다.

세종은 삼남지방에서 일어난 농업혁명의 신기술을 전국에 보급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요체를 담은 알기 쉬운 농서로 「농사직설」을 편찬했다. 새로 개척한 「사군육진」에도 이 책자가 보내졌다. 세종대왕은 신기술의 요체로 農時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나라에 달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했다. 중국 천자가 주는 달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나라 날짜 계산법을 독립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겼다. 그리하여 경복궁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 그 위치에서 시간을 정확히 재는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에 근거해 마침내 「七政算」이란 「본국력」을 만들었다. 세종대왕의 천문기구들은 농업대혁명을 마무리짓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달라진 농업기술은 토질의 등급을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세계 개혁이 필요했다. 그러나 난제는 풍흉의 평가였다. 고을마다 비가 온 정도가 다른 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세자가 고안한 측우기가 이를 해결해주었다. 비가 온 시기와 강우량 데이터가 풍흉 평가의 자료로 활용됐다. 이런 과학적 농정은 이 시점 아니 전근대를 통틀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세종이 세운 농정체계는 원칙적으로 왕조 일대에 준수됐다. 이 역사적 경험은 우리의 현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1960년대 이후의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에서 이 유교적 경제개발의 모델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 그러나 대상을 공업화로 바꾼 조건에서 유교적 경제의식·국가적 사명감·관료제의 효율성 등의 역사적 유산은 새로운 대행진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

# 美國에서 살다보니<2>

허윤행 (사대 57입, 워싱턴주 동창회장)

## 6. 낙엽을 밟으며

지금 11월 중순임에도 이 곳 선 아직 비다운 비도 또 영하의 날도 아니어서 겨울가뭄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전 산하가 울긋불긋 단풍으로 뒤덮여 한국의 늦가을을 연상케 한다.

지난 11월 3일에는 동문들 4쌍이 함께 여기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의 캠핑장소 겸 산책 코스인 Maple Tree Valley를 밟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캠핑장에 차를 두고 오솔길을 타고 오르니 그곳은 단풍 나무들만 쪽쪽 뻗어 올라간 곳으로 trail이 나 있으며 비도 바람도 없었으니까 떨어진 단풍잎으로 길이 겹겹이 쌓여 마치 길이 아닌 나무위 위를 걷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고국에서 단풍철에 많이 구경을 갔었지만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단풍잎 하면 대개 조그마하고 귀여운 것을 연상하나 여기 것은 플라타너스 잎 이상으로 커서 나무를 보지 않고는 댄 앞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캐나다는 국기에 단풍잎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그 나라에 이 나무가 많기도 하지만 또 단풍나무에서 Maple syrup을 생산하여 자국에도 조달하고 외국으로 수출도 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상징물로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인건비가 훨씬 싼 남북한 공히 산야의 樹種은 단풍 나무로 점차 바뀌 생산성을 제고하면 어떨지? 우리는 금수강산을 조금하게 녹화하느라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북측은 있는 나무도 다 캐어 땔감으로 썼

다고 하니 내년부터라도 단풍씨앗을 들여다 임업시험장에서 발아시켜 보급시키면 될 것이다. 쓸데없이 돈 많이 드는 핵개발에 머리를 쓰지만 말고 국민을 김일성이 약속했다는 기와집에 쌀밥먹이는 단계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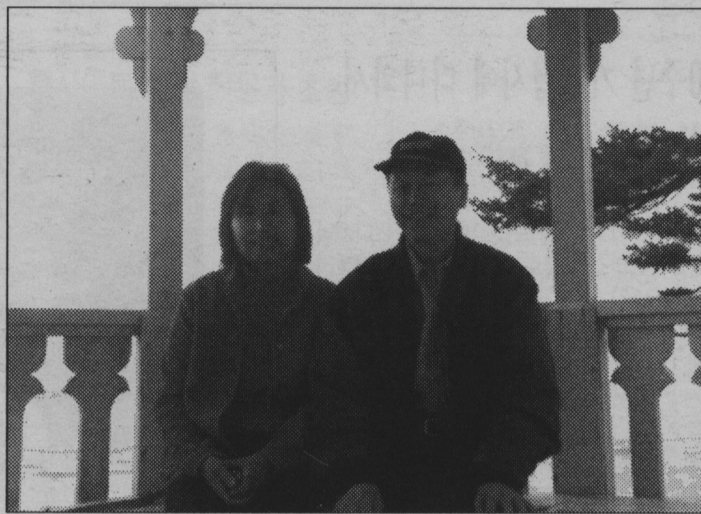
지난 일요일인 10일에는 Tacoma → Olympia → Aberdeen → Forkes → Port Angeles → Sequim으로 이어지는 코스 약 400마일을 하루종일 강행군을 하다시피 돌아보았다. 한국 같으면 다 눈발이 될 수 있는 땅들이 온대 우림 지역이 되어 상록수와 함께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으니 신이 주신 축복받은 땅이다. 600만 워싱턴 주 인구 중에 약 10~15만의 한인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만 쯤 늘어나서 이 곳 주류 사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는 것은 공염불일까? 하긴 이곳에도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게 한인이 늘어나고 있다. 벌써 약 20가구로 늘어났으며 우리 동문만도 작년보다 배가 늘어나 6명이나 된다.

## 7. 추석과 추수 감사절

가족과 함께 모이는 명절로는 한국의 추석과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매우 유사하다. 한국도 미국도 이 명절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 선물도 하고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성묘도 하고 온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반대이다. 이 곳 Sequim에는 알려진 바대로 은퇴자들이 80%를 차지한다. 그분들 집에 가보면 방이 보통 4-

5개씩으로 처음에는 의아해 했는데 자식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 그렇게 방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피한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은 자식들이 오는 비용일체와 방이 모자랄 경우 호텔 비용까지도 늙은 부모들이 모두 다 대주는 것이다. 늙은 부모와 같이 와서 부모가 내주는 돈으로 떼떽하게 투숙하는 그들을 보면 괜히 못 볼 것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18살에 내쫓았으니 의당히 부모가 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많이 퇴색했



지만 우리의 敬老思想은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 이 사상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다 사라지고 한국에만 남았다니 언젠가는 우리도 살아남지 못할까 걱정이 앞선다.

## 8. Life is so good & My Treacherous Journey

위의 두 작품명은 자전적 소설로 하나는 흑인 노예출신 102살 된 노인이 100살에 쓴 유명 작품으로 베스트셀러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여성의 파란만장한 삶을 50대 후반에 쓴 작품이다.

Life is so good은 Mr. Gorge Dawson 이라는 흑인이 98살에야 GED 코스인 문맹퇴치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2년 후에 썼으니 극히 기억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나는 이 책이 어느 지방지에 소개된 내용을 읽고 호기심에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았다. 이 책에는 흑인 어린이를 백인들이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예인 흑인들은 반항도 못하고 슬금슬금 피해 달아나면서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아이는 죽음의 공포를 잊게 되었다고 자기자식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처절한 노예 생활들을 했으니 백인들에게 이제는 반항도 하고 가끔 물건도 슬쩍하고 마약도 팔고 그 돈을 금불이를 사서 유치하게 치장하고 고급차 굴리고 다니는가 보다. 약간 본문에서 벗어났는데 현재 102살인 이 노인은 지금도 full time 학생으로 열심히 학교에 다니면서 소설공부에 열중이라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이 노인 때문에 그 GED 코스에는 학생수가 2배가 되었으며 교사도 학생들도 매우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공부하고 한다니 한 노인의 힘이 참 대단하다 하겠다. 지금은 유명인이 되어 이곳 저곳에 초청되어 강연도 하고 VIP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 한국인이 쓴 My Treacherous Journey는 K.S. 윤이라고 하는 현재 60대 초의 한국분이 쓴 책으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써나간 역작이라고 한다. 이 분도 83년 6.25

가 났고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동생들을 위해서 문전걸식을 다녔고 종국에는 10대에 미군위안부가 되어 몸을 파는 신세였는데 그 중에도 그녀를 좋아하는 美軍이 있어서 그와 결혼하고 1965년에 미국으로 들어왔으나 남편이 직장도 없으면서 자기는 취직은 못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세 자식을 자기가 맡기로 하고 들어온 지 4년만에 離婚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고 사업도 하고 하여 지금은 돈을 벌어 워싱턴주 수도인 Olympia에서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보고 있는 중, 어릴 적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4년 다니 실력으로 영어공부를 하고자 GED코스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엄마는 항상 일기를 쓰거라 그리고 작품을 남겨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이 자극이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또 일기 쓴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는 노출하기 부끄럽게 생각되는 얘기도 거침없이 써내렸으며 앞으로 2권, 3권도 이어서 쓸 것이고 자기 책을 우리 1.5세 2세들에게 많이 읽히도록 하려고 한다니 참으로 경탄할 일이다 (이상 여성중앙 11월호 인용).

## 9.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아요'

이 말은 한국의 솔빛별 세자매가 부모와 함께 2번째 세계일주 여행을 계획하면서 한 말이다. 이미 초등학교 때인 97년에 1년여에 걸쳐 세계일주 여행을 한 이들은 귀국 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제주도로 가서 전원 생활을 2년여 하면서 동물들을 기르고 겪은 일화를 모아 "똥개라도 년 찾아올 수 있겠지?" 라는 책을 써서 작가로서 3자매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1차 때 못 본 곳을 답사하려고 디지털 캠코더 사용방법까지 익히고 간다니 그 부모들의 안목이 대단함에 부러움을 느낀다.

우리는 흔히 해외 移民의 목적으로 "자녀교육을 위해서"라고 답하곤 한다. 그러나 바쁜 이민생활(직업전선)에서 부모가 같이 직

장을 나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여 미처 자녀에게 신경 못쓰는 사이 학교나 동네에서 spoiled 된 자녀를 두고서도 설마 우리 자식들은 안그러겠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이 떨어지고서야 "어마 뜨거워라"하고 후회 한 들 이미 엎어진 물은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행을 같이 함으로써 평소에는 발견 못했던 자녀들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아빠와 자녀간의 대화의 장도 마련할 수 있으니 一石二鳥라 하겠다.

또 三人行이면 必有師라고 하였으니 곳곳에서 훌륭한 스승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녀들과는 못했더라도 시간이 있는 경우 손자손녀들과라도 세계여행을 계획하고 함께 해서 훌륭한 조부모로 손자손녀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또 이 곳을 개척한 조상으로서의 긍지도 남게 되지 않겠는가? 백인 조부모들이 손자손녀와 여름방학에 여행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본다.

## 10. 출산율 부부당 1.3명

8월 22일자 신문에 의하면 한국 可妊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1.3명으로 불란서(1.8명), 영국(1.64명), 일본(1.33명) 보다 낮다고 한다. 한 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구호 아래 정부가 가족 계획을 장려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고 강대국이 되려면 1억의 인구는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남북한 해외교포 등 포함하여 8천만이 못되는 선에서 이제는 뒷걸음질을 쳐야 될 모양이다. 다행히 미국으로 온 우리나라 중국 소련 교포들은 2명 이상씩 낳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기서라도 교포가 무럭무럭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미 중남미 히스패닉계는 이 곳에서 흑인에 버금가는 3000만명을 돌파하였고 중국인들은 해외에 1억명은 퍼트리려고 boat people로도 보내고 또 서로 감싸준다고 하니 얼마나 인구가 많은 것이 힘이 되는가 말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핵가족하에서 아기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못낳는다고 하니 정부는 미국의 Day care center 같은 곳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곳곳에 세워 맘놓고 아기를 맡기고 다닐 수 있게 해주어야겠다. 아니면 머지않아 일본같이 65세 이상 노인이 15세 미만 어린이 보다 더 많은 노인천국이 될 날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 忙中閑을 즐기는 필자부부



Maple Tree Valley의 찬란한 단풍을 관조하는 한 여행자

지금 많이 퇴색했

# 치과대학 16기 졸업 4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蘇鎮文(치대 62년졸, UIC 교수)

대학 생활 중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下野시킨 4·19와 박정희 육군 소장이 정권을 잡은 5·16을 거치면서 학생만능 시기인 1962년 2월에 치과대학을 졸업한지가 어느덧 40년이 넘었다고 하면서 그 동안 10년마다 하는 졸업기념 행사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니 이번엔 꼭 참석하여서 옛 얼굴들을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압력을 여기지기서 받으면서 몸담고 있는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치과대학에 새 학년이 시작하지 몇 주만 이어서 좀 무리

시카고3, 위스칸신 밀워키1, 인디애나 폴리스1, 콜로라도 덴버1, 로스앤젤레스7), 그리고 국내에 82명이 흩어져 있는 동기생들을 위하여 동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광철 동문의 여러 임원들의 노고로 예정하였던 수 보다 많은 반가운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고 자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졸업생 41명, 동반 부부를 합하여 전체 64명이 기념 총회에 참석하여 흐뭇한 분위기는 시계를 40년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뒷줄 왼쪽부터 임성삼, 남일우, 양정강, 정해구, 문민력, 소진문, 김진규, 이규철 / 앞줄 왼쪽부터 권혁춘, 최광철, 이영주 (Hotel Intercontinental Grand CAPE에서 조찬후)



왼쪽부터 김주영, 양정강, 김진규, 이규철, 이성우, 소진문, '아차산' 산행

한 형편이었지만 짧은 휴가를 내어 고국의 수도 서울을 다녀 올 수 있었다.

40년전을 떠올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팽팽하던 얼굴들이 얼마나 변했을까? 이유 없이 서로가 부끄러워하던 남녀 학생들이 만나게 되면 대화는 어떤식으로 이끌어 갈지? 얼굴이 예쁘고 마음이 착하며 두루두루 푸짐하여서 굴러다니던 "떼부"는 아직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 복잡하였던 사회상에 쫓겨지게 가난했지만 기분 좋았던 그때 그 상황에서 모두가 얼마나 변했을까? 등등의 생각으로 9월 25일 시카고 오키와 국제 공항에서 UA 881편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 도착, 그곳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UA 827편으로 인천에 9월 26일 오후 7시 30분에 도착하였다.

금년 들어서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서울방문이지만 매년 갈 때 마다 여러 면으로 급속히 변하는 한국이라고 느껴오던 터에 이번 인천 도착 때에도 같은 기분이었다.

112명의 졸업생 중에 故人이 13명, 병상에서 고생하는 동문이 10여명 되고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99명중 해외 17명(캐나다 1명, 브라질 1명, 미국 15명-뉴욕1, 오하이오, 영스타운1,

사동문 그리고 시카고의 본인 소진문을 위한 동기생들의 매일 계속된 배려와 후한 대접은 10월 2일까지 이어졌었다.

기념 행사장에서의 일화 하나로 그 분위기를 어느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소개하면 학창시절 천리길을 내다보는 매혹적인 눈매에 우리 고향 뒷동산 만한 앞가슴을 가졌던 캘리포니아에서 참석한 이해련 여사 동문은 파티복을 21세기에 맞도록 양쪽 허리와 그 부분에 가까운 등이 터진 복장에 눈부신 비단같은 살이 드러나 보니까 옛날의 그녀를 무척 좋아하였던(?) 양정강 동문이 찾아가서 그 부분을 두루 만지면서 "살은 가려야지" 하니까 이 여사 왈 "왜 만져요, 왜. 사람들 앞에서?" 양 동문의 답인즉, "만져보기 좋게 벌여졌으니까 좀 만져보기로시니..." 그래서 모두가 폭소로 그 분위기는 다양한 색채의 고무풍선처럼 동동 떠다다. 바이올린, 피아노 4중주, 그리고 열정적인 박용학 동문의 서투른 박자의 색소폰 독주가 인상적이었다.

기념 행사 프로그램에 "격려사와 대답"을 하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서 보니 앞



동기회 40주년 기념식에서 德談을 하는 필자

존경하며 항상 그리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6기 동기생과 배우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졸업 40주년 행사 모임에 여러분 앞에서 "격려사 및 덕담"을 하게됨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서로 나누어 쓰고자 얼마디로 나누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蘇鎮文은 美國 中西部 시카고에서 여러동기생들과 가족분들을 뵈고자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7,061mile (11,297.6km)을 날아와 人事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치과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Dentistry)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성대하고 뜻있는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주선하느라 많은 노력을 해오신 회장 최광철동문, Golf 대회 위원장 정해구 동문, 11행위원장 김진규 동문, 총무 이규철 동문, 재무 권혁춘 동문, 섭외 박태원 동문, 부산의 이석행 동문, Los Angles의 이영주 동문 등 여러 임원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본인을 등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히 안내해 준 양정강 동문께도 크게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치과의사로서 특수 profession으로 사회생활을 멋있게 활발하게 해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의 중심지이며 변화한 중로구 소공동에 母校가 있었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은사님들이 계셨고, 우리 동문들이 한 학교 한 교실에서 동고동락하며 서로 돕는 학창생활을 잘 보낸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타계한 동문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참할 수 없는 동문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보고 싶은 동문들입니다.

□우리는 교문을 떠난 후 국내 외에 흩어져 살아오고 있지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6기 동기생이란 한 울타리속에 따끈한 정을 담백 갖고 있는 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에 비하면 오늘의 이 모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귀하고 뜻깊은 순간들의 연결이니 우리 모두가 기쁨 속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훗날 귀한 재산으로 간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과거 속에서 오늘을 찾았습니다.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주 모이면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美東部에서 여러 동문님들께 특별 人事를 갖고 왔습니다. 위스칸신 大學校의 김병욱 교수, 인디애나 大學校의 박기철 교수, 또 개업의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시카고의 윤석환 선생, 한효경 선생, 그리고 오하이오 주 Youngstown의 정광현 선생 모두 건재합니다. 그리고 덴버, 콜로라도의 표한승 선생도 여러 동문님들께 안부전합니다.

끝으로 소공동 학창생활 4년 동안 부끄럼 속에 수줍었고 또 여드름도 많았던 우리 남학생들에게 항상 기쁨과 보살핌을 베풀었던 6명의 女傑들 이름들을 다같이 불러보십시오. 순서는 무순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이유자 여사, 최영희 여사, 정희영 여사, 윤종숙 여사, 문민력 여사, 그리고 이해련 여사.

여결 6총사의 그 당시 별명은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五福(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을 거의 다 지닌 여러 동문들의 끊임없는 발전, 행복, 그리고 건강을 바라면서 다음에 다시 뵈을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진문

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왔고 화려하게 치장한 사모님들이 무척 우아하게 보였다. 영감 잘 만나서 이처럼 찬란한 행사장까지 올 수 있었다는 표정이 얼굴에 뚜렷하게 그려져 있었다.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모님들에게는 우리 친구 잘 키워주고 아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다.

전에 등산이라고 해본 것은 40여년 전 일이었다. 이번엔 양정강 동문의 특별 안내로 9월 28일 오전 기념행사 등산팀에 가담하여 Sharon-Walker Hill 뒤편에 바로 인접한 "아차산"을 일행을 따라 등산대장 김진규 동문의 안내심 많은 충정도의 구수함과 그 마나님은 피피리 같은 음성의 서울표준말을 쓰며 40년 이상을 서울에서 살면서도 버리지 못한 사투리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안내로 해발 200미터인 정상에 정복하였다. 동쪽으로는 '하남시'라는 신도시가 여기저기 웅기종기 얽은 성냥갑을 세워놓은 듯한 모습으로 아파트 빌딩들이 눈앞에 나타났고, 서쪽으로는 그 큰 서울시내가 손바닥만하게 보이며 그 속에 서울대학교 본부가 위치한 관악산 인왕산, 북악산, 청와대, 63빌딩, 남산, 올림픽공원, 한강, 수많은 한강교들, 그리고 아득한 먼 옛날에 날 건너쳐버린 그 여인과 산책하던 덕수궁 돌담 등이 내려다보인다. 쾌청한 날씨는 가슴이 몇 인치는 넓어지는 기분이었다. 점심은 下山후 등산 코스 입구에 즐비한 식당 중 서울에서 "수제비"를 제일 잘한다는 산뜻하고 깨끗하게 장식된 밥집에서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된 한 그릇에 4000원(\$3.30)짜리로 한국 고유의 술, "소주"를 곁들여 옛날 6·25때 가난해서 살기 위하여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음식을 별미로 먹으며 조국 현대인의 식생활이 변해도 크게 변했음을 실감했다.

同期會와 동기생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싸준 귀한 선물들을 챙기면서, "이런 풍성하고 끈끈한 정이 모국 대한민국 외에도 또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2년 후에 42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면, 그 때는 삼십수년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와 "런던"을 거쳐 "시카고"로 거처를 옮기며 가정주부, 현모와 양처(?)로 가정의 평화와 웃음을 유지하며, 시카고에서 4년제 대학학부를 무사히 마치고, 아직도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 대학병원에서 천직인 전문직 Full time 간호사로서 주 공무원 신분으로 봉직해오는 직사, 이덕의, 키는 계속 작아지면서도 몸은 앞뒤 좌우로만 퍼지며 하루하루 잔소리가 늘어나는 그 마님을 잘 설득하여 함께 참석하여서 반세기동안 같은 직업인으로 거친 풍파의 세상을 현명하게 헤쳐가는 나의 귀한 친구 부부들과 인생의 성숙함을 서로 나누며 아쉬움 없이 멋지게 함께 어울려봐주지 하면서 "My kind of town, Chicago"로 10월 3일 무사히 돌아왔다.



### 남가주 소식

# 남가주 동창회 웹사이트 기금모금 만찬 1만6천불 모금

남가주 동창회 웹사이트  
www.snua.net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낙균)가 주최한 동문회 웹사이트 기금모금 만찬회가 8일 오후 6시30분 LA한인타운 라서울가든(100 S. Western Ave., L.A., CA 90004)에서 열렸는데 2002년 광년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동문가족 2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날 인사말에서 임낙균 회장은 "한 해 동안 애써준 동문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동문회 웹사이트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갖게됐다"며 "6개월간 준비한 웹사이트를 공개해 동문들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신규 동문의 동창회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는 참석자들의 만찬, 2부에는 웹사이트 설명회를 金知榮(사대 69년입, 총무국장) 동문이 하였고, 3부 여흥순서에는 가수 장 현과 그레이스 리가 출연하여 이영혜(諸永惠, 가정대 72입) 동문의 사회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번 행사로 \$16,000의 기금이 모금되었다.

동창회 웹사이트 주소는 www.snua.net 이며 단과대, 학년별 모임 및 동문사랑방과 동문동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웹사이트 상담 전문가 초빙

남가주 동창회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동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문분야별로 상담자를 초빙하고자 하니 각 단과대학 동창회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동문들의 상담에 응할 전문가를 2명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213-999-5911 백옥자 사업국장).



새로 개설된 남가주동창회 웹사이트의 전자영상기술에 魅了된 동문들, 왼쪽부터 김지영, 임낙균, 안경순 이 신원 미상, 조무상, 심상은, 백옥자등문 <사진제공 남가주 한국일보>



웹사이트 기금모금 만찬장에서 동문들 기념촬영. 사진좌로부터 김지영(사대 69년입, 총무국장), 서영석(의대 55년입), 김건진(문리대 62년입, 문리대 동창회장), 오홍조(치대 56년입,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방석훈(농대 55년입), 임낙균(약대 64년입, 남가주 동창회장), 최추봉(대학원동창회장), 백옥자(음대 75년졸, 사업국장) <사진제공 남가주 중앙일보>

## 남가주 총동창회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동문들이 모여 앉아 곱방대 피우며 옛이야기나 하는 사랑방식 동문회 시대가 지났습니다. 요즘 세대의 "사랑방"은 인터넷 게시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가주 총동창회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에 널찍한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우선 동문 여러분들 자주 들리셔서 재미있는 사이버 사랑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2000여 남가주 동문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 그리고 모국, 전세계에 있는 동문들을 아무 때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옛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이야기의 바다가 있습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웹사이트를 21세기 선진형 동창회 운영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 조그만 시작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남가주 동문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전미주 그리고 전세계 동문들의 중심점이 되는 훌륭한 인터넷 사랑방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 동문들이 자주 찾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초창기부터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선배님들을 웹사이트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원

로 선배님들의 경험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동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SNUAA가 들어가는 이메일 주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문들의 귀중한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칼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누고 싶은 정겨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코너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 연락이 안되는 동문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들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2년도 회장단은 이 웹사이트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동창회 사업으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주신 동문들을 소개합니다. 조무상 동문은 웹사이트 서버를 구축하고 골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유석 동문은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나철삼, 김지영, 백옥자, 정연진 등 여러 동문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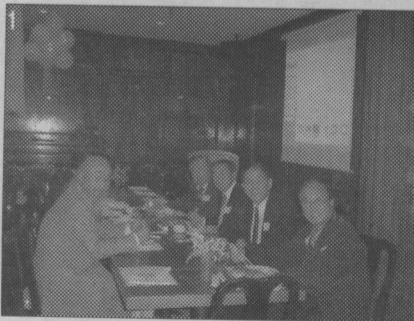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임낙균

### 총동창회 신년 이사회 공고

2003년 1월 18일 (토) 오후 6시 30분  
장소 : J. J. Grand Hotel  
620 S. Harvard Blvd. L.A. CA 90005  
(전화) 213-383-3000

### 총동창회 신년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

2003년 2월 1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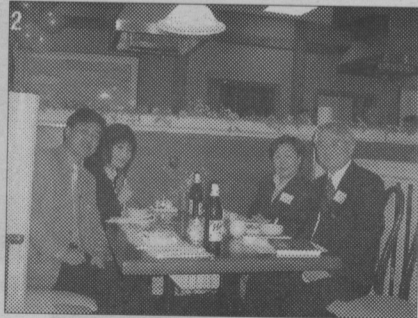


<사진>①왼쪽부터 김광철(음대 부회장), 장동호(공대 17대회장), 이봉수(수의대 부회장), 심상은(상대 회장), 임종문(약대 14대회장)

② 왼쪽부터 양민(공대, 관악위원장), Mrs. 양민, 정황 부부(공대회장)

③ website 기금모금 만찬장(왼쪽 Mrs. 오홍조, Mrs. 김건진)

④왼쪽부터 서영석(의대 25대회장), 권봉성(문리대 부회장), 박양중(문리대 감사), 오홍조(치대 24대회장), 김건진(문리대 회장), 방석훈(농대 23대회장)



라서울가든 website 기금모금장에서. 왼쪽부터 홍옥자(운영위원장), 정원훈(9대회장), 오형원(12대회장), 이기준(7대회장), 임낙균(현회장), 이영혜(가정대)

# 뉴욕지구 소식

## 뉴욕지구 총동창회 이사회 소집공고

각 단과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문안 드립니다.  
2002년도 연말 파티 준비와 더불어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리고 동창회 발전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오니 다방한 중이오나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일 : 2002년 11월 22일(금)

오후 7:00 장소 : 금강산 식당 지하 회의실(138-2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el:718-461-0909)  
서울대학교 뉴욕지구 동창회 회장 김종을 이사장 노용민

## 뉴욕지구 총동창회 송년회 공고

2002년 12월 28일 (토) 저녁 7시, 대원(NJ)

2002년 이 해도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동문이 모여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자 송년 파티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부부 동반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자랑스런 동문들이 서로 도와 나가

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시일 : 2002년 12월 28일(토)  
장소 : The Palisadium , 700 Palisadium Drive, Clifton, NJ 07010, 전화 : 201-886-9207  
회비 : 일인당 \$100, 부부 \$200



뉴욕지구 동창회 회장 金鍾律(사대 55년졸 사진 左) (914-714-0587)

이사장 盧鎔璽(의대 55년졸 사진 右) (914-738-4511)

# 하트랜드 소식

## 2002 년 제 6 회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2002년 9월28일

2002년도 제 6차 서울대학교 하트랜드 지구 동창회(회장 李相文, 사대 61년졸)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이 미조리주 Kansas City 의 The Westin Crown Center Hotel에서 9월 28일 40여명의 동

문 및 가족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 는 이 상문 지구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창회 집행부의 재무보고 및 올해 및 내년 행사 계획을 동창회 지구 총무인 이 준기 동문

회(81인)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정 중건 교수 (Nebraska 대학)가 "9-11 사태와 北韓" 이라는 연제로 특별강연을 하여 많은 동문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정기총회에 이어 있던 만찬 후에는 장 명우 동문(치 83입)의 재미있는 사회로 동문들의 재치 및 장기를 선보이는 여흥도 마련하였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창회장배 골프 대회도 있었다.  
<투고자 장명우 동문>

## 하트랜드 동창회 골프대회 그랜드 챔피언에 장명우 동문

하트랜드 동창회는 9월 28일 오전 정기 총회에 앞서 Kansas 소재 Heritage Park Golf Course 에서 동문 골프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 대회에는 동문들과 친지들이 30 여명정도 참석하여 서로간의 우애를 다지는 친교의 장이 되었는데 대회가 끝난 후 정기총회 석상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한 동문과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Grand 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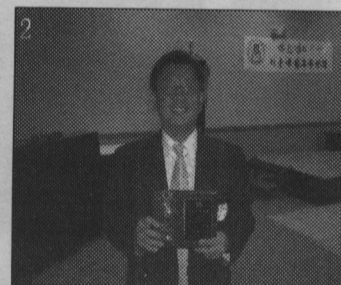
hampion 장 명우(치 83입 사진 2), ◇Gross Champion 배 규영 (사 68입, 사진3의 왼쪽), ◇남자부 1등 이 치현(약 77 입), 2등 김 계윤, ◇여자부 1등 Mrs 김 규태, 2등 Mrs. 김 호원, ◇남자부 장타상 민 중식 (상 56 입), ◇여자부 장타상 Mrs. 김 계윤, ◇근접상 이 상문(상 57 입)



이 상문 회장의 인사



북한관계 특강을 하는 정 중건 교수



동문 및 가족 골프대회에서 배 규태, 이 재명, 민 중식, 이 상문 동문 기념촬영



참석동문 및 가족들의 기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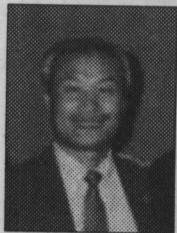
## 2002 년도 동창회 장학금 3명 지급

하트랜드 동창회는 9 월 28 일 정기총회에서 2002 년 장학금 수혜자들을 초청해 저녁 식사와 함께 시상식을 가졌다. 하트랜드 지구부는 매년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금년

의 수상자로는 Suzie Ahn ( Pre-Med, University of Iowa), David Jungsuck Kim ( Northwestern University) 및 Jin-Jung Oh ( Graduate School of Oklahoma) 이다.

### 조지아 소식

#### 조지아 동창회 送年會



일시: 12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한우리 식당

조지아 동창회 (회장 김재철(사진), 공대 69년졸)는 송년회를 12월 7일(토) 오후 7시에 한우리 식당에서 개최하니 전체 동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 북텍사스 동창회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2002년도 북텍사스 동창회 친선골프대회가 지난 10월 26일(토) L.B. Houston에서 오후 1시에 티업을 했습니다. 전주인 19일에 雨天 관계로 26일로 연기되어 모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대회를 하게 되었으며 오후 5시 30분에는 남강 식당에서 시상식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친선골프대회에 참석한 동창분과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도 서울대 동창회 친선골프대회 대진표>

- 1조: 하중수(52 기계과), 이준(73 건축과), 민동식(70 농학과)
- 2조: 이윤근(59 영문과), 김홍우(59 토목과), 김영희(김홍우 부인), 호요철(83 전자과)
- 3조: 정철웅(55 의학과), 임성빈(56 공대), 이병규(57 약학과), 이석호(78 농학과)
- 4조: 김종원(60 의학과), 조광영(82 약학과), 한일환(조광영 가족), 강성호(81 수의과)

<시상내용 및 시상자 명단>

- 1등: 4조 2등: 2조 3등: 1조 4등: 3조
- 장타상: 이석호(11번 Hall)
- 근접상(All par 3 Hall): 민동식, 이윤근, 정철웅, 임성빈

### 달라스 소식

#### 북텍사스 동창회 送年會

북텍사스 동창회(회장 李秉規, 약대 61년졸)는 송년총회를 아래와 같이 갖으니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이번 송년 총회에는 신임 회장 선출, 그간 동창회를 위하여 수고한 세분의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서울대학교 북텍사스 동창회 대상(참여, 협력 및 영광부문)을 수여하게 됩니다. 또 최취기 동문을 연사로 모시고 특별교양 강연을 갖게되며 이어 송년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시간: 2002년 12월 8일  
오후 5시 30분

장소: Omni Dallas Hotel

- 북텍사스 동창회
- ◇회장 이병규(약대 57년입) (fax 817-416-2791)
- ◇부회장 이광훈(음대 84년입), 강성호(수의대 81년입)
- ◇총무 최연(공대 전기과 70년입), ◇서기 유영준(공대 전기과 86년입),
- ◇재무 정혜진(인문대 독문과 86년입)

▶송년의 밤 순서  
등록: 오후 5시 30분 입장  
완료: 5시 50분

- 제 1부: 세미나 (6:00) 특강연사 최취기(61 원자력공학)
- 제 2부: 만찬 및 총회 (6:30) 만찬기도- 방덕수 목사
- 총회-1) 개회선언 2) 이병규 회장인사 3) 경과보고- 최연 총무 4) 결산보고-정혜진 재무 5) 2003년도 회장선임 및 인사 6) 폐회선언
- 제 3부: 송년 음악회 (8:00)

<출연자>▶테너-마광일/반주-마유정 ▶피아노-전미영 ▶테너-윤길웅/반주-이화정▶특별출연-Dallas Youth Soloists Ensemble ▶지휘 조익현(음대 작곡과 82년입)▶반주 이화정(음대 기악과 76년입)

校歌제창

#### 북텍사스 동창회 大賞 수상자 선정

조익현 · 문인선 · 김정환 同門

동창회는 이번 송년 총회를 맞이하여 그간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한 세분의 동문들에게 북텍사스 동창회 대상을 아래와 같이 수여하게 되었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참여상: 조익현 (1982 음대 입) / 협력상: 문인선(1959 음대 입) / 영광상: 김정환(1969년 문리대 입)

### 밴쿠버 소식

####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冠岳賞 수상자 최순모(의대 49)동문 · 황성일 변호사

12월 8일(일) 오후 5시-11시

어느덧 2002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지부의 2002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울러 이날 관악상 수상식 및 장학금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며 경품추첨을 포함한 여흥이 있으므로 많은 동문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시: 2002년 12월 8일(일) 오후 5시-11시  
▶장소: Executive Plaza Hotel, Aspen-Birch Room(호

텔 2층)

405 North Road, Coquitlam 전화: 604-936-9399

▶회비: \$35 (1인당)  
▶상품 및 경품: \$500 이상 상당액의 1등, 2등 경품과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지부 회장 황태구 604-433-8539/ 부회장 유동성 604-435-8937/ 재무 겸 총무 박병우 604-420-7034  
▶참석여부 및 통보 요망: 행사 준비와 음식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 필라델피아 소식

#### 필라 추계골프대회 및 특별 강연 개최 골프대회 메달리스트 강영배 동문, 특별강연연사 전방남 동문



필라지역 동창회(회장 김용식, 약대 70년졸)는 필라 동창회 추계골프대회와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골프대회는 총 21명의 동문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골프 대회 후에 열린 특별강연에는 전방남 동문(상대 77년졸, Drexel 경제학 교수)이 한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동문(문리대 69년졸), 근접상에는 양 운택(의대 64년졸) 동문이 영예의 상을 받았으며 여성부문에 최 숙자, 정 한희, 양 강자, Mrs. 김 국간, Mrs. 이 만택 여사들이 참여하여 평소언마한 기량을 겨루었다. 이어서 저녁에는 자리를 옮겨 영빈관에서 시상식과 전 방남 교수로부터 한국 경제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

연이 있었다. 40여명의 필라동창회 理事와 동문가족들이 참석하여 현재의 한국경제에 관한 초미한 관심을 보여주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투고자 신영근 동문)



지난 10월 12일 며칠간 계속되던 비도 그치고 기대하던 골프대회를 Cheltenham 소재 Asbourne Country Club에서 제갈은 동문의 주선으로 가질 수 있었다. 참석한 동문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하며 한고비 지난 더위를 뒤로하고 가을의 문턱에서 상쾌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이날 수상자는 Medalist에는 강영배 동문(수의대 63년졸, 제 16대 동창회장), 장타상에는 최 현태

<사진설명>

사진①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용식회장 ② 골프대회 메달리스트 강영배 동문 ③ 특강연사 전방남동문

#### 제 17대 필라 동창회 임원진

서울대학교 필라델피아 동창회 회장: 金裕植(약대 70년졸)  
부회장: 김국간(수석), 조영일, 이지영  
임원: 변국환, 신영근, 여종석, 이진화, 황선희  
감사: 김세경

#### 밴쿠버 동창회비 납부요망

현재까지 동창회 연회비, 전조금 및 장학금을 납부해 주신 여러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창회의 모든 운영은 여러 동문들께서 납부하시는 연회비와 전조금이 기본적인 재정수입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동문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곧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지부의 성장과 활성화에 직결된다는 점을 사려하시어 금년도 동창회비 및 전조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SNU Alumni Association, Vancouver P.O. Box 3045, Vancouver Main Post Office Vancouver, BC, V6B 3X5  
▶수표 수취인: SNU Alumni Association



위해 사전에 참석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참석여부를 임원진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DC 소식

## 동창회 이사회

### 선준영 유엔대사 초청 北韓核 현안 특강

워싱턴 지역 서울대 동창회(회장 李英默, 공대 63년졸)는 2일 저녁 에난데일 소재 아니 토탈웨딩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자선



선준영 동문의 특강을 듣고 있는 워싱턴 동문들

음악회, 뉴스레터 발행 등 23대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 유엔대사 宣俊英 동문(법대 62년졸) 초청강연을 들었다.

강웅조 목사의 기도에 이어 김국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이영목 회장은 ▶연말 파티 ▶뉴스레터 발행 ▶골프대회 ▶자선음악회 ▶장학사업 등을 골자로 한 2만 5천 6백달러 예산의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연말파티는 12월 15일 아니 토탈웨딩에서, 재워싱턴 음대동문들이 주축이 된 자선음악회는 내

년 여름, 골프대회는 내년 5월로 예정됐다.

지난 8월 있었던 자선 음악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평화나눔공동체의 최상진 목사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사업심의회에 앞서 이회장은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소식지를 통해 동문들의 친화를 더 깊이 하

겠다"고 인사말을 했고 박평일 상임부회장은 오인환, 곽태조, 김국 부회장, 유홍렬 총무 등 신입 임원진을 이사들에게 소개했다.

홍인회 동문의 소개로 강연에 나선 선준영 유엔대사는 UN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 정착 추진방향을 주제로 30여분간 외교현안을 들려줬다.

유엔에서의 한국외교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강연을 시작한 선대사는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적 고립상황, 햇볕정책의 성과, 당면한 북핵문제, 한미 동맹관계 유지

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동문들에게 주위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反美감정에 대해 본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국제통상 전문가인 선 대사는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연수, 주미대사관 3등서기관(69년), 경제공사(86년) 재직을 통해 워싱턴에서 근무한 바 있다.

가족을 포함, 80여명이 함께 이날 이사회는 리셉션과 식사시간 내내 특별연주를 들려준 곽태조(플룻), 함송례(피아노)씨, 교가 선창을 맡은 양춘희(소프라노)씨 등 음대 동문들의 수고로 모임의 격을 높인 자리였다.



특별강연을 한 선준영 동문(법대 62년졸, 주 UN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이영목 회장(사진 왼쪽)



평화·나눔 공동체의 최상진 목사(의족사건)가 이영목 회장에게 모교원대 연수의 자선공연으로 공동체를 지원한 워싱턴 지역 동창회에 감사패를 전달

## 워싱턴지역 동창회 송년회

2002년 12월 15일 오후 6시

동문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지역 동창회 2002년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가족 동반하여 모두 참석하여 나눔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李英默(공대 63년졸 배상) 상임부회장 朴平一(농대 69년입) 부회장 吳仁煥(문리대 63년입)/ 郭泰祚(음대 64년입)/ 金國(농대 72년입)

총무 유홍렬(자연대 75년입) 아 래  
 일시: 2002년 12월 15일 오후 6시  
 장소: 아니 토탈 웨딩홀 (7203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  
 전화: 703-916-0369  
 회비: \$40 (단, 유학생과 직계자녀 \$20)  
 특기사항: 젊은 동문의 참석을 위해서 베이비시터가 준비되어 있으며, 음대동문들이 대거 출연하는 1시간여의 여흥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뉴잉글랜드 동창회 장학생 선발공고

뉴잉글랜드 지역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2003년도 장학생을 아래의 요강에 따라 선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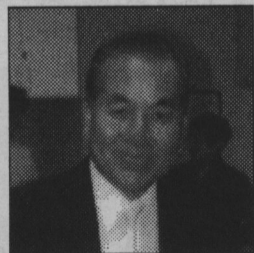
- 모집인원: 4명
- 장학금액: 개인당 \$500.00
- 지원자격: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계 대학원학 예정자 및 대학 또는 대학원 학생(유학생 포함)
- 지원서류:
  - 지원서 1통 (지원서 용지는 www.snua.org에서download가능)
  - 추천서 1통 (소속학교 교수와 본대학 동창회원으로부터 각 1통)
  - 성적 증명서
  - 한글 또는 영문 Essay

선발규정: 경제적인 도움 필요 여건과 학업성적 참조  
 지원마감: 2002년 12월 31일(sharp)  
 서류제출처: Byong-le Han  
 584 Walden St. Concord, MA 01742  
 E-mail: benedict\_han@hms.harvard.edu  
 Tel: 978-371-722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과 심사내용은 영원히 비밀입니다. 장학금은 2003년 1월 18일로 예정된 본 동창회 총회 식장에서 지급합니다. 뉴잉글랜드 서울대학교 동창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병의

## 워싱턴 DC 동문 주소록을 발간하며

재미 워싱턴 지역(VA, MD, DC)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1978년 6월 19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02년 5월 현재 22대 회장을 거치면서 23년이 되어가고, 지난 1994년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원 명부(Directory)가 나온 후 만 8년만에 개정판이 발간되게 되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2대회장 진금섭동문



새로발간된 워싱턴 동문 주소록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워싱턴 지역(Great

Washington)은 미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인 명실 공히 Capital(首都)이란 지역 특수성 때문에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지부 뿐만 아니라 재외 서울대학교 동창회지부 중에서 더욱 더 동문 상호간에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여러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

포 사회에 공헌을 하며 그 힘을 모

아 모교 발전에 기하자는 취지에서 본 동창회 발간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동창회 주소록 발간은 이민 생활에 자주 이사를 가고, 오고 해서 동문들의 근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또는 아직도 워싱턴 지역의 서울대 동창회에 참여하지 못한 동문들을 발굴하여 워싱턴 지역에 사는 모든 서울대 동문들의 현 주소를 알림으로, 동문들 상호간의 친목을 뛰어 넘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살찐 삶을 영위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의 선진화 작업에 큰 공헌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재미 워싱턴 지역 동창명부가 발간되기까지 기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각 단과 대학 동창회 회장님들과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광고주 동문님들과 그리고 직접 제작에 관계한 김주희 부회장(공대 71년입)과 여러 임원들의 노고

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역대 회장단들과 본인과 함께 수고하신 단과대학 회장님들과 본부임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02년 7월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제 22대 동창회장 진금섭 (KeumSeop Chin, Ph.D)

### ▶역대 회장단

- 1대-조성윤(법대) 2대-전병규(의대) 3대-김정현(문리대)
- 4대-김옥동(공대) 5대-김부근(의대) 6대-변만식(사대)
- 7대-방은호(약대) 8대-이영재(치대) 9대-목사균(농대)
- 10대-백순(법대) 11대-박윤수(문리대) 12대-강연식(사대)
- 13대-유훈(공대) 14대-이항렬(법대) 15대-이종국(의대)
- 16대-오태환(약대) 17대-이한봉(치대) 18대-정유상(상대)
- 19대-한의생(수의대) 20대-이

- 내원(사대) 21대-문성길(의대)
- 22대-진금섭(약대)
- ▶단과대학 회장단
- 간호대-백옥희(301-963-0991)
- 농대-박평일(703-830-6390)
- 미대-이정균(410-418-4640)사대-강순임(703-631-4267)
- 수의대-이용훈(540-961-4267)
- 음대-곽태조(703-354-8126)
- 치대-이한봉(301-469-0833)공대-장효강(301-294-8883)
- 문리대-오인환(301-590-0858)
- 법대-박상근(703-425-9390)
- 상대-이문환(410-583-1437)약대-박용걸(703-759-7920)
- 의대-이선택(703-241-2282)
- ▶22대 집행부 임원명단
- 회장-진금섭(약대), 상임부회장-이영목(공대), 부회장-박평일(농대)
- 부회장-김주희(공대), 부회장-박상근(법대), 총무-김국(농대)
- 재무-진학송(약대), 감사-서장수(사회대)

# 시카고 소식

## 4차 임원회의 개최 (11월 2일 황치용 부회장 대)

## 시카고 동창회 2002년도 장학생 5명 선정

시카고 지역동창회 장학생 선발 위원회(위원장 한재은)는 지난 11월 2일에 모임을 갖고 다음 5명을 2002년도 시카고 지역동창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 날 열린 4차 임원회의(황치용 부회장(사진) 대)에서 발표하였는데 장학금 액수는 1인당 \$1,000 이고, 오는 11월 30일에 시카고 지역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강석민(Univ. of Chicago Graduate School, Psychology) ▶고대웅(Univ. of Chicago Graduate School, 聯

computer Science) ▶김세영(US Military Academy, International Diplomacy) ▶이선영(Univ. of Chicago Graduate School, Public Policy) ▶양범모(Wheaton College, Music education)

### 치과대학 동문회 소식

## 제 25회 Korean-American Health Fair에 참여

지난 10월 12일(토) Swedish Covenant Hospital 에서 한인복지회 주최로 시카고 한인 간호사회, 약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의사부인회, 자원봉사자들과 한미방송 등의 공동으로 제 25회 Korean-American Health Fair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 치대 동문회(회장 서승환, 치대 61년졸)와 시카고 한인 치과의사회(회장 이철주, 치대 61년입)가 공동으로 미리 등록된 550여명의 환자를 위한 구강보건 상담을 하였고 준비한 치약, 칫솔을 상담시에 배부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행사에 서울치대 졸업생 4명을 포함한 5명의 치과의사와 6명의 시카고 일리노이 치과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였다.

고 한인 치과의사회(회장 이철주, 치대 61년입)가 공동으로 미리 등록된 550여명의 환자를 위한 구강보건 상담을 하였고 준비한 치약, 칫솔을 상담시에 배부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행사에 서울치대 졸업생 4명을 포함한 5명의 치과의사와 6명의 시카고 일리노이 치과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석하였다.



앞줄 왼쪽부터 소진문(치대 62년졸, 시카고 한인치과회 명예회장), 서승환(치대 61년졸, 서울대 치과대학 동창회 회장) 뒷줄 왼쪽부터 이철주(치대 61년입, 시카고 한인 치과의사회 회장), 채동훈(UIC 치대 4학년), 윤혁준(UIC 치대 3학년, 임근식(문리대 56입)의 조카), 한준환(UIC 치대 3학년, 부친(한홍의, 문리대 59년입), 모친(천근자, 치대 67년졸)), 소미영(UIC 치대 3학년, 소진문(치대 62년졸)의 딸), 이수모(UIC 치대 4학년), 백혜원(UIC 대학원생 예정자, 백광우(치대 84졸)의 딸), 김용현(시카고 한인치과 의사회 총무), 하정운(치대 87졸, 서울대 시카고 치과대학 동창회 재무)

### 배중면박사 과기원교수로 부임



(KAIST)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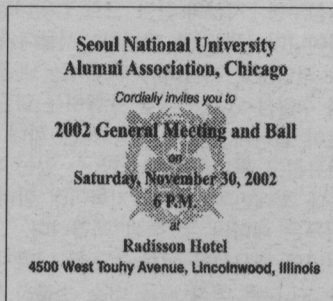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던 배중면 박사(공대 85입학)는 11월 말로 사직하고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게 되었

다. 그는 연구해온 전문분야인 Fuel Cell Research를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계속 연구할 계획이다. 배동문은 Fuel Processor를 위한 Autothermal Reforming Catalyst에 관한 연구로 R&D 100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재미동창회보 92호 1면 및 8면 참조). 배교수의 새주소는 아래와 같다.

Prof. Joong-Myeon Ba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AIST, Daejeon 305-701,  
South Korea  
e-mail: joongmyeonbae@yahoo.co.kr

##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10월 30일(토) 오후 6시



시카고 지역동창회는 2002년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2002년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레디슨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 날 총회에서는 만찬에 이어 신규 회장의 이취임식 후 동문가족들이 참여하는 무도회와 여흥으로 동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할 예정이다. 전체 동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옆 광고 참조).

## 2002년 동창회총회 및 송년회

저물어 가는 2002년을 정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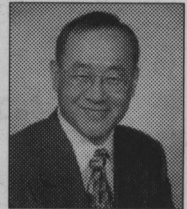
계획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친애하는 동문들을 모시고 뜻있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아래와 같은 좋은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부부동반 참석하시어 다시 한번 동창회 연례 총회와

연말 파티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2년 11월 30일(토요일) 오후 6시
- ▶장소: Radisson Hotel  
4500 West Touhy Ave, Lincolnwood, IL  
847-677-1234
- ▶회비: 일인당 \$65 (학생동문은 일인당 \$20)
- ▶연락처: 황치용 부회장 847-895-2814  
김동휘 부회장 630-655-2320  
장기남 수석 부회장 630-321-1943  
김영 재무 630-655-2320  
이승자 총무 847-564-5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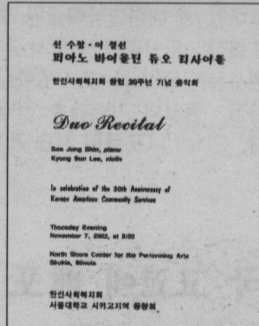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시카고지역 동창회  
회장 한재은 올림

## 신수정 · 이경선 동문 피아노 바이올린 협연 성황리에 개최

###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시카고 한인사회복지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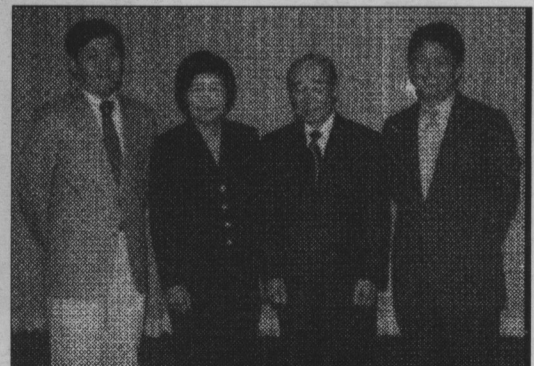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신수정 동문(음대 63년졸, 모교 음대 교수)과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동문(음대 88년 졸, Oblin 음대 교수)의 듀오 리사이틀이 지난 11월 7일 저녁 8시 시카고 북부 스코키에 위치한 North Shore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에서 550여명의 동문과 시카고 지역의 교민 및 음악애호가들이 연주장을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음악회의 연주곡은 베토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D 장조와 9번 A장조 "Krerutzer"를 두 동문이 함께 연주하고, 신수정 동문이 쇼팽의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in E-Flat Major(작품 22)를 연주하고, 이경선 동문이 YSAYE의 Sonata for Solo Violin(작품 27)중 제3번 "Ballade"를 연주하였다. 청중들은 불편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출연한 신수정 동문과 이경선 동문의 협연의 화음에 숨을 죽이고 심취하였으며, 한 곡씩 연주가 끝날 때 마다 열렬한 박수로 응답하였다. 동 음악회에는 이용락 서울대 미주총동창회장, 한재은 시카고지역 동창회장 등 많은 동창들이 부



부동반으로 참석하였으며 시카고 음대동창회(회장 김선영, 총무 이소정)는 연주자들에게 祝賀花環을 증정하였다.

이 음악회는 시카고지역동창회(회장 한재은)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카고 한인사회복지회(이사장 김진환, 사무총장 최인철, 창립

70주년기념행사 준비위원장 최선옥)와 공동 주최하였는데 이는 한인사회복지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카고지역동창회는 장기남 수석부회장(이 음악회 공동준비위원장)을 비롯하여 시카고 음대 동창회의 동문들이 수고하여 지역사회의 음악애호가들에게 수준 높은 서양 고전음악감상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그 수익금은 한인사회복지회의 사업 기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한인사회복지회는 1972년 3월 창설되어 시카고지역의 "한인사회복지회"로 출발하여 1994년 2월 "한인사회복지회"로 명칭을 바꾸어 韓人을 포함한 시카고 지역의 다인종 移民者 사회에 봉사하는 기구로 발전하고 있으며 초대 신현정 사무총장에 이어 1995년 9월부터 취임한 최인철 사무총장과 이사회(이사장 김진환)와 자문위원회의 수고로 현재 61명 이상의 多人種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시카고 일원의 이민사회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사회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왼쪽부터 최인철(복지회 사무총장) · 최선옥(준비위원장) · 김진환(이사장)씨의 장기남(시카고동창회 수석부회장 겸 음악회 공동위원장)

# 모교소식

## 개교 제56주년 기념식

###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3명 선정 鄭총장 “기초교육 강화 및 확충”



모교 개교 56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은, 모교 李壽成·李基俊전임 총장, 鄭雲燦 총장, 鄭明熙부총장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鄭雲燦총장은 「학교가 참된 지성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교육과 수월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열린 대학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학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활기차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활동의 주역인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 높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지원체제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과대학

#### 홍보책자 발간, 전국 고교에 배포

공과대학(학장 韓民九)이 이 공계를 기피하는 고교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었다.

공대는 「공대를 졸업해도 엔지니어뿐 아니라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내용의 홍보 책자 3천부를 제작,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 4백여 고교에 배포했다.

「내가 공과대학에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이 책자에서 공대는 「공대가 단순히 엔지니어 양성에 집중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尹鍾龍(66년부)부

본회 林光洙회장은 「모교 동문의 수가 20만을 넘고 저마다의 실력으로 국가의 요직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지구촌 어디에 가나 동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됐다」며 「조국 앞에, 민족 앞에 책임을 지는 서울대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서로 도우며 겸손하나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기념사 및 축사 요지 참조)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문대학 許昌雲교수 등 31명이 30년 근속표창, 기획실 李鐘萬교육행정사무원 등 1백2명이 20년 근속표창, 학사과 金寧燦주사보 등 54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제1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대한민국의학원 李鎬汪회장, 도서출판 민음사 朴孟浩사장, SK그룹 孫吉丞회장을 선정, 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프로필 2면 게재)

### 鄭雲燦총장 개교기념사 <요지>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서울대학교를 명실상부한 「지성의 전당」으로 키워나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서울대가 참된 지성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교육과 수월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열린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학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활기차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연구와 교육은 대학의 두 핵심 축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육이라는 또 다른 핵심 축을 다소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성과 덕성, 감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잘 길러내는 것 역시 연구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대학의 교육이 열린 마음을 가진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和而不同的 배움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사회와 학교에 봉사한 학생들을 위해 관악봉사상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과 관련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에 충실히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명확한 의사결정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학 구성원의 의사와 동떨어진 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과연 대학행정이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이뤄지는가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열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안의 의사결정 절차를 민주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형태로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 역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헤아려 현재 대학 안에 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굶은 일을 마다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민주화되고 발전한 배경에는 서울대학교 교수, 학생, 졸업생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있었다고 감히 자부해봅니다.

이제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만 대학의 사회봉사가 갖는 본질적 의미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다. 활발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빛을 밝히는 연구자 본연의 자세를 지키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위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점차 중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 서울대학교가 민족의 대학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자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林光洙회장 개교기념 축사 <요지>



尊敬하는 鄭雲燦 總長님, 母校 敎職員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歷代 總長님과 先後輩 同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在學生 여러분!  
오늘 이처럼

여러분과 함께 母校 開校 56周年을 맞는 기쁨과 感懷가 새삼스럽습니다.

50餘年前, 開校하던 그 瞬間부터 모진 思想의 葛藤과 政治的 風浪, 戰爭과 革命의 소용돌이를 겪었지만 우리 서울大의 創學精神인 「VERITAS LUX MEA」 眞理는 나의 빛은 그 光輝를 더욱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 有名無名의 많은 大學이 있지만 天下의 俊才들이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의 母校, 서울大學校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大 同門의 數가 20萬을 넘고 저마다의 實力으로 國家의 要職에서 없어서는 안될 人物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地球村 어디에 가나 同門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서울大人을 가르치고 키워준 Alma Mater, 즉 우리 母校의 德分이고, 또 敎職員 여러분의 勞苦의 結實이라 믿어 感謝드립니다.

오늘 開校 56周年을 맞이하는 祝典에 즈음하여 母校에서 「자랑스러운 서울大人」 세 분을 選定하

여 顯彰하는 일도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大韓民國 學術院 李鎬汪 會長은 自身の 雅號를 딴 「한탄 바이러스」를 發見하여 流行性 出血熱 豫防과 救濟事業에 貢獻하신 분이십니다. 膝下의 두 아들과 며느님도 母校 出身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圖書出版 民음社 朴孟浩 社長은 「오늘의 作家賞」과 「金洙暎 文學賞」을 制定하는 等人文學 發展에 크게 寄與하신 것으로 압니다. 朴 社長은 現在 佛語佛文學科 同窓會長을 맡고 있으며, 婦人과 膝下의 2男 1女도 모두 同門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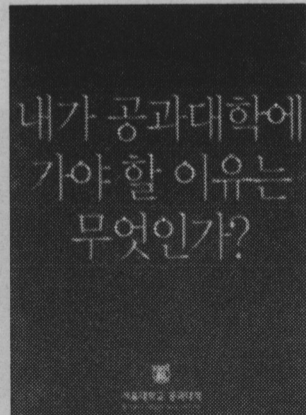
SK그룹 孫吉丞 會長은 뛰어난 經營力量은 勿論, 財界뿐만 아니라 社會 各界에 걸쳐 리더십을 發揮하고 있는 專門 經營人으로 文化藝術分野 振興에도 奉仕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總同窓會의 副會長이기도 해서 기쁨이 더해집니다.

李鎬汪 會長! 朴孟浩 社長! 孫吉丞 會長!  
그리고 勤續 功勞로 表彰을 받으신 敎職員 여러분에게 20萬 同門과 더불어 뜨거운 敬意를 표하며 慶賀해 마지않습니다.

敬愛하는 서울大人 여러분!  
總同窓會에서는 오는 10月 20日 日曜日, 開校 56周年 記念 Home Coming Day 行事의 一環으로 同門 家族들도 參與하는 서울大 家族 登山大會를 開催합니다. 天高馬肥의 든실한 季節, 冠岳山의 뛰어난 風光 속에서 젊은 날의 氣像을 살려 浩然之氣를 滿喫하시고 眞理探究와 母校發展의 큰 動力을 充電하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同窓會의 캐치프레이즈는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입니다. 祖國 앞에, 民族 앞에 責任을 지는 서울大人들 - 勇氣와 希望을 갖고 서로 도우며 謙遜하나 堂堂하게 앞을 向해 걸어 갑시다.

그리하여 서울大를 우리의 손으로 世界 속에 우뚝하게 바로 세웁시다. 感謝합니다.



회장, 휴맥스 卞大圭(83년부) 시장 등 공대 출신의 각 분야 리더들도 소개했다. (鎭)

대한민국 학술원 李鎬汪회장

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 최초 발견

李鎬汪동문은 1954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에서 미생물학으로 석·박사를 받았다. 1968년부터 한국에서 유행성출혈열의 연구를 시작한 李동문은 1976년 미국과 구소련, 일본, 유럽 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해 원인불명으로 알려진 유행성출혈열의 원인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개가를 일궈냈다. 이 원인바이러스를 자신의 號인 「한탄」을 따 「한탄바이러스」라 명명한 李동문은 1980년 두 번째의 원인바이러스를 찾아내 「서울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1989년에 예방백신까지 개발해 녹십자를 통해 예방백신인 「한타박스」를 시판하며 국민보건의 증진에 큰 이공표를 세웠다.

이는 세계과학사에 빛나는 업적이며 세계 모든 미생물학교과서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큰 업적이기에 1979년 미국 최고시민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李동문은 세계보건기구(WHO) 유행성출혈열



했다. 이 같은 공로로 대한민국학술원상, 국민훈장목련장, 태국 마히돌왕자상(Prince Mahidol Award), 일본 니케이 아시아상(Nikkei Asia Prize), 과학기술훈장(장조장)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제1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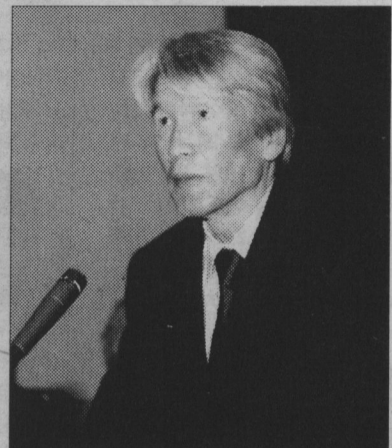
도서출판 민음사 朴孟浩사장

인문학 성장 이끈 출판문학회 거목

朴孟浩동문은 1957년 모교 문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인문학 서적 전문출판사인 민음사를 창립해 36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며 3천여 종의 단행본을 출간, 인문학의 활로를 개척한 출판문학계의 거목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문학전문 출판사를 표방하며 출범한 민음사는 젊은 번역자들과 「세계 시인선」 출간을 시작으로 1974년 「거대한 뿌리」(김수영 詩選), 「오늘의 시인총서」를 발간하여 자비출판이 주류를 이루던 시를 대중적 출판형태로 변혁했다. 오늘날 시집관행으로 불리는 작은 크기의 책자를 최초로 펴내기 시작한 것이다.

朴동문은 전도유망한 젊은 문인의 발굴에 관심을 기울였다. 1976년 계간지인 「세계의 문학」을 창간했고 1977년 「오늘의 작가상」을 제정해 이문열·한수산·박영한·趙星基(77년 法大卒)·강석경·최승기 등 젊은 시인과 소설가를 발



「황금가지」·「사이언스북스」 등 자회사들을 설립해 독서영역이 문학, 인문학 밖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포착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반지의 제왕」 등 대형 베스트셀러들이 그것이다. 朴동문은 최근 총 상금 1억원의

한국인 첫 美학술원 회원에 선출

연구협력센터 소장, WHO바이러스 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지구촌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5월 한국인 최초로 美학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의 외국인 회원으로 선출돼 활동을 하고 있다.

들쥐의 배설물을 통해 호흡기로 전염되는 유행성출혈열은 전 세계에 분포돼 있으며 매년 중국에서 20만명, 러시아 8천명, 한국에서도 약 2천명 정도 발생하는 질병이다. 미국은 원인규명을 위해 한국전쟁 당시 서울 독섬에 출혈열연구소를 세우고 1952년부터 1965년까지 2백여 명의 학자를 동원하고 4천만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성과 없이 포기하기도

받았다. 李동문은 古稀를 넘어섰음에도 현재 한탄생명과학재단 이사장, 제3세계 학술원 회원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73년까지 모교 의대 교수를 지내고 고려대 의대 교수·학장을 역임했다.

李동문은 「젊은 인재들도 많은데 내가 동문들에 의한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매우 기쁘다」며 「올해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를 두 명이나 배출했는데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모교 졸업생 중에서 반드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후학들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오늘의 작가상」 제정...문인 발굴

굴 육성했다. 1981년에는 「김수영 문학상」을 제정해 金光圭(64년 文理大卒)·황지우·李成敏(78년 人文大卒)·장정일 등 젊은 시인들에게 활발한 시적 활동의 터전을 마련했다. 1986년에는 「민음의 시」를 발간해 중견시인뿐만 아니라 첫 시집을 출간하는 젊은 시인들에게 출간의 기회를 제공했다. 1985년 「이데아총서」 출간을 시작으로 프랑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의 저술을 번역, 소개해 현대 프랑스 철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독자의 변화하는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출판사도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朴동문은

「올해의 논픽션상」을 제정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출판문화 신장을 위해 지대한 업적을 쌓은 朴동문은 국무총리상·대통령표창·대한민국 문화예술상·화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朴동문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식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출판계가 두뇌집단의 치열한 경쟁현장이 돼 가는 현실에서 선배들의 뒷받침과 도움이 있었기에 민음사가 40년 가까이 건재할 수 있었다」며 「출판계에 헌신하고 있는 동문 선배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SK그룹 孫吉丞회장

사회적 책임 강조하는 전문경영인

孫吉丞동문은 1963년 모교 상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선경직물 주식회사(현 SK 글로벌)에 입사한 후 37년간 SK의 성장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국내 기업지배구조에서 대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러리맨 출신으로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孫동문은 직장인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孫동문은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 열정을 쏟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일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SK텔레콤 인수 때는 낫할 때까지 12일 간을 밤낮 없이 강행군하며 인수 실무진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孫동문의 일에 대한 열정의 일화 하나가 있다.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 당시 경리과장이던 孫동문은 경리부 직원들과

함께 아직 불이 채 꺼지지 않은 건물에 맨 먼저 올라가 회사금고가 무사한지 확인했다고 한다.

孫동문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몸소 실천하고 있다.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이 정신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기업 사회 지도층이 사회에 기여해야 할 몫이 있다며 사회규범을 강조한다.

봉사정신으로 소의 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2001년 12월 CNBC Asia가 아시아 기업인 가운데 최고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한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Asian Business Leader Awards Honor Roll」을 수상하기도 했다. 예술문화의 진흥으로 기업인의 시각에서 「1기업 1문화 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1994년 모임이 만들어진 이후 계속해온 Mecenas(기업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활동을 한 차원 성숙시키자는 구호이며, 이 운동을 재계 전체에 확산시켜 문화예술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孫동문은 한국경영자대상·금탑산업훈장·한국 CEO 2년 연속 수상(대한상의&중앙일보) 등 각종 수상을 통해 기



본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孫동문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상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8년간 「1기업 1문화 운동」 주도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환경운동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등 孫동문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업경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동 정

수 상

▲黃東奎(61년 文理大卒·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지난 10월 4일 호암아트홀에서 제 2회 未堂 문학상을 수상함.

▲襄茂基(62년 商大卒·울산대 총장)= 지난 10월 11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21회 茶山경제학상을 수상함.

▲鄭興淑(63년 家政大卒·중앙대 교수·한국복식학회 회장)= 지난 10월 11일 중앙대 건학 84주년 기념 교육상을 수상함.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 지난 10월 9일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독일 정부로부터 「1등 십자공로훈장」을 받음.

▲朴淳永(65년 保大院卒·경희대 교수)= 지난 10월 25일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대한보건협회 제 27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에서 제16회 보건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함.

▲朴相哲(73년 醫大卒·모교 생화학교실 교수·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지난 10월 2일 잠실 올림픽공원 제 3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崔日南(75년 工大卒·한전기술 원자력사업 개발처장)= 지난 9월 6일 한국과학기술회에서 열린 제 8회 「원자력 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음.

▲李元燮(76년 社會大卒·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최근 서강대 언론대학원이 제정한 제1회 서강언론상을 수상함.

▲文國現(77년 經大院卒·유한김벌리 사장)= 지난 10월 5일 미시간주립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수여하는 「2002 글로벌 코리아賞」을 수상함.

▲權俊壽(84년 醫大卒·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 지난 10월 18일 대한정신약물학회가 수여하는 제 1회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상을 수상함. 또 24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45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수여하는 GSK학술상을 받음.

▲徐大憲(87년 醫大卒·모교 피부과학교실 교수)= 지난 10월 16~17일 웨라톤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제54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동아학술상을 수상함.

▲朴永淳(43기 ACAD·현대시멘트 상임감사)= 지난 10월 24일 대한투자신탁발령 한마음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수여하는 제3회 감사대상(개인부문)을 수상함.

▲李敬俊(50기 ACAD·KTF 사장)= 지난 10월 2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제2회 전파기술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음.

이동·선임

▲金辛煥(52년 文理大入·한국오페라진흥회 대표)= 지난 10월 7일 제2기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취임함.

▲韓完相(60년 文理大卒·前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지난 10월 15일 한성대 제4대 총장에 취임함.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 교수·신아세아질서연구회장·本會 副會長)= 지난 10월 17일 한림대 제5대 총장에 선임됨.

▲金錫鉉(62년 商大卒·前주이탈리아 대사)= 지난 10월 2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에 임명됨.

▲羅鍾一(63년 文理大卒·駐英대사)= 지난 10월 21일 영국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주최로 열린 「1974년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협약」(아테네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의장에 선출됨.

▲金信一(63년 師大卒·모교 교

편집주간식

Home Coming Day로 뜻깊게 치른 올해 등산대회

지난 10월 20일 열린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는 雨天으로 인해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대신 치렀습니다. 이날 특별히 모교 鄭雲燦총장께서 본 행사에 참여한 동문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모교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동문들의 진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모교 총장과 교직원에 대한 격려의 박수소리도 컸습니다. 실내에서 점심을 든 동문과 서울대 가족들은 변함없는 우의와 친목을 다지며 공연과 여흥, 그리고 경품추첨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雨天으로 불가피하게 실내에서 치러진 올해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동문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임대표에 선임됨.



에 취임함.



에 선출됨.



에 선임됨.

육학과 교수) = 최근 흥사단 대강당에서 열린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창립대회에서 초대

총장) = 지난 10월 2일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에 취임함.

총장) = 지난 10월 2일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에 취임함.

소아과학교실 교수) = 지난 10월 18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한면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충남대 교수) = 지난 9월 13일 충남대 자연과학대학장에 선임됨.



이사장에 임명됨.

한미은행 자금운용실장) = 지난 10월 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에 내정됨.

명지대 교수) = 지난 10월 25일 개관한 강원 양구군 朴壽根미술관의 명예관장에 위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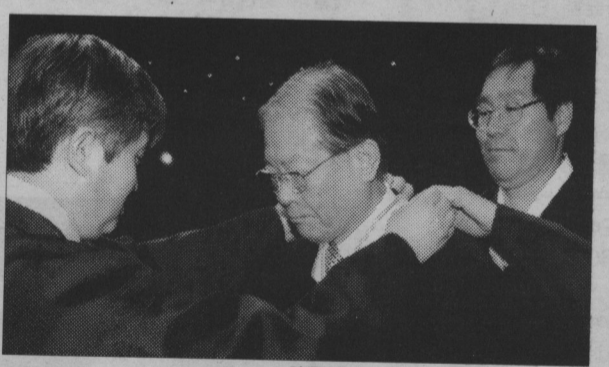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행사·출간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사회포럼 회장) = 지난 10월 24일 롯데호텔 필름에서 송실대 李中총장을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에 문화훈장 「문화의 날」 기념식서 동문 10명 수상



한국일보 조영호 기자 사진 제공.

문화관광부는 지난 10월 19일 「2002 문화의 날」 행사를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했다. 금년에는 10월 20일 문화의 날이 일요일임에 따라 토요일인 19일로 앞당겨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본회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보 상임고문·경원대 겸임교수) 상임부회장(사진 中)이 21년간 백상기념관장을 지내면서 출판·문화예술사업을 펼치며 전승가훈을 발굴하고 한국민화 재발견 등의 민족문화 창달 사업을 전개한 공로로 寶冠 문화훈장을 받았다. 한편 閔庚甲(57년 美大卒·동양문화재단 이사장)·李秀洪(59년 文理大卒·전국문화위원

합회장) 동문이 銀冠 문화훈장, 故 金光男(64년 文理大卒·前모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동문과 李順載(58년 文理大卒·연기자)·安輝濤(67년 文理大卒·모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동문이 寶冠 문화훈장, 徐京善(64년 音大卒·한양대 음대학장) 동문이 玉冠 문화훈장을 받았다. 또 李雲植(61년 美大卒·강원대 명예교수) 동문과 李相萬(61년 音大卒·음악평론가) 동문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미술부문과 음악부문을 각각 수상했으며, 柳京和(91년 音大卒·국악인) 동문이 「2002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亨)

모교 언론정보학과 朴明珍교수 언론학회 제30대 회장에 선출

지난 10월 12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모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朴明珍(69년 文理大卒·本報 論說委員)교수(사진)가 제30대 회장에 선출돼 내년 10월부터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한국언론학회 창립 43년 만에 첫 여성 학회장으로 선출된 차교수는 모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제3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아방송 PD,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삼성언론재단 이사, 방송개혁위원회 위



원, 국회 방송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부터 KBS 1TV 「TV 책을 말하다」의 진행을 맡고 있다. 부군 李敎一(66년 工大卒) 동문은 모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燮)



가」를 주제로 제30회 조찬특별 강연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 지난 10월 8~30일 갤러리 우덕에서 작가 8명을 초청, 「미디어 속의 자화상」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0월 23일 하얏트호텔 로터스룸에서 극작가 申奉承씨를 초청,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경영 마인드」라는 주제로 제102회 정책토론회를 가짐.

▲李世中(57년 法大卒·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本會 副會長)=지난 10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란 주제로 「2002 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행사를 가짐.

▲李吉女(57년 醫大卒·가천길재단 회장·경원대 총장·醫大同窓會長·本會 副會長)= 지난 10월 8일 중국 天津市 제1중심병원 류빙(劉兵) 원장과 의료·교육·연구·산업분야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 협

의를 교환함. 또 18일 경원대 예음홀에서 소프트웨어대학 신설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金英勳(59년 法大卒·숭실대 교수·대한환경문제연구소장)=오는 11월 19일 국립의료원내 스칸디나비아비안클럽 회의실에서 모교 법대 趙弘植(87년 法大卒)교수를 초청, 「환경리스크의 법적 문제(사전배려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남은 음식물 사료화 연구회장·수원지부 동창회장)=지난 10월 11일 호텔 센트로 그랜드볼룸에서 「고급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이용·개발」이란 주제로 제3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또 25일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구관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 생산이용 시스템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제6회 심포지엄을 가짐.

▲任貞彬(61년 家政大卒·한양대 명예교수)=최근 196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도시가정의 소득, 지출, 저축률 등을 분석한 「한국도시가정의 가계구조변화」(학지사)를 출간함.

▲朴聖培(61년 保大院卒·대한

### 메가스터디 孫主恩대표

### 「정의 회복위원회」에 1억원 지원

고교생 입시 전문 사이트 메가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 孫主恩(87년 人文大卒)동문은 지난 10월 23일 안국동 소재 아름다운 재단(이사장 박상증)에서 우리 나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일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정의회복위원회(위원장 鄭妍珍)에 3년간 나누어 1억원을 지원한다는 약정서를 전달했다.

孫동문은 「외할아버지이셨던 故최달선 목사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옥고를 치르신 일이 있다」며 「대학동기인 鄭위원장은 덮어줄 뻔했던 나의 가족사

를 다시 일깨워 직접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고마운 친구」라고 말했다.

또 「어릴 적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사회이웃을 위해 쓰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기금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원회에 기꺼이 출연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2년 모교 서양사학과 재학 중 도미한 鄭동문은, 1999년부터 미국법정에서 재미한인 변호사, 독일상대 유대인 강제노역 소송에 승소한 미국 법률가와 함께 일본정부 및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역사 청산을 위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정의회복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表)



가운데 孫主恩·鄭妍珍동문.



보건협회장)= 지난 10월 25~26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주류의 건강

증진 부담금 부과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주제로 제27회 보건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함. ▲鄭興淑(63년 家政大卒·중앙대 교수·한국복식학회 회장)=지난 10월 12~16일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전국대학 의상관련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및 국내 의류업계 인사를 초청, 「2002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卞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세계 걸스 카우트 아태지역 의장)=지난 10월 25~3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00회 세계 걸스 카우트 이사회에 참석함.

▲南誌鉉(64년 保大院卒·경산대 교수·전국보건대학원장협의회 회장)=지난 9월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보건

대학원장협의회 총회와 대학원의 주요 교과목에 대한 교수토론회를 개최함.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10월 18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지구환경금융(GEF) 제2차 총회에 참석, 우리나라의 기여방안을 설명함.

▲李相驥(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10월 18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개원 1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尹美容(69년 音大卒·국립국악원장)=지난 10월 11일 국립국악원 별맞이터에서 국악연수관 신축 및 별맞이터 증축 기념 행사를 개최함.

▲金學元(70년 法大卒·국회의원)=지난 10월 2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함.

▲張錦園(71년 美大卒·덕성여대 교수)=지난 11월 1~12일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작품전을 가짐.

▲李鍾贊(72년 行大院卒·前국가정보원장)=지난 10월 8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세계로 가는 길목을 잡아라」(한국방송출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 新刊

#### 喜怒哀樂·生老病死

—崔炳德 著  
60년대 초부터 사 진에 관심을 갖게된 崔炳德(60년 文理大卒·흥인화학 고문)동문이 포토에세이집을 펴냈다. 어린시절 결핵성 늑막염을 앓았던 崔동문은 이 책에 마음으로 찍은 60~70년대와 98년 우리들의 생활사를 담았다. (호영刊·값10,000원)

#### 수출계약의 요점과 분쟁해결

—申甲澈 編著  
ABC Korea 申甲澈(60년 法大卒)사장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30여년 동안의 무역지원 실무경험을 담은 책자를 저술했다.

수출계약 시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대금 미결제 시 효과적 회수 추진 방안 등을 실례를 들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두남刊·값15,000원)

#### 바른 敎育 參된 師道

—可樂高 靑川문집발간위  
지난 8월 가락고교에서 4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정년을 맞이한 沈玟漢(62년 師大卒·한국교육발전연구회장)동문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책을 만들었다. 일선 학교의 교사, 교감, 교육부 장학사, 편수국장, 학교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沈동문이 남긴 敎育의 발자취를 엮었다. (대한고교사서刊)

#### 빛 속을 나는 새

—金春玉 著  
한국전업미술가협회 金春玉(68년 美大卒)이사장이 첫 시화집을 내놓았다. 한국문인협회·한국시인협회 회원인 金동문이 직접 그린 30여 점의 한국화와 40여 편의 시가 상호보완을 통해 예술적인 완성도를 이뤘다. (아티스트刊·값12,000원)

#### E-메일 프랑스어

—金眞秀 著  
서경대 불어과 金眞秀(85년 大學院卒)교수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 엽서,

메모에서부터 비즈니스를 위한 서신, 행정서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모델을 제시했다. 서신들은 사용빈도가 높은 전형적인 편지글을 택해서 실용도를 높였고 좀 더 깊이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의 뒷부분에 참고문헌 목록도 담았다. (삼지사刊·값11,000원)

#### 대통령 아들인데 그 정도 살면 어때!

—李信範 著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객원연구원인 李信範(88년 法大卒·前국회의원)동문의 DJ일가 호화생활 추적기. 일정한 직업 없는 대통령 아들이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실을 폭로한 후 법정 싸움 등 지금까지의 사건 경위를 각종 관련 자료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다. (우도刊·값10,000원)

고수 두 의 한 한 알 한 민 는 끝 이 에 다 라 杼 이 돈 재 형 채 하 있 부 처 통일 길 을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 지역<br>번호 | 지부명                           | 명 단   |
|----------|-------------------------------|---|
| 01       | 남가주<br>206                    | <p>정중훈(치대 74입) 전희택(의대 60입) 박남수(문리대 74입) 김재무(상대 58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장동호(공대 53입) 남홍범(공대 59입) 김정화(미대 63입) 김성환(의대 71입)<br/> 김광은(음대 56입) 주 훈(음대 ?) 김준일(공대 62입) 김종표(법대 58입) 신정식(상대 64입) 박희규(수의대 55입) 김현지(농대 58입) 박제인(약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br/> 이승희(간호대 47입) 김두휘(문리대 58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영배(미대 61입) 이기재(사범대 52입) 이종희(공대 53입) 박재덕(상대 52입) 강봉창(약대 50입)<br/> 신우동훈(문리대 54입) 권처균(공대 51입) 김순길(법대 ?) 서재섭(상대 53입) 신광재(공대 73입) 김태호(상대 57입)<br/> 이 승(공대 59입) 임낙균(약대 64입) 민정탁(의대 61입) 호기원(치대 70입) 최순자(약대 53입) 박영근(상대 56입) 곽철(법대 64입) 최준호(치대 58입)<br/> 신정현(미대 59년입) 서관석(미대 67년입) 이양구(상대 57입) 이홍표(의대 60입) 방윤자(문리대 59입) 임재영(공대 59입) 박익순(\$50 수의대 74입) 김창섭(\$100 약대 44년입)<br/> 최예섭(치대 45년입) 강항운(농대 52년입) 김육권(미대 76년입) 배희식(문리대 52년입) 이명선(상대 58입) 오인근(약대 59입) 유진형(상대 48입) 이범식(공대 61입)<br/> 최명룡(음대 ?) 김재신(음대 60입) 이동성(의대 53입) 박태호(치대 66입) 탁해숙(음대 67입) 이효경(치대 63입) 홍훈정(음대 70입) 이병희(수의대 75입)<br/> 노봉식(음대 ?) 오형원(의대 53입) 송길장(사범대 58입) 홍경삼(문리대 61입) 이정옥(공대 52입) 강배영(상대 54입) 황봉찬(문리대 48입) 김창무(음대 53입) 김은희(치대 50입)<br/> 고재천(공대 57입) 김동익(법대 57입) 김광자(약대 62입)<br/> 조만연(상대 58입) 김해인(가정대 69입) 김종원(문리대 69입) 이호일(의대 60입) 강영만(상대 72입) 서동영(사범대 60입) 이동휘(공대 63입) 김태웅(의대 63입)<br/> 배재호(공대 58입) 나민주(음대 6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황석우(의대 53입) 윤병인(의대 64입) 박범순(가정대 70입) 윤진수(의대 57입)<br/> 노병일(경성법학전문 41입) 김생철(법대 ?) 김성복(공대 59입) 임선영(음대 57입) 안승호(공대 71입) 이완규(공대 54입) 김일선(사범대 67입) 정기정(상대 69입)<br/> 권대원(대학원 59입) 윤방현(사범대 53입) 최재현(수의대 66입) 이상학(공대 59입) 김학천(치대 71입) 노명호(공대 61입)<br/> 고용규(의대 67입) 김윤걸(자연대 77입) 임용오(의대 57입) 탁의용(상대 58입) 김상익(공대 46입) 조성시(공대 60입) 박명근(상대 63입) 정황(공대 64입) 김원탁(공대 65입)<br/> 신동국(수의대 76입) 김정철(치대 59입) 도영미(사범대 52입) 김명자(치대 57입) 하기환(공대 66입) 이경호(공대 67입) 심상은(상대 54입) 이견택(경영대 72입)<br/> 서경만(의대 51입) 윤정민(법대 55입) 박취서(약대 60입) 이승재(상대 67입) 한원민(의대 59입) 홍성애(의대 60입) 신한경(약대 56입) 김정애(간호대 69입) 김원경(약대 59입)<br/> 장동석(문리대 66입) 이해란(미술대 72입) 장진성(약대 66입) 양은석(음대 70입) 김상엽(공대 57입) 김선주(사범대 50입) 신우식(치대 ?) 신무수(치대 63입) 백만일(공대 64입)<br/> 강신호(사범대 49입) 김세담(법대 55입) 정동구(공대 57입) 고석규(치대 65입) 신우천(치대 64입) 양은혁(상대 56입) 정복근(\$100, 사범대 69입)<br/> 차민영(의대 78입) 김동호(치대 ?)<br/> 이강훈(치대 65입) 손학식(공대 61입) 김동산(법대 59입) 정경화(의대 70입) 박계영(공대 57입) 김은중(상대 59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건진(문리대 62입) 오재인(치대 33입)<br/> 최호준(의대 77입) 권길상(음대 46입) 이호준(공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현세(법대 68입) 김선명(공대 7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성호(의대 72입)<br/> 김영(수의대 63입) 조성윤(법대 46입) 홍진(간호대 55입) 김용채(문리대 61입) 신정자(사범대 63입) 박인창(농대 65입) 김희봉(공대 72입)<br/> 노상규(공대 60입) 송두빈(사범대 57입) 김영기(의대 54입) 김근빈(법대 56입) 이난경(음대 66입) 남정우(치대 48입) 이견선(치대 54입) 우원섭(치대 65입) 김일영(의대 65입)<br/> 한중철(치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한홍택(공대 60입) 신상화(공대 58입) 박인하(치대 56입) 박해옥(간호대 69입) 이근원(공대 67입) 임문빈(상대 58입) 조종웅(공대 45입)<br/> 엄세욱(간호대 69입) 권기상(경영대학원 72입) 육중훈(상대 67입) 강경수(법대 58입) 정원훈(상대 3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석구(공대 66입) 최속규(간호대 65입)<br/> 문덕수(공대 73입) 최승룡(상대 53입) 서치원(공대 69입) 지인수(상대 59입) 이환진(상대 68입) 임택선(공대 52입)</p> |
| 02       | 1                             | 김항자(약대 61입)   |
| 03       | 새프린시스코 3                      | 박세록(의대 57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조웅(공대 60입)   |
| 04       | 뉴욕<br>(NY, NJ, PA일부CT)<br>182 | <p>단(미대 55입) 손주현(의대 61입) 석창호(의대 66입) 김문경(약대 65입) 김재민(약대 57입) 조희재(음대 58입) 강 효(음대 63입) 손영철(공대 68입)<br/> 이태상(문리대 55입) 유숙현(간호대 61입) 강영선(공대 50입) 홍선경(의대 58입) 한용진(미대 56입) 문미애(미대 56입) 정연희(미대 64입) 변영석(의대 65입)<br/> 신남철(인문대 81입) 김현기(공대 62입) 민준기(\$50 공대 59입) 배상규(약대 61입) 김학수(상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윤영섭(의대 63입) 최영혜(간호대 64입)<br/> 김태호(약대 63입) 서종웅(약대 70입) 조상근(법대 69입) 박대규(법대?) 윤준식(법대 58입) 유택상(문리대 58입) 박경원(미대 66입) 박성일(상대 58입)<br/> 박진수(의대 58입) 강우정(음대 62입)<br/> 조시래(문리대 57입) 고석원(문리대 50입) 최승웅(의대 61입) 이명해(의대 79입) 김영덕(공대 53입) 이봉상(약대 59입) 연봉원(문리대 61입) 최정애(간호대 66입)<br/> 김관준(약대 46입) 최재홍(의대 67입) 박선섭(공대 61입)<br/> 김익성(상대 52년입) 윤봉근(사범대 54년입) 이영숙(간호대 56년입) 최형무(법대 69년입) 이유찬(의대 58년입) 윤여민(상대 60년입) 김규화(상대 63년입)<br/> 김훈일(공대 60년입) 윤갑석(공대 53년입) 권영대(공대 69입) 송관호(의대 58입) 배명애(간호대 45입) 윤현남(공대 63입) 노경희(간호대 66입) 문길용(음대 45입)<br/> 소무영(상대 65입) 유재은(미대 71입) 반영철(\$100 약대 58입) 차국만(상대 56입) 김현중(공대 63입) 조대영(공대 61입) 정진우(의대 72입) 서병선(음대 65입)<br/> 송웅길(신문대학원 69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손갑수(약대 59입) 임문수(공대 72입)<br/> 백윤자(간호대 64입) 김양호(의대 57입) 이기준(\$100 문리대 66입) 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혜(약대 59입) 김학자(간호대 63입) 임석태(법대 48입)<br/> 이정애(미술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성백문(공대 61입) 선종철(의대 57입) 이대영(문리대 64입) 최석진(사범대 54입) 전재우(공대 75입) 이종성(의대 58입)<br/> 정택수(문리대 45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상원(음대 69입) 강상진(의대 59입) 남상래(간호대 65입) 백영복(간호대 69입) 이필영(사범대 54입)<br/> 장미숙(치대 85입) 황문하(수의과대 76입) 박건호(의대 57입) 한승원(미술대 60입) 전병삼(약대 54입) 김용재(의대 60입) 오정환(의대 55입) 이재원(법대 60입)<br/> 홍명희(간호대 61입) 이연찬(의대 52입) 허재순(사범대 54입) 김정빈(약대 54입) 조정현(보건대학원 64입) 현건섭(공대 55입) 이경태(공대 63입) 조경호(의대 66입)<br/> 리준국(공대 47입) 조성무(공대 56입) 김현희(간호대 63입) 이승호(상대 63입)<br/> 이경립(상대 64입) 조충열(의대 60입) 한호(상대 66입) 조숙자(간호대 59입) 남일우(법대 57입) 이명희(의대 60입) 최창식(의대 61입) 변광록(간호대 72입)<br/> 김광호(의대 72입) 정일화(상대 55입) 김영용(치대 60입) 조규웅(의대 66입) 이정은(의대 58입) 박순영(법대 56입) 김영일(의대 69입) 최수용(상대 55입)<br/> 오준영(상대 49입) 최한용(농대 58입) 이홍제(의대 68입) 전성진(사범대 58입) 탁명양(약대 56입) 서상철(의대 56입) 최구진(약대 54입) 송재한(약대 61입)<br/> 윤정옥(약대 50입) 김우영(상대 60입) 송영순(사범대 60입) 이기영(농대 70입) 장동만(문리대 63입) 나연수(사범대 53입) 유호근(법대 71입) 김충정(상대 64입)<br/> 김주은(공대 71입) 강재현(상대 70입) 김한중(의대 56입) 이재덕(법대 60입) 권후철(상대 73입) 최한선(공대 56입) 이충호(의대 63입) 윤순철(사범대 44입)<br/> 김상각(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입) 강석권(법대 61입) 이건미(문리대 60입) 변찬의(상대 63입) 나찬국(의대 64입)<br/> 김진승(문리대 53입) 성기로(약대 57입) 심정섭(의대 53입) 김기훈(상대 52입) 김희국(약대 54입) 최휘웅(문리대 64입) 김병술(약대 52입) 조종수(공대 64입)<br/> 이국진(사대 51입) 전민욱(간호대 66입) 이정순(법대 53입) 최영태(문리대 67입) 노용면(의대 55입) 한용호(법대 52입)<br/> 이문휘(문리대 54입) 김세환(공대 65입) 박창익(농대 64입) 전희근(의대 54입) 이덕인(미술대 56입) 허선행(의대 58입) 김영두(농대 61입)</p>  |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 지역번호  | 지부명                         | 명단   |
|-------|-----------------------------|--|
| 05    | 시카고(IL, IN, WI, MO, MI, OH) | 122<br>정남재(사범대 56입) 조 철(공대 49입) 홍규식(문리대 64입) 이윤모(농대 57입) 제현수(사대 65입) 이범구(공대 59입) 이소희(의대 61입) 이수인(\$120 의대 56입) 조형원(약대 54입) 김정일(의대 57입) 육태식(의대 61입) 김택수(의대 57입) 장 철(의대 71입) 남상용(공대 52입) 강태수(의대 65입) 최호승(자녀도 선남)<br>한재은(의대 59년입) 지명식(사범대 65년입) 구자원(법대 55년입) 이영모(의대 59년입) 이태석(의대 67년입) 이한중(의대 61년입) 장병호(의대 66년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건설(공대 73입) 이규달(의대 68입) 이종일(의대 71입) 윤호윤(의대 63입) 이한홍(의대 68입) 임현재(의대 59입) 황치룡(문리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최순분(간호대 56입) 구행서(공대 69입) 엄무광(문리대 61입) 오상현(의대 71입) 김정근(의대 61입) 한성수(의대 56입) 최인갑(자녀도 선남, 공대 61입) 김영호(의대 77입) 장재찬(의대 59입) 장세곤(의대 57입) 박정일(의대 61입) 조중행(의대 63입) 박속(의대 64입) 이설희(간호대 73입) 최순강(의대 65입) 이순자(간호대 66입) 전현(문리대 60입) 이정일(농대 57입) 이소정(음대 84입) 고성서(경성사범 38입) 배건재(공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재동(의대 58입) 정길화(의대 65입) 신영규(의대 57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승희(법대 55입) 김택수(의대 57입) 박노균(상대 55입) 송용덕(의대 57입) 김형수(농대 68입) 김유식(의대 64입) 이종기(농대 55입) 서영일(의대 68입) 강영국(수의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백영구(행정대학원 61입) 김현석(문리대 69입) 한의일(공대 62입) 김상기(문리대 61입) 배영섭(의대 54입) 임재일(농대 64입) 안정희(간호대 75입) 장시경(약대 58입) 진보린(약대 56입) 서상현(의대 64입) 김앤드류(상대 50입) 백준철(공대 62입) 김현욱(문리대 67입) 박준환(의대 57입) 박종수(수의대 58입) 이영웅(의대 62입) 장홍(문리대 61입) 고영철(의대 45입) 성홍환(\$160, 수의대 75입) 김윤화(음대 72입) 서승환(치대 61입) 손기용(의대 55입) 김한철(사범대 61입) 김세종(경영대 79입) 김용우(공대 58입) 박홍근(공대 64입) 허서룡(의대 60입) 정병욱(의대 59입) 김병운(문리대 65입) 이용락(공대 48입) 전영자(미대 58입) 하계현(공대 64입) 계명수(의대 69입) 박연희(간호대 65입) 김정주(문리대 64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이승자(사범대 60입) 김갑중(의대 57입) 정의철(의대 55입) 유준석(의대 53입) 조 철(\$50 공대 49입) 정 태(\$100 의대 57입) 이덕수(\$100 문리대 62입) 최승정(공대 60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안창현(의대 55입) 유석홍(상대 61입) 서경원(공대 53입) 구경희(의대 59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효명(\$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년입) 홍혜례(사대 76년입) 도상탁(\$100, 의대 56년입) 최애옥(간호대 47입) |
| 06    | 워싱턴 DC (MD, VA)             | 44<br>김국(농대 75입) 오기창(법대 50입) 장윤희(사범대 54입) 남광순(음대 64입) 심준보(상대 55입)<br>이재승(의대 55년입) 김기봉(공대 63년입) 조남현(의대 64년입) 문홍숙(간호대 55년입) 변만식(사범대 49년입) 고무환(법대 57년입) 소속영(간호대 64년입) 이내원(사범대 58입) 석균범(문리대 61입) 김충규(의대 60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이정섭(의대 48입) 오광동(공대 52입) 신상균(의대 52입) 김용덕(의대 53입) 김창호(법대 56입) 김창웅(법대 60입) 박홍(의대 45입) 이정의(의대 59입) 배병권(상대 55입) 김훈진(치대 ?) 홍인희(공대 58입) 엄승용(농대 57입) 박평일(농대 69입) 장병규(사회과학대 76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조병선(의대 71입) 박태조(음대 64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안미애(가정대 81입) 박은희(미대 72입) 강경구(사범대 49입) 김정환(문리대 60입) 최경수(문리대 58입) 박홍우(문리대 65입) 박명영(의대 66입) 전경철(공대 55입) 윤개일(약대 60입) 주 일(의대 46입)   |
| 07    | 워싱턴주 (WA)                   | 13<br>이경희(\$80 약대 8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혜숙(문리대 65입) 서공주(음대대학원 59입) 윤재명(의대 65입)<br>김영일(공대 53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유서철(공대 72입) 전계상(공대 40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채태용(법대 55입) 최두환(공대 83입) 허윤희(사범대 57입)   |
| 08    | 휴스턴 (HOUSTON)               | 16<br>전중희(공대 56입) 신용선(공대 55입) 박승균(의대 59입) 탁순덕(사범대 57입) 조시호(문리대 59입)<br>유금영(법대 50입) 김성철(의대 61입) 최광욱(문리대 73입)<br>이은설(문리대 53입) 노인규(의대 57입) 이규진(약대 60입) 명인성(공대 50입)<br>박민자(사범대 58입) 김충열(의대 5입) 최관일(공대 54입) 강영빈(\$120 문리대 58입)  |
| 09    | 달라스 (DOLLAS)                | 2<br>김인호(공대 47입) 이병규(약대 61입)   |
| 10    | 미네소타 (MN)                   | 9<br>권승림(공대 52입) 김태환(의대 58입) 권하주(치대 59입) 왕규현(의대 56입) 박상빈(공대 71입) 문일지(공대 61입) 김권식(공대 61입)<br>남세현(공대 67입) 조형준(문리대 62입)   |
| 11    | 조지아 (GA)                    | 10<br>김용건(문리대 48입) 오경호(농대 60입) 김민복(문리대 72입) 유우영(의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br>장병건(보건대학원 64입) 이철남(의대 50입) 백성식(약대 58입) 이관호(공대 45입) 윤민자(음대 65입)  |
| 12    | 아리조나(AZ)                    | 6<br>오덕경(의대 58입) 박성숙(간호대 59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서기권(공대 70입) 박양세(약대 48입) 이용길(의대 62입)   |
| 13    | 유타 (UT)                     | 3<br>김 연(\$50 문리대 54입) 이정미(문리대 48입) 김이기(문리대 58입)   |
| 14    | 하와이 (HI)                    | 6<br>구해근(문리대 60입) 최치덕(법대 59입) 김용진(공대 50입) 신동인(공대 58입)<br>김동림(사범대 55입) 박성재(상대 49입)  |
| 15    | 오레곤 (OR)                    | 7<br>한영주(사범대 ?) 김상민(음대 46입) 나제관(공대 72입) 장유자(공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김상순(상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
| 16    | 기타 (서부)                     | 8<br>박종익(사범대 83입) 류광현(문리대 58입) 최원웅(약대 62입) 안동욱(자연대 72입)<br>이순환(의대 53입) 김갑경(의대 54입) 박용호(의대 59입) 홍지호(공대 53입)   |
| 17    | 기타 (중부)                     |  |
| 18    | 기타 (동부 & 캐나다)               | 11<br>김주웅(의대 63입) 윤영옥(의대 57년입) 김정권(의대 55입) 김수산(의대 52입) 김연국(수의대 74입) 오인석(법대 58입) 김기욱(공대 79입)<br>조부정(약대 62입) 조동림(의대 56입) 김미현(문리대 52입) 손정호(의대 53입)  |
| 19    | 플라델피아(PA)                   | 33<br>정학량(약대 56입) 이승환(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임광상(공대 57입) 장 호(문리대 69입) 박장성(의대 54입) 지재원(사범대 68입) 이민택(의대 58입)<br>최 환(공대 68입) 송영두(\$100, 의대 56입) 오진석(치대 56입) 이규호(공대 56입) 이윤성(수의대 81입) 김화섭(의대 55입) 김영우(공대 55년입)<br>심기련(상대 57년입) 이재희(상대 88입) 이성숙(가정대 74입) 조영호(음대 60입) 이삼민(문리대 58입) 윤정나(음대 57입) 김세경(미대 62입)<br>김주진(법대 54입) 안지영(문리대 71입) 문대옥(의대 73입) 전방남(상대 73입) 김종규(치대 69입) 진병학(의대 57입)<br>서진석(의대 62입) 유창남(의대 58입) 전무식(\$50, 수의대 61입) 염극용(의대 60입) 김형달(의대 70입)<br>김성빈(문리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김경석(문리대 70입) 박현자(음대 62입)  |
| 20    | 뉴잉글랜드 (MA, RI)              | 24<br>김문소(농대 61년입) 두선자(간호대 75년입) 한병의(문리대 60입) 인준식(사대 55입) 김중성(경영대 76입) 배성호(의대 65입) 박종건(의대 62입)<br>채도경(의대 59입) 권이덕(공대 68입) 이회규(공대 69입) 윤상래(수의대 62입) 김호영(약대 52입) 문형성(의대 65입) 김영일(사대 59입)<br>이재신(공대 57입) 김제호(상대 56입) 김유경(음대 ?) 김병국(공대 71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장태(문리대 53입)   |
| 21    | 히트랜드                        | 12<br>박해송(음대 68입) 이상강(의대 70입) 오명순(가정대 69입) 배규영(사범대 68입)  |
| 22    | 펜실베이니아                      | 1<br>박세화(의대 76년입) 지일성(의대 61입) 신두식(의대 58입) 김호원(치대 52입) 임하진(의대 79입) 이상문(상대 57입) 구명수(간호대 66입) 오태요(의대 56입)<br>이수경(자연대 81입)   |
| 23    | 캐롤라이나                       | 4<br>정양수(의대 60입) 박태진(의대 62입) 한광수(의대 57입) 정일환(의대 63입)   |
| 특별기부금 |                             |  |
| 계     |                             | 723  |

#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후원이사(후원금)  | 납부인원        | 합 계             |
|-----------------|------------------------------|--|-------------|-----------------|
| 01              | 남가주                          | 노명호(\$3,000/ 종신이사비, 공대 61입)<br>서동영(\$200, 사범대 60입)<br>제영혜(\$200, 가정대 71입) 정원후(250 상대38입)   | 4           | 3,650           |
| 02              |                              | 김항자(\$300, 약대 61입)   | 1           | 300             |
| 03              | 샌프란시스코                       | 정유석(200 의대 58입)  | 1           | 200             |
| 04              | 뉴욕(NY, NJ, PA 일부 CT)         | 김용학(\$300, 법대 70입)   | 1           | 300             |
| 05              | 시카고 (IL, IN, WI, MO, MI, OH) | 소진문(\$300, 치대 58년입) 장기남(\$1,000, 문리대 62입)<br>최호승(\$200 사범대 58입)<br>전현일(\$200, 농대 62입) 강영국(\$300, 수의대 67입)<br>송순영(1000 문리대 52입) 구경희(500 의대 59입)<br>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한재은(1500 의대 59입)<br>이용락(5000 / 종신이사비 3000 일반이사비 2000 공대 53졸)<br>업무광(500 문리대 61입) | 12          | 14,500          |
| 06              | 워싱턴 DC (MD, VA)              |  |             |                 |
| 07              | 워싱턴주                         | 허윤희(250 사범대 57입)   | 1           | 250             |
| 08              | 휴스턴                          |  |             |                 |
| 09              | 달라스                          |  |             |                 |
| 10              | 미네소타                         | 권승립(\$200, 공대 52입)   | 1           | 200             |
| 11              | 조지아                          | 김용건(\$200, 문리대 48입)  | 1           | 200             |
| 12              | 아리조나                         |  |             |                 |
| 13              | 유타                           |  |             |                 |
| 14              | 하와이                          |  |             |                 |
| 15              | 오레곤                          | 김상순(200 상대 67입)  | 1           | 200             |
| 16              | 기타1(서부)                      |  |             |                 |
| 17              | 기타2(중부)                      |  |             |                 |
| 18              | 기타3(동부 & 캐나다)                | 오인석(\$3,000/ 종신이사비, 법대 58입)  | 1           | 3,000           |
| 19              | 필라델피아                        | 현재원(\$200, 공대 60입)<br>정정수(200 의대 56입)  | 2           | 400             |
| 20              | 뉴잉글랜드                        | 강경식(\$500, 문리대 55입) 윤상래(\$200, 수의대 62입)  | 2           | 700             |
| 21              | 하트랜드                         |  |             |                 |
| 22              | 중부펜실바니아                      |  |             |                 |
|                 | 특별후원금                        |  |             |                 |
| <b>일반 이사 합계</b> |                              |  | <b>25</b>   | <b>\$14,900</b> |
| <b>종신 이사 합계</b> |                              |  | <b>3</b>    | <b>\$9,000</b>  |
| <b>총 계</b>      |                              |  | <b>28 명</b> | <b>\$23,900</b>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2년 7월 01일~11월 28일)

####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2),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진구, 정 태  
이청광, 전희택, 윤정옥  
한홍택, 조시호, 이용락

#### 300달러이상

노명호(\$3,000)  
김용학(\$300)  
소진문(\$300)  
장기남(\$1,000)  
오인석(\$3,000)

#### 300달러이하

최호승(\$200)  
권승립(\$200)  
김용건(\$200)  
현재원(\$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2년 1월 19일 ~ 11월 28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 윤정옥 (뉴욕 · 약 50입)
- 김영덕 (뉴욕 ·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 김병수 (뉴욕 · 상 55입)
- 최수용 (뉴욕 · 상 55입)
- 유창남 (뉴욕 · 의 58입)
- 오인석 (뉴욕 · 법 58입)
- 이전구 (뉴욕 ·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3,0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상**

이용락 (공대 53졸) \$1000

**300달러 이상**

- 노명호(공대 61입) \$500
- 조상근(법대 69입) \$3002
- 조시호(문리대 59입) \$500
- 정정수 (의대 56입) \$500
- 워싱턴DC 지역동창회 \$5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CD 판매 총액 300장 총 \$4500)

**300달러 이하**

- 윤재명(의대 65입) \$200
- 이경립(상대 64입) \$200
- 이소정 (음대 84입) \$200
- 변만식 (사범대 49입) \$100
- 장병건 (보건대학원64졸) \$250

##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11월 28일

| 지역<br>번호 | 지부명                             | 후원이사(후원금)  | 납부인원 | 합계         |
|----------|---------------------------------|--|------|------------|
| 01       | 남가주(CA)                         | 노명호(500) 한홍택(1,000)황석우(100) 정인환(200)권길상(100)<br>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br>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br>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br>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 23   | 359,050    |
|          |                                 | 이양숙(200) 박우선(200)  | 2    | 400        |
| 03       | 샌프란시스코                          | 김양주(300)   | 1    | 300        |
| 04       | 뉴욕<br>(NY, NJ, PA 일부, CT)       | 조상근(300) 이경립(200)<br>김기훈(250) 최수용(5,000) 김석식(100) 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br>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br>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br>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 주의돈(300)<br>남상래(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 김연석(200) 동형근(200)<br>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허병렬(100) 신기원(100) 유지형(50) | 41   | 92,100     |
| 05       | 시카고<br>(IL, IN, WI, MO, MI, OH) | 이용락(1000) 이소정(200)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br>배영섭(200) 전영자(200)<br>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춘(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 17   | 5,900      |
| 06       | 워싱턴 DC(MD, VA)                  | 변만식(100) 지역동창회(510, 조수미CD 34장 판매대금) 방은호(5,000)<br>지역동창회(3,990: 조수미 CD 266장 판매대금) 이규섭(150) 방은호(5,000)<br>박은수(1,000) 박용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건(50) 이선명(50)   | 11   | 16,200     |
| 07       | 워싱턴주(WA)                        | 윤재명(200)   | 1    | 200        |
| 08       | 휴스턴(HOUSTON, TX)                | 조시호(500) 강영빈(500) 박승근(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 6    | 1,700      |
| 09       | 달라스(DALLAS, TX)                 | 김인호(200)   | 1    | 200        |
| 10       | 미네소타(MN)                        | 송창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 6    | 800        |
| 11       | 조지아(GA)                         | 장병건(250) 장병건(100)  | 2    | 350        |
| 12       | 아리조나(AZ)                        | 박양세(100) 박양세(200)  | 2    | 300        |
| 13       | 유타(UT)                          |  |      |            |
| 14       | 하와이(HI)                         |  |      |            |
| 15       | 오레곤(OR)                         | 이태호(100) 이명(300)   | 2    | 400        |
| 16       | 기타(서부)                          |  |      |            |
| 17       | 기타(중부)                          | 이회백(1,000)   | 1    | 1,000      |
| 18       | 기타(동부&캐나다)                      | 한광수(333.33)  | 1    | 333.33     |
| 19       | 필라델피아<br>(PHILADELPHIA, PA)     | 정정수(500)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팔(800) 정정수(500) 한혜원(300)<br>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 11   | 4,600      |
| 20       | 뉴잉글랜드(MA)                       | 도원회(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 5    | 3,600      |
| 21       | 하트랜드                            |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 4    | 1,350      |
| 22       | 펜실바니아                           |  |      |            |
|          | 특별 후원금                          |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br>입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 4    | 21,560     |
|          | 총 계                             | 당회계년도 모금액 총액 \$24,190<br>기금위원회 직접 접수분 \$ 1,000<br>방은호 동문 기여금 \$ 5,000은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   | 141  | 510,343.33 |

### 약정하신 동문들

※ 볼드체는 금회계년도 납입자임.  
※ 작년도 집계표에서 강영빈씨를 중부 기타지역에서 텍사스로 이동하였음.

|              | 후원이사<후원금>  | 납부인원           | 합계                         |
|--------------|--|----------------|----------------------------|
| 현금 약정        |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0,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br>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br>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br>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br>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 /\$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 11명<br>(7명 납입) | \$260,500<br>(\$41,500 납입) |
| 기타           |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 3명             |                            |
| <b>총 합 계</b> |  | <b>148 명</b>   | <b>729,343.33</b>          |

同門탐방

# 한규남의 藝術세계

## 한규남 / 최분자 산수화 전시회를 앞두고

◆ 이번 전시의 의미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최분자와의 13년만의 합작 山水畫展이라는 점이다. 지난 80년 선화랑 전시 이후 2인전 합작전은 오랜만이다. 2인전이 아니라 일인전(1/2 PLUS 1/2)이라 할 수 있겠다.

◆ 산수화에서 어떻게 합작이 가능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한다. 듀엣, 이중창처럼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중요하다.

합작을 많이 하다보니 독특한 방법론을 터득하게 됐다. 예를 들어 바위, 나무, 집, 궁전 등을 violin, Piano, cello, viola 라고 한다면 획, 필치, 선, 이미지 등을 음악적이며 회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의 특성은 서예적이라는 점에 있겠다

◆ 서예적(Caligraphic)이란 무슨 뜻인가?

이번 전시는 이미지를 그린 게 아니라, 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흔적 속에 감추어진, 그리고 해체(deconstruct)되어진 음운학(Semantic)이랄까?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존재하는 운율과 모순들을 하나로 가두어 놓은 흔적들이다.

◆ 이미지를 썼다면 의미(language, meaning, context, content, symbol, Sign)의 역할은 작품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실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언어(language)의미란 잘 다루지 않으면 아주 모호하고 위험한 요소(element)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것이 지시하는 순간 의미(language)와 실재(being)사이에 모순된 관계를 동반한다. 해석이 다양할 경우라면 차라리 지양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철저하게 의미를 무시하되 線, 色, 그 자체 요소로서만 취급한다. 언어성의 한계를 넘어 다른 작가들이 보지않는 측면을 살리고 있다. 운동장에서 공을 갖고 뛰는 선수는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관념적인 의미는 없었지만 재미가 있다면 그것은 의미미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Context 가 지속적으로 변해도 오는 순수한 무의미의 실체가 있다. 나는 비디오 아티스트나 설치

미술인들, 개념미술가들과 아주 다르다. 의미/구조/언어/존재/... 등등은 총체적인 관계(Totality)에서 초월과 상승의 합일 관계로 전환(DECONSTRUCT)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양문화권은 이점에서 서양과 다른 깊은 전통(Paradigm)을 갖고 있다. 상형문자권에서는 그림이 곧 언어이며 형상이 곧 구조가 된다. 이들이 하나인가? 둘인가? 라는 Heidegger의 話頭이래 Husserl, Derrida, Tschumi, Norris 에 이르기까지 요즈음도 이 문제는 근원적이기에 깨어질 수 없다.

◆ 전통에 대하여

나는 뉴욕에서는 진부한 동양화의 전통은 뛰어 넘어야 된다고 본다. 안에서는 전통을 지키고 밖에서는 우리 전통의 좋은 점을 해체(deconstruct), 재창조(Reconstruction) 되어야 할 것이다. 양면성이 있다. 뉴욕작가들의 역할이 국내작가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점에 있다. 기교 방법 내용 등 모두 새로워야 한다. 이번 전시에서 나는 넓은 의미의 산수화의 전통을 부정하지 않는 한계 속에서 뉴욕커들과 만난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좁은 의미로서의 기호성(sign)과 혹은 구조(structure)가 함께 하는 이원일체(SYNTHESIS of OPPOSITES)로서의 그림의 이미지를 구축(deconstruct)하였다. 군더더기가 빠진 상형문자, 세련되고 유쾌한 초서처럼 즐거움을 주는 작품들을 보여줄 것이다. 건축적이며 동시에 회화적이며 음악적이라는 말이다.

고려도공들, 조선의 분청사기의 畫工들이 중국의 그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paradigm을 재창조했듯이 뉴욕작가들에게 뉴욕작가들만이 할 수 있고 다를 수 있는 숙명적인 문제들이 있다.

◆ 예를 들면?

분청사기의 제조, 공간 구성요소의 처리방법들을 잘 분석해 보자. 천년이 넘는 陶工(조각 성형가)들과 畫工들의 슬기와 지혜가 쌓여있다. 놀랍게도 서양사람들이 이 점을 우리보다 다른 각도에서 더 잘 알고 응용하고있다. 예를 들자. Derrida를 선두로 한 후기구조주의자들 중 Bernard Tschumi의 파리국립공원의 공간 처리방법과 미적 원리를 분석해보면 많은 점에서 도공들의 원

韓圭男(미대 63인) 동문과 崔粉子(미대 70인) 동문의 합작 山水畫 전시회가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뉴욕 한인 회관 화랑에서 열린다. 한동문과 최동문은 자신들의 미주 이민 30년을 기념하며 전통한국화를 현대화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최동문은 Noyack신학교 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韓동문은 내년부터 School of Visual Art New York에서 교수로 재직할 예정이다. (연락처 전화 551-804-9356)

**한규남/최분자 山水畫 전시회**  
**11월30일 부터 12월 19일까지**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the*  
**Reception Tuesday, December 3, 2002**  
**From 6:00pm until 8:00pm**  
*at*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149 West 24<sup>th</sup> St., 6Fl.(between 6-7<sup>th</sup> Ave.)**  
**New York, NY 10011**  
**Gallery hour : 10:00am ~ 7:00pm (Mon. ~ Sat.)**  
**Sunday by appointment**  
**Tel. 212-255-6969 • 201-541-9672 • 718-786-5517**  
**R. S. V. P. : 551-804-9356**

리와 흡사하다. 기존의 것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이며 Decentralization, fragmentation, Superimposition of Elements, Anticontextual, Crossprogramming, Transprogramming, Disprogramming Supplanting form/ function/ structure with contiguity/ substitution /permutation등 아울러 새로운 해체적 기법을 보이는데, 성형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표면처리의 역상감기법, 인화, 상감, 투각, 유약, 태토와의 문양, 붓처리 등등 귀알, 분산 집산기법 등에서 이미 보여졌다. 예나 지금이나 당연히 쓰여지는 기본이다. 오래 전에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도자기를 구우며, 가마를 새로 옮겨가며 전해지고 쌓아졌던. 많은 노하우 solution 과 응용원리 그리고 실험 경험세계와 통한다. 반대로 고쳐야 할 문 제점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 동양화의 표구방법은 습도 온도가 다른 이곳 계절 건축구조에 맞지 않는다. 가구는 시간이 가면 터지고 화선지는 쭈굴쭈굴 운다. 더 좋은 재료 해결방법들이 이곳에는 많다. 이런 방법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미술의 세계화 혹은 대중화를 어떻게 보는가?

이번 전시에는 판화 사진 작품이 있는데 그림의 POST/MODERN 화에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Computer, G-clee edition, Mixed Media를 함께 사용한 Limited Edition 작품들도 있다. Reproduction 을 McDonaldization, Cocacolarization 이라 비하할 것이 아니고 CYBER문화 속에서 한국화를 세계화하는 방편과 소비문화와 대중문화의 적극적인 수용과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변형이 원형보다 때로는 더 좋은 경우도 있다.

◆ 미술교육문제에 대하여?

오늘날 미술대학의 CURRICULUM과 교과내용들은 안과 밖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바뀔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곳 사정 밖에 잘 모른다. 서울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것밖에. 후배, 학생, 아마추어, 프로를 불분하고 미술이야기라면 언제나 나와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다.

◆ 이즈음의 뉴욕미술에 대하여?

무엇보다 다양해서 좋다. 실험, 진보, 보수, 방법과 미학 등등 모두 다 좋은데. 기계가 전부인 것처럼 기존의 가치를 깨어 부시는 것만은 아닌 것 중의 아닌 것이다.

오늘날 미술문제의 근원적인 이슈를 제공하는 NEO-Dadaism, Constructivism 그리고 Deconstructivism 의 진정한 의미는 가치를 보존하고 근원적인(UNCHANGABLE CORE OF VALUE)것은 지키자(Reconstruction)는 데 있다고 확신한다. 붓과 종이 캔버스에 미학은 아무리 과학적인 영상매체가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없어질 수 없다. Software 가 없는 하드웨어는 있을 수 없다.

◆ 현재 혹은 앞으로?

최분자는 Nyack Theology College 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고, 나는 2003 여름 학기부터 SYNTHESIS OF OPPOSITES:Deconstruction/ Reconstruction 의 주제로 SCHOOL of VISUAL ART 에서 Studio PAINTING Course 를 맡게 되어 있다. 순회전을 준비 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나는 30년 동안 미국 생활에서 진 크고 작은 정신적 문화적, 인간적인 빛들을 창작활동을 통하여 값을 것이다. 이번 전시를 뉴욕미술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CHELSEA 지역의 뉴욕한인회관 전시장으로 정한 까닭은 이제부터 다시 모두 바뀌어야 되겠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국작가들도 한 코너를 당당히 차지할 수 있는 데.

◆ 뉴욕에서의 작가 생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조화된 삶이어야 하겠는데. 창작도 겸해야하니 이런 점에서 예술과 삶의 모순을 느낀다. 이런 의미에서 최분자는 아주 강한 여자이다. 다시 동양화의 그림세계 속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동안 참 용케도 견뎠는데 최분자는 신앙심으로, 나는 그림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고집으로, 그리고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견딜 수 있었다 미국 이민생활에서 비록 실생활은 최분자와의 관계에서 보였 듯 썩 좋은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지만, 작품세계에서는 그런대로 서로 돕고자 한다. 창작소회를 통해 좋은 부모로서 작가로서 선배로서 앞으로 책임을 지고 싶다. 직장도 갖지 않고 참 뻘뻘스럽게 견뎠으니,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뉴욕의 주류 Frontier 의 흐름에 동참 지속적으로 변신해야하는데 이 모두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 동문이 운영하는 우편주문 가능한 Gift Shop

지명식 동문(사대 65입)부부는 시카고 근교 Northbrook의 White Plains Shopping Center내에서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Shiseido, 참존, 아모레 화장품과 지성피부, 여드름 전용화장품 Dr. Eslee를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선물용품, 가정용품, 부엌용품, 속옷류, 전기제품, 약세서리, 영양제, 비타민 등을 구비하고 있고, 전자파를 방지하여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Sheild Life 제품도 갖추고 있다. 귀국 선물을 인기있는 로얄제리, 커피 및 꿀가루등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전화주문이나 우편주문은 UPS로 즉시 발송하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10:00AM-8:00PM, 일요일 1:30PM-5:00PM 이다. 많은 동문들의 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 동문 (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 지 부      | 회 장                                 |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
|----------|-------------------------------------|---|
| 뉴욕       | 김종욱 B:914-714-0587 F:914-686-0186   |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
| 남가주      | 임낙균 B:213-999-1600 H:310-530-4353   | 백옥자 B:213-999-5911 F:213-365-1686           |
| 샌프란시스코   | 정조웅 B:408-496-6838 H:408-972-4026   | 임승래 B:415-777-1133 H:510-537-5369           |
| 시카고      | 한재은 B:841-741-7990 H:847-428-4929   |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
| 뉴잉글랜드    |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
| 조지아      |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
| 미네소타     | 김태환 B:612-863-4060                  |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
| 워싱턴 DC   | 이영복 B:703-578-6806 H:703-748-0269   |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
| 워싱턴주     | 허운행 B:360-683-4195 H:360-683-4197   |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
| 휴스턴      |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
| 달라스      |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
| 아리조나     |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
| 하와이      |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
| 유타       |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
| 오레곤      | 라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
| 필라델피아    | 김용식 Fax:610-664-3447 C:215-771-2957 |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
| 하트랜드     |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 장명우 F:402-472-5290                          |
| 중부펜실바니아  | 송재훈 B:814-865-6998 H:814-466-0542   | 이 욱 B:814-862-0494                          |
| 캐롤라이나    |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 Fax : 919-560-5012                          |
| 캐나다/온타리오 | 유희자 B:416-960-0074                  | 노정희 B:905-886-4152                          |
| 캐나다/밴쿠버  | 황태구 B:604-433-8539                  |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
| 캐나다/에드먼튼 | 정기진 B:780-437-7669                  |   |

### 동문 사업체 안내

#### 강원

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

#### 골프수업

New York Golf Center  
이재규 (총 60입)  
(212)564-2255  
New York, NY

#### 주인피커시

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

이범선 (상 48입)  
이경림 (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

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

Delloitte & Touche LLP  
김낙구 (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

Wesley Y Chung  
정일화 (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

이규섭 (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

#### 주요기업

IBECONS INT L  
김재철 (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

#### 교육

전리교회  
김태훈목사 (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

#### 국제금융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

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

#### 금고

Alco Lock & Safe  
정인식 (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

#### 금융/상자

Nina America Inc.  
강서권 (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

#### 무역

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

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

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

#### 면포시

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

#### 한국서적 전문 서물서점

권희진 (문 60입) 창업  
(773)463-7756

김용화 변호사  
김용화 (법대 69입)  
(212)869-7000  
New York, NY

#### 병신 내과

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

#### 병신 스키(투어)점

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 (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

#### 병신 신검역점

Rim and Sul, MDPC  
임훈수 (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

#### 병신 상담상담

Kenneth Song  
송근호 (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

#### 병신 워싱턴

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

#### 병신 치과

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

#### 보석

Gold Plus  
서재숙 (골 65입)  
(212)354-8988  
New York, NY

#### 보급

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

한미종합보험  
박일순 (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

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

#### 부동산

Cosmo Realty  
이재덕 (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

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

REMAX (회양부동산)  
최 호 (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

Gateway Title Co.  
박인수 (총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

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

로얄 부동산  
엄무광 (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

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총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

#### 설계

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

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

#### 염색

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

#### 운송물업

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

#### 유지

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

#### 의류기구

MASH  
심상은 (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

#### 의류

Jeffrey Allen Corp.  
이기영 (총 70입)  
(201)863-5160  
Secacus, NJ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 (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

#### 인터넷사업

KS E biz  
장세완 (총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

#### 신문업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 인터넷서점

Aladdin USA  
이형렬 (문 79입)  
(323)692-9888  
LA, CA

#### 지리지 부름

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

#### 집지

Amkor Anam  
정홍택 (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

#### 주류업

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 (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

#### 악보

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택 (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

#### 인양업

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검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

#### 인양업

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

#### 의약품

Revicci(레비치)  
신경택 (약대 52입 · 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

#### 화선

Flowers On Lexington  
박성원 (골 65입)  
(800)2525-way  
New York, NY  
  
Seward Florist  
김수향 (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

# 금년에도 재미총동창회와 동창회보 100호 간행을 후원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셔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2. 7. 1 ~ 2003.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주소 : \_\_\_\_\_
5. 새 자택 주소 : \_\_\_\_\_
6. 새 자택 전화번호 \_\_\_\_\_ Fax. \_\_\_\_\_
7. 직장주소 : \_\_\_\_\_
8. 직장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
10. 동문 자료 은행구축과 모교와 조국을 위한 지적 봉사단의 자료를 위하여 귀 동문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6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재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2. 7. 1 ~ 2003. 6. 30 구독료 \$6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

No. (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2.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 지역동창회

1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2002.7. 1. ~ 2003. 6. 30 회계년도)을 납부합니다.

2

## 미주 관악후원회 4차년도 후원 이사회비 出捐書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出捐書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
- ①일시불 ( )
- ②3년 분할 납입 ( )
- (\$ )씩 (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

Check Payable to :

**SNUA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